



Above

The

Ground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워크숍 및 현장방문

기록집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워크숍 및 현장방문 기록집
어보브 더 그라운드

Above



The

Ground

목차

chapter 0. Prologue

006 기록집 제작 의도

chapter 1. Background

010 연도별 사업 추진개요

011 연도별 현장방문/워크숍 운영방식

chapter 2. I am Ground

[2020년] '지역성'을
발견하기

018 추진방향

022 우리 지역만의 방향성 발견하기
: 전문가, 교육진흥원 간 사전회의/공유회의

029 각자의 역할 발견하기
: 전문가, 교육진흥원 간 사전회의/공유회의

034 전문가와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지역성 발견하기
: 지역별 현장방문 컨설팅(상/하반기) 및 통합워크숍

chapter 3. On the Ground

[2021년] '협력'하고
연결하기

092 추진방향

095 발견하기 과정에서 찾은 것들을 연결하기
: 지역별 현장방문 및 컨설팅(상/하반기)

144 관계자 간 의견공유를 통해 서로의 필요지점 연결하기
: 권역별 관계자 회의(광역센터)

168 주요방향

170 변화 속에서 이어가기 위한 준비하기
: 2년차 거점주체 대상 사전컨설팅

178 우리 지역만의 경험을 쌓기 위해 준비하기
: 신규 거점주체 현장방문/컨설팅

185 협력을 통해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기
: 권역별 관계자 회의

197 2020년 워크숍 주요 논의내용

217 2021년 워크숍 주요 논의내용

235 2022년 워크숍 주요 논의내용

265 기초거점 사업 참여소감

275 끝맺음 말

chapter 4. Above the ground

[2022년] '지속가능성'을
준비하기

chapter 5. Ground-table

chapter 6. Ground-breaking

chapter 7. Epilogue

[기록집 제작 의도]

기초거점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공모사업이 아니다. 연구와 의견수렴, 기획단 운영을 통한 고민의 결과물로 탄생했다. 2018년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2019년에는 ‘기초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세부 사업기획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을 거쳐, 지금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추구하는 취지나 방향은 분명했다. 지역의 작은 단위인 기초나 생활권 단위에서 직접 문화예술교육의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자원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해나가는 것이었다. 그 중심점이 되는 역할을 ‘거점’이라고 보았고, 그 결과 2022년까지 총 22개 지역에서 각자 필요한 목표 안에서 생활권 안으로 스며드는 지역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점의 역할을 완성해 나갔다.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거처온 과정은 단순히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지역 안에서 소통하는 방식,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태도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기회였고, 이는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잘 정착하기 위한 조건을 넘어, 지역 스스로 삶의 방식을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사업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특히 각 거점 주체 담당자가 지닌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기록집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현장방문/워크숍/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한 지난한 과정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기 위해 만들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활용되기를 바란다.



chapter 0. Prologue

연도별 사업 추진개요

연도별 현장방문/워크숍 운영방식

chapter 1. Background



[연도별 사업 추진개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중앙-광역 주도의 선별적·일방적 정책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수요에 따라 지역 스스로 계획을 설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 거점 형성을 지원하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세부구조 설계 [2019년]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은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발굴·매개하여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업 착수 [2020년~]
- 지역성/협력/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초 단위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하여, 총 22개 기초 지역(시·군·구)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 모델(중장기 계획) 도출 [~2022년]

[연도별 워크숍/현장방문 운영방식]

1) 2020년

#다양성 #소통 #기준찾기 #협력 #현황조사 #데이터수집 #문화예술교육 #정의 #만남 #지속가능성 #지역적합성 #상호배움 #지역이슈 #코로나19 #주체확장 #함께고민하기 #지지하기 #다양한경험과사례공유

□ 사업 추진방향

○ 원활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이하 ‘기초거점 사업’) 선정(2020. 6월)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시 지원체제로 진행

○ 기초 단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방문 및 컨설팅 운영

- 거점주체별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 및 고민 지점에 대해 사전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매칭하여 현장방문 진행
- 전문가 간 컨설팅 제공 수준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주체별 추진현황/지역 환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공유회의 지원

○ 참여자 간 접점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한 소통지향 워크숍 개최

- 다양한 상황을 가진 주체 간 소통 및 협력방안 모색, 핵심이슈에 관한 전문가 의견 공유를 통해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 중심 워크숍 운영

□ 사업 운영방식

○ 현장방문 및 컨설팅

- 상반기: 12개 거점주체별 전문가 매칭 방문, 상호 의견공유, 자유토의 순 진행
- 하반기: 지역 상황·수요에 따라 개별 현장방문, 통합 워크숍 운영 병행

○ 관계자 워크숍

- 계획공유 워크숍: 주체별 연간 추진계획 공유 및 전문가 의견 전달을 통한 핵심방향 공유, 그룹별 토의, 사업 행정 관련 안내, 향후 일정 등 사업 운영 관련 안내

- 중간 워크숍: 상호 계획발표 및 핵심 키워드별 라운드테이블로 구성, 지역별 현황과 의견 공유, 세부 사업관련 고민지점 논의
- 결과 워크숍: 주체별 사업과정 및 전문가 의견 공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주안점 논의

2) 2021년

#지속가능성 #지역성 #거버넌스 #자원조사 #방향설정 #이슈해결 #의견공유
#역량강화 #네트워크 #교류 #상호학습 #광역 #지역특화 #인력양성 #공동체회복
#협업 #연계 #조례제정 #협의체

□ 사업 추진방향

○ 거점주체별 핵심 이슈와 고민 파악하여 컨설팅 방식 다양화

- 거점주체가 지역 내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역별 이슈·방향성을 지속 논의하고, 관계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학습 기회 마련
- 주체별 논의주제 설정 및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전문가/관계자 매칭, 시기별 개별/통합 방식으로 맞춤형 운영

○ 사업 방향 구체화 및 거점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슈를 외부 전문가, 다른 지역의 거점주체, 광역센터 등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논의과정에서 기초거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체별 사업방향 구체화 및 거점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 운영방식

○ 현장방문 및 컨설팅

- 방향설정형(*개별운영): 사업 의의에 대한 논의,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공통의 방향 및 역할 설정을 위한 전문가를 섭외·연계하여 현장방문 및 의견 공유
- 이슈해결형(*개별·통합운영): 주체별 수요 및 현장 이슈에 맞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섭외·연계하여, 연간 사업 진행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 공유
- 의견공유형(*개별·통합운영):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및 거점주체 간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워크숍/라운드테이블 형식의 논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이슈 발굴 및 방향 수립

구분	방향설정형/이슈해결형 (전문가 컨설팅)	의견공유형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방식	지역별 개별 운영 (*전문가 현장방문)	거점주체간 개별/통합 운영 (*이슈/권역별 연계)
추진목적	사업 추진방향 및 실행방안 논의	상호학습·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킹 기회 마련
주요내용	연간 사업계획 관련 주체-전문가 간 공유	관계자 간 고민지점·사업 방향성 공동 논의

○ 권역별 관계자 회의

- 지역별 통합 운영(워크숍 형식)으로, 유사한 고민을 가진 주체 간 협력방안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 공유,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
-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 마련

○ 관계자 워크숍

- 계획공유 워크숍: 2년차 주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업방안(협력/네트워킹) 논의, 거점주체 간 현황 공유, 사전질문 결과를 토대로 한 그룹별 논의 후 전문가와 거점주체 간 전체 토론 진행
- 중간 워크숍: 신규주체와 2년차 주체가 함께 참석하여 연간 계획 및 중점 방향 발표,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학습·사업방향 구체화, 권역별 그룹을 나누어 전체 토론을 위한 논의 진행, 발표
- 결과 워크숍: 주체별 사업 방향·상호 의견공유를 통한 거점의 역할/정체성 확립, 사업의 방향과 이슈 등으로 3개의 그룹을 형성, 주체별 네트워킹 및 상호 사례공유, 그룹별 키워드를 토대로 논의 진행하여 전체 의견공유

3) 2022년

#교류 #네트워킹 #중장기계획 #장기적목표 #자생력 #자립 #제도적기반
#지속가능성 #사람 #비전 #생태계조성 #구체화 #협력 #상호역할논의
#구체적협업 #연결 #확장 #거점의역할 #발전

□ 사업 추진방향

○ 지역별 이슈·방향성 지속 논의, 관계자 간 현황 공유를 통한 상호 학습

- 3년차, 2년차, 신규주체로 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참여주체가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 형태로 지원
- 전문가 컨설팅의 경우 주체별 수요에 따라, 필요 시 계획보완·방향수립을 위한 전문가 매칭
- 사업 핵심가치 및 주체별 수요를 토대로, 지역 상황·이슈에 따른 그룹 매칭, 관계자(광역센터/지자체 등) 간 구체적인 현황 및 협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확대 마련
- 특별한 이슈나 수요가 없는 주체의 경우(3년차 등) 사업현장 방문 및 네트워킹 방식으로 대체
- 주체-관계자 간 네트워킹 및 향후 협력방향 수립 논의 계기 마련을 위한 워크숍 주기적으로 지속 추진

□ 사업 운영방식

○ 현장 방문 및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주체별 고민사항/보완지점을 바탕으로 논의 추진
- 관계자 의견공유: 주체 간 논의를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워크숍 방식으로 복합적 구성

구분	전문가 컨설팅	관계자 의견공유
운영 방식	지역별 현장 방문 (*개별)	권역·유형별 분리/연계 운영 (*개별/통합)
추진 목적	거점주체별 계획 실행방안 논의 및 과정 중심의 맞춤형 추진방향 수립	상호 학습·교류를 통한 협력·네트워킹 계기 및 역량강화 기회 마련
참석 대상	거점주체 담당자, 전문가, 지자체관계자(*필요 시), 진흥원 등	거점주체 관계자(협업체 포함),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광역센터(*필요 시), 진흥원 등
주요 내용	· 주체별 고민지점/현안 관련 전문가의견 전달 · (2/3년차) 핵심가치를 토대로 한 현안 공유 · (신규) 세부 사업계획 및 방향성/내용 보완	· 이슈별 현안 논의.전문가 의견 전달 · 관계자 간 고민·방향성 공유 등 (*필요시, 상호 사업현장 방문.연계)

○ 관계자 워크숍

- 교류워크숍: 실무자(워킹그룹 등) 네트워킹 및 사업방향 공유
※ 교류워크숍의 경우, '정책간담회'일정과 연계하여 추진(5월/9월)
- 공유워크숍: 주체 간 사업방향 및 계획 공유, 네트워킹(*상/하반기)
※ 상반기 공유워크숍의 경우, 신규주체 중심으로 추진(7월)
※ 하반기 공유워크숍의 경우, 성과공유 포럼 일정과 연계 추진(11월)

[2020년] '지역성'을 발견하기

우리 지역만의 방향성 발견하기

: 거점주체 대상 수요조사

각자의 역할 발견하기

: 전문가, 교육진흥원 간 사전회의/공유회의

전문가와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지역성 발견하기

: 지역별 현장방문 컨설팅(상/하반기) 및 통합워크숍

chapter 2.
I am Ground

[2020년. '지역성'을 발견하기]

— 추진방향

□ 컨설팅 수요조사

- 추진기간: 2020년 9월 1주 이후
- 세부일정
 - (거점주체)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 [~8월]
 - (진흥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컨설턴트 매칭 및 진행방식 확정
 - (거점주체-컨설턴트) 1차 컨설팅 운영 [9월~]
 - (진흥원) 중간워크숍을 통한 컨설팅의견 및 추진상황 공유 [9월말]
 - (거점주체) 컨설팅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계획 보완

□ 전문가 사전회의

- 목적: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컨설팅 운영을 위한 추진방향 및 진행방식, 지표 관련 논의를 통해 사업 효과성 확보
- 일시/장소: 2020. 8. 28.(금), 10:00 / 교육진흥원 12층 회의실(R3)
- 참석자: 총 9명
 - (컨설턴트)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백현주(전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교육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소연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내용
 - 컨설턴트 간 컨설팅 추진방향 확인 및 세부 일정 논의
 - 지원사업 핵심개념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표 논의

□ 전문가 공유회의

- 목적: 12개 기초거점 현장방문 결과 공유 향후 컨설팅 추진방향 논의
- 일시/장소: 2020. 9. 21(월), 13:00-15:00 / 진흥원 12층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2명
 - (컨설턴트)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백현주(전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소연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정혜우 대리, 이현민 주임, 브레인파크 정현모 팀장, 김진솔 과장

• 주요내용

- 주체별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 있는 지점 및 지원 필요사항 등 논의
- 공통이슈 및 주체별 개별 이슈 확인
- 중간워크숍 및 2차 현장방문 추진방식 논의

□ 상반기 컨설팅

- 일정·장소: 2020. 9. 9.(수) ~ 9. 18.(금), 8일 간 / 거점별 지역
- 운영주체: 지역별 추진현황과 추진 중 고민지점 의논
 - (방향) 일방적 조언·평가 아닌, 거점주체의 방향·내용에 대한 의논대상이자 지지자로서의 컨설팅
 - (지표설정) △사업목표 △협력(거버넌스) △지역적합성 △지속가능성
- 부제: 세나계(세상에 나쁜 계획은 없다)
- 주체별 일정 및 주요 논의주제

일정	거점주체	주요 논의주제
9. 9.(수) 14:00	성북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현황조사 범위와 조사·분석법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의 범위 설정 교육거점 센터를 설립한 참고사례
9. 11.(금) 14:00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상황 속 협의체 운영 방안 네트워크(협의체) 시작·연계 방향
9. 14.(월) 10:00	포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모집 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9. 14.(월) 16:00	지리산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종합분석 중장기 운영 방향 설계 전문가풀 지자체 '조례'만들기
9. 15.(화) 10:30	강릉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운영 사례 조례 방향성 코로나 대응 모델
9. 15.(화) 14:30	춘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운영 지역현황 조사 문화예술교육 개념 수립
9. 16.(수) 15:00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협의체 운영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9. 17.(목) 14:00	광주문화자치회의 (북구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운영법 프로그램 운영방식
9. 18.(금) 09:30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거점 비전·운영모델 지역현황 조사

일정	거점주체	주요 논의주제
9. 18.(금) 10:00	지리산씨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재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례
9. 18.(금) 14:00	전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대응 방안 새로운 기초거점 모델 제시방안
9. 18.(금) 15:00	복합문화지구 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방식	거점 주체	주요 논의주제
11. 23.(월)	개별 진행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사회-전문인력 양성 실무자, 정책 단위 협의회 수요자가 보는 센터의 역할

□ 하반기 컨설팅

- 일정·장소: 2020. 10. 27.(화) ~ 11. 23.(월), 4주 간 / 거점별 지역
- 운영주체: 협의체 운영과 시범프로젝트 진행 방향, 지속성 확보 방안 의논
- 운영방식: 지역 상황에 따라 2개권역 통합 운영, 개별 현장방문 병행
 - 사전 수요조사: 거점주체별 핵심 컨설팅 영역과 세부사항 조사, 확인
 - 통합 운영: 전문가 의견공유, 거점별 추진현황 및 경험, 사례 공유와 토의, 네트워킹
 - 개별 진행: 수요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현황 공유와 전문가 의견 공유, 토의 진행
 - 전문가 공유회의 : 현장방문 및 컨설팅 내용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
- 부제: (정말) 세나계?(정말 세상에 나쁜 계획은 없을까?)
- 주체별 일정 및 주요 논의주제

일정	방식	거점 주체	주요 논의주제
10. 27.(화)	개별 진행	춘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 지역 현장조사 방법 중간조직, 활동가그룹 연대
10. 29.(목)	개별 진행	복합문화지구 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예술가 협력방안 문화예술교육 개념 수립 지역 현황조사 세부방법 등
11. 4.(수)	개별 진행	성북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지속가능성 향후 대안 및 추진방향
11. 9.(월)	통합 운영 (A)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 협의체 운영방식 지역현황 및 지역민 수요조사 재난·생태 키워드 시범사업
		지리산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지리산씨협동조합	
11. 12.(목)	통합 운영 (B)	포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현장조사 방법론 지역단체·기관 관계 광역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강릉문화재단	
		광주문화자치회의	
		(북구문화의집)	
		전주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춘천문화재단	

[우리 지역만의 방향성 발견하기]

— 거점주체 대상 수요조사

□ 주체별 핵심내용

주체명	계획 및 고민
강릉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 프로그램) '단오제 길놀이 콘텐츠'에 예술가들을 매칭(지자체 협력), 강릉지역 외국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교육지원청 협력) (로드맵 수립) 네트워크 구축, 전담인력 구성, 월례회의 등 고민지점: 지원사업에 의존한 방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 협의체 구성원
광주 문화자치회의 (북구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북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없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 (시범 프로그램) 메이커, 생태, 마을, 디자인, 역사 등 북구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소단위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반 구축) 위원회 구성(구의원 포함), 조례제정,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등 고민지점: 포스트코로나 관련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이 실효성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구성) 완주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라운드테이블, 역량강화 (기타) 시범 프로그램 '삶 예술학교', 실태조사 연구 등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활동가 인력 육성) 문화공동체 안에서 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공동체 형성) 공동체가 삶,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 실질적인 지역형(농촌형) 문화예술교육 모델에 대한 고민
부산문화예술 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북구내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연구) 문화예술교육 지표 조사와 협의체 결속력을 위한 프로그램 고민지점: 규모나 권역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지역 주민과 예술가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주체명	계획 및 고민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양성) 예술강사, 매개자 등 전문인력 발굴 및 성장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및 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현장 수요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조사) 지역현황 분석, 네트워크, 컨설팅 기회제공 (기타) 전문인력 워크숍, 교과연계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시민참여 공론화 등 고민지점: 예술가들이 교육 분야로 왔을 때 부딪히는 부분 / 풀뿌리 거점 주체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 / 코로나 대응 비대면 네트워크를 구축 방안 등
성북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운영) 라운드테이블, 참여워크숍, 주민공유 포럼 등 ⇒ 공유성북원탁회의 각 기관 및 학교, 주민 등 포함 (현황조사, 아카이빙)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비평하기 등 (시범프로그램) 소규모 지역배움공동체 '저마다 동네예술학교'운영 고민지점: 종합 계획을 수립을 위한 일정 상 한계 / 생활문화·지역문화와의 구분
전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지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한 주체별 수요분석, 이슈 네트워크 개발 (프로그램) 코로나극복 네트워크사업, 콜로퀴엄, 유아프로그램 개발 (기타)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채널 활용 현장의견 수렴 및 회의진행 고민지점: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주민들의 관심유도의 어려움)
지리산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구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운영) 정기적으로 협의체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결정된 사항들을 현실성 있게 집행하는 실무단 구성 (시범사업) 생태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청년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등 고민지점: 지자체 담당자와의 네트워킹(경직성 해소) / 공간 및 인프라 확보

주체명	계획 및 고민
지리산씨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추진단·민간 워킹그룹·기관 간 역할설정 및 방향·과정 설계 (시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을 토대로 지역 순환 생태계 구축(교육주체와 참여자 매칭) / 구례 문화플랫폼 및 기타사업 통합운영 / 융복합 지원센터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단위 안에서 소외지역 해소에 대한 방안 논의하여 도달률 높이는 방안 연구R&D 분야 및 아카이빙 등을 통해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적용하여 해볼 수 있는 기초센터 모델 개발방안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조사) 청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중심 정책 분석 및 의견수렴 (시범 프로그램) 핵심가치(균형, 특화 협력)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딥(deep)담화 운영(매월 1회) (지역자원 조사) 활동가, 예술가, 매개자 그룹 발굴 및 특화 플랫폼 조사
춘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킹그룹 형성) 생활근접형 사업으로 마을 지역 수요 및 자원조사 진행 (협의주체) 개인에서 출발하여(개인의 역량 확인 및 관계 맺기 등), 유관단체를 최대한 많이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자 함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측정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지속가능성(여러 사람들과 함께 타이밍을 맞춰 잘 성장하고자 함)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의체 구성 방안(시민의 주도성과 자발성 지원)
포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운영) 수평적 조직으로,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 재단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수시회의와 공식회의를 통해 의제 결정 (시범 프로그램) 교육지원청 및 예술강사분들과 협력하여 중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시범운영(학교교육 연계)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와의 경계가 애매한 감이 있음 문화예술교육이 내용 안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도록 하고자 함

□ 주체별 컨설팅 수요

	주체명	컨설팅 요청사항
1	강릉 문화재단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운영 사례 지역 기관들의 협력 구축 모델 협력적 관계를 위한 협의체의 범위·역할 한계 지역의 관심과 힘을 실을 수 있는 조례의 방향성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기초 단위거점의 대응 모델 비대면 네트워크의 한계 문화예술교육의 형태 전환 지역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시스템의 어려움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접근 방법에 대한 자성과 기본 자료의 수집 및 활용·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 네트워크의 새로운 모델 구축 지역, 강릉의 문화예술교육 개념 정립
2	광주문화 자치회의 (북구 문화의 집)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실천력 갖춘 협의체 운영법 <옆집 예술선생>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고민 필요 기존 강사들과 북구 <옆집 예술선생> 차이점 <옆집 예술선생>이 갖는 강점과 매력점 북구만의 예술선생 장기목표, 실행계획 등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광주 광역 내 문화예술지원센터(광주문화재단)와의 연계, 협력 방안, 역할 설정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평생학습, 의원 등 협의체 실질적인 현장 협력방안 워킹 그룹(예술배움터) 운영과 그에 따른 '옆집예술선생'파견
3	복합문화지구 누에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도해야 할 가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법 문화예술교육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가치 철학의 공유를 위한 방안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인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거점 운영관련 예술가와의 효과적인 협업
4	부산문화 예술교육 연합회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비전·거점 운영모델 코로나19 시대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등 진행법 지역현황 조사: 기초로써 지역현황조사 범위설정·접근법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하고 실제 운영가능한 협의체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주체명	컨설팅 요청사항	
5	성남 문화재단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상황 지속 시 협의체 운영 방안 네트워크(협의체)의 시작 및 연계 방향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등 개별 사업을 유기적인 연결체계로 만드는 법 실무자·관리자급의 단위, 구성 간 연계성 및 효과적인 상호 발전적 역할 수행방법 네트워크 단위를 상호 연계, 발전시킨 다른 우수 사례 사업별 수요자, 센터 방문자 등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조직, 역할)와 '성남꿈꾸는예술터'(공간)가 어떻게 연계되고 대중에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6	성북 문화재단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 현황조사 범위와 조사 및 분석법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범위 설정 지역의 힘으로 교육거점센터 설립한 유사 추진 사례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지원사업 중단 시 대안 등 지속가능한 구조 설계 방안
7	전주 문화재단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 상황 속 주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중요성 피력 및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법 기존 지역 문화 구조에서 새로운 기초거점의 모델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방법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단계 설정 지역 내 기관들과의 관계 설정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범위 설정 거점이 정의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가 지역에 미칠 영향
8	지리산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현황 조사 이후 데이터를 종합화, 분석 시에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 설계에 대한 조언 지역 사례를 입체적 분석하고 풍부하게 해줄 전문가풀 본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만들기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지역민 대상 수요조사(설문조사) 진행에 대한 자문 : 문항설계, 설문 후 취합하여 데이터 분석 요령 등 키워드 토크 등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확장 풍성하게 만들어 줄 패널추천

	주체명	컨설팅 요청사항	
9	지리산씨 협동조합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이후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한 대응 - 현실적으로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사례 - 재난 극복 솔루션 중 정서적 솔루션 재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행정체계와의 대화 전략 - 재난 지역 무너진 행정체계와의 연결망 복원 - 행정·민간·공공 모두 재난 속에 놓일 경우 대화 전략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민관기획 실행협력그룹으로 공정하게 구성 가능한 과정 협의체가 권위적인 조직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 예시 기획실행협력단의 역할을 하는 민간위킹그룹에게 줄 수 있는 보상 재난으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 방법
10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가능한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협의체 구성(기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협의체와의 연계, 차별성 - 도·시·교육청·광역센터 등) - 정책기반 마련(예산, 조례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체부 향후 방향) -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과정에서 진흥원의 지원, 협력, 역할 등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와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생활문화와의 유사점과 차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떼-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문화진흥원-생활문화공동체사업 (마을기반-주민주도), 지역문화활동가,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통합운영사업(지역문화진흥원), 교육청-행복지구사업, 예술강사제도, 청소년활동시설,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문화원 등 기초 내 범주·역할 고민 - 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도시, 청년사업 등 활동 주체·내용이 비슷한 가운데 기초거점 역할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100인의 활동가들이 선정될 예정, 이들과 함께 워크숍 진행 후 필요 지점 내부적으로 11월 초 대표 취임, 종합감사 이슈가 있어 11월 중순 컨설팅 진행 필요

	주체명	컨설팅 요청사항
11	춘천 문화재단	<div>1차</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연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소통전략과 운영방식 • 지역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있는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사 방법 - 인물 자원 외 중요 요소와 우선순위, 접근해야할 내용 • 문화예술교육 개념 수립과 교육적 '가치'증명 <div>2차</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공동체, 주민자치 영역활동가가 함께 추진하는 통합형 현장조사 방법(안) • 중간조직 및 활동가 그룹과 연대하는 문화재단 역할 재구성 방안 • 마을의 일상적 문화예술을 매개(삶을 삶으로 연결)하는 지역 문화 매개 인력의 역할
12	포항 문화재단	<div>1차</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단과 개별 소통을 통해 참여하기로 한 기관, 단체, 개인예술가가 존재, 이와 별개로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모집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 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계획은 협의체 참여주체(포항문화재단, 포항시, 교육청, 청소년재단, 기타 유관기관, 시민협력단, 예술가 및 단체) 별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 - 이 과정에서 "예술가 및 단체"의 대표를 장르와 지역에 상관없이 00명으로 정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분과별(음악, 미술, 국악 등)로 나눠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 - 협의체 운영 규정 제정 관련 : 참고할 만한 자료 <div>2차</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컨설팅과 워크숍 등 의견을 통해 올해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에 관한 현재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 요청 • 문화예술교육 LAB / 웹진, 맵 구축 관련 • 실태조사 방식 관련(현 문화도시사업으로 진행하는 향유실태조사와 연계 진행 예정)

[각자의 역할 발견하기]

— 전문가, 교육진흥원 간 사전회의/공유회의

1) 전문가 사전회의

□ 추진개요

- 일시/장소: 2020. 8. 28(금), 10:00 / 교육진흥원 12층 회의실(R3)
- 참석자: 총 9명
 - (전문가)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백현주(전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소연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안건
 - 컨설턴트 간 컨설팅 추진방향 확인 및 세부일정 논의
 - 지원사업 핵심개념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 지표

□ 논의 내용

○ 지표 수립 관련 논의

- 향후 평가와의 연계 고려 시, 지표 많을 필요 없음. ▶계획수립의 체계·과정, ▶조례 등 기반(infra) 조성, ▶협력, ▶추진조직, ▶지역적합성 등 볼 수 있을 것
⇒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취약지점 발견하고 기반을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 만드는 것. 이러한 모델은 기존 유형이 아닌, 혁신모델이 필요
- 사업 근본 취지가 지역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 이는, 지역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 생산하는 역량에 대한 것
⇒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의 결과나 만족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함

○ 컨설팅 방향 논의

- (일방향 컨설팅 아닌 상호배움의 기회 필요) 동 사업의 의미는 ▶기초 단위에서의 지지망 확보, ▶문화예술교육의 본질 구현, 정도로 볼 수 있음. 12개 주체 모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 나름의 노하우로 이 두가지 측면을 형성해 왔음. 이러한 과정을 상호 학습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

- ⇒ 선도적 모델 기대되는 4~5개 주체의 사업계획을 놓고 전체가 함께 그
과정과 고민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면, 서로 배우는 지점이 있을 것
- **컨설팅을 평가로 오해할 위험 있음.** 기초거점의 사업 설계를 어느 수준까지
설정할 수 있을지, 광역과의 역할 구분 등 정책 단위까지 논할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할 때 전문가 컨설팅이 막연한 부분 있음. 결국 같이 이야기하고
참조해가면서 기준을 찾는 과정으로 보아야 함
 -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결국 주체별로 이미 가지고 있는 방향과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확인·지지해주는 역할일 것.** ‘평가’가 아닌
‘친구·지지자’의 역할이 되어야 함
⇒ ‘컨설팅’이라는 용어 대신, ‘지지자, 조력자, 레퍼런스’의 의미를 담은 표현
필요
 - 참여 주체들이 그간의 이력과 색채가 다들 있다고는 하나, 결국 한정된 여건
하에서 실무자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어려워 함.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 (정리) 고정된 형식의 일방적 컨설팅으로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되,
12개 주체 간 전체 내용 공유는 7월중 이미 추진된 바 있어, 지역에서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와서 답답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상황임. 우선적으로는 <전문가별로 2개 지역을 방문하여 주체별 상황과
고민 등을 청취 → 컨설턴트 간 내용 공유·의논 → 이후 추진방식
결정>의 과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 맞출 것

□ 컨설팅 주요 방향 및 지표 설정

• 컨설팅 추진방향

- 참여주체 특성 고려(문화재단 등)할 때 문화예술교육 및 협의체 운영 등의
역량이 보통 이상일 것으로 보여짐 → 일방적 전문가 컨설팅 방식보다는
함께 의논하는 계기나 상호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
- (1차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수요 파악) 현장 방문을 통해 주체별 추진현황 및
고민지점 등을 면밀히 파악 필요(전문가별 2개 현장 방문)
- 현장방문 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및 논의 필요한 주요 지표 수립 필요

• 컨설팅 지표

- (고려사항) 사업 핵심가치를 토대로 하되, 결과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확인·보완·지지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

키워드	세부 검토 내용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의 주체) 지역내 협력주체의 발굴 방식, 대상설정의 범위 등 ▶(협력의 내용·방식) 주체별 협력의 수준 및 내용, 가능한 협력의 방식 등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분석)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및 유관영역의 자원현황 심층 분석 방식과 과정 → 지역 내 취약지점과 강점의 파악 ▶(수요파악 과정의 타당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조사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분석·의견수렴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모델의 도출
지속 가능한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측면) 지역 내 행정적 지지 형성을 위한 노력(조례, 업무협약, 정기협의위원회 발족 등) ▶(내부적 측면) 추진 핵심조직(주체)의 체계성, 유연성, 확장성 등
사업관리의 적절성 (행정적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비 기초거점 운영을 위한 예산, 인력, 공간 등 관리 적절성

2) 컨설팅 공유회의

□ 추진개요

- 일시/장소: 2020. 9. 21(월), 13:00-15:00 / 교육진흥원 12층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2명
 - (전문가)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백현주(전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소연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정혜우 대리, 이현민 주임, 브레인파크 정현모 팀장, 김진솔 과장
- 주요내용: 12개 기초거점 현장방문 결과 공유 향후 컨설팅 추진 방향 논의 등

□ 주요내용

- 현장방문 주요내용 공유(공통 이슈)
 - (사업 추진관련 핵심 키워드) 지속성에 대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지기반 확보(운영체계, 조례제정, 행정과의 관계 등) / 지역 내 주체의 확장성(거버넌스) / 지역특화 이슈에 대한 고민 / 사업에 대한 이해와 궁극적 지향성 확인 등
 - (올해 사업의 목표 및 진행범위)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다양성’을 중심으로 최소 수준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함. 프로그램의 완성도보다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기존에 없는 시도, 다양성, 협의체나 조례에 대한 단계별 접근 등을 통해 지역별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에 올해 사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 최종적으로 (3년의 전략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지점일텐데, 지역별로 필요한 지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맥락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미션임
- 관계자워크숍(중간) 관련 논의
 - (관계자워크숍 구성) 1부에서는 각 지역별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한 기초거점 사업에 대한 핵심 공통이슈(거버넌스/지역특성/지속가능성)를 공유, 2부에서는 전체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주체별로 다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 (주체 간 소통기회 마련) 일부 주체들의 경우, 서로 궁금한 점이나 부딪히는

지점 등 자유롭게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진행 순서 안에 해당 측면을 고려한 기획이 필요할 듯함

- 2차 현장방문 추진방식 논의
 - 지역별 현황에 따라, 컨설턴트 결합 및 외부 지역전문가 추가 섭외하는 방안 고려(예 : ‘생태, 환경’등과 관련한 특정 이슈들이 작용하는 주체들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각 주체별 세부 프로그램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피드백을 전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와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지역성 발전하기]

— 지역별 현장방문 컨설팅(상/하반기) 및 통합워크숍

1) 1차 컨설팅(상반기)

① 성북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9.(수) 14:00~16:00, 성북문화재단
- 참석자
 - (거점주체) 성북문화재단 박현진 팀장, 김현주 대리, 양혁진 코디네이터, 김명진 코디네이터
 - (전문가) 비커밍컬렉티브 김정이 대표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사업의 목표) 성북구에서 건물(공간)만 만들어지고 있고 자원들은 개별화 · 파편화되어 흩어져있어, 이를 묶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함. 주요 추진방향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을예술 돌봄학교(마을의 거점 공간) 지향.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결과포럼 등에 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해보자’라는 목적이고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역과 어우러지는 센터의 역할을 결과로 만들어보고자 함
 - 성북이라는 마을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위상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 매우 중요. 거점이 전략의 생산단위가 되는 것을 위상의 목표로 삼는다면 대표와 실행위원을 통한 구청장까지 고려한 계획·전략 필요
 - (공간 관련) 공간이 기초거점 센터 안에 들어가야 멀리 가지 않고 마을에서 ‘예술’로 돌봄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으로서 필요한 것인지 연구소 같은 기능(개발해서 학교나 센터로 펼쳐지는)으로서 공간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방향성 설정 필요
 - (협업 관련) 교육의 핵심인 교사, 수혜자(부모, 성인, 청년, 청소년)와 학교 밖 센터, 기타 선생님, 관련 단체들, 중간조직, 예술 강사 등을 5개 군으로 나눠 인터뷰하고 이들은 워크숍에도 참여하도록 유도 중임. 돌봄 인력과

청소년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하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데, 들어야 할 대상이 너무 많고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 있음
→ 학교 중심성이 강한 것 같고, 과연 학교 안과 밖으로 구획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왜 계속해서 학교 교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방법이 필요함. 또한, 성북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종류와 형태를 조사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가능함
→ 수혜자와 향유자를 위한 공간은 있는데 활동가와 예술가를 위한 공간은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적 의지를 가진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 가능할 듯함.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우선 전략프로그램의 배치, 지역 예술가들의 수익모델 안정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2개월 동안 현황조사에 집중하려고 함. 5개 직군 정리 완료. 데이터를 최대한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분석의 근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함. 단 매번 자료나 너무 방대하고 개념적 요소가 많아 헷갈리는 부분이 어려움
 - 현재처럼 광범위한 조사를 계속 할 경우 참여인력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데이터는 이미 많이 생산되어 있는데 관리와 가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미 없는 데이터를 확대하기 보다 쓰임새 있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봄
- (지역자원 조사 방향) 양적인 데이터는 일부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 이를 보완해서 확장할지, 깊게 갈지 선택하고자 함.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교육과 1차 구분으로 설정하여 공간, 프로그램, 운영자 등에 대해 ‘분석’을 해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자 함
 - 이미 수많은 원탁·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논의의 자리는 이미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FGI 등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미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초점을 단순화해서 정리 필요
 -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하는 등 단순히 의견을 모아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의식 필요. 더불어, 지속적으로 ‘현장화 되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협의하면 좋겠음



② 성남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1.(금) 14:00~16:00, 성남문화재단
- 참석자
 - (거점주체) 성남문화재단 박은진 과장, 김환실 대리
 - (전문가) 경희대학교 백령 전문위원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사업의 목표) 거점 사업에 참여해야 기초센터로 지정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했고 거점사업을 통해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재단이 산발적 · 분절적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전반을 담아내는 정책적 역할을 하고자 함
 -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재단이 모든 프로그램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협의체를 통해 성남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청소년재단·방과후센터 등 각 주체들과 협의하며 방향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 (지역 생태계 구축) 향후 재단 없이도 강사와 지역이 함께 활동을 하도록 성남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한 예산·상황에 대한 출발 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성남은 타 지역에 비해 기초자원이 탄탄한 편이라 전략적일 필요가 있고 꿈터 사업과 합쳐서 진행되는 점에 있어 전략적으로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구성) 워킹그룹으로 학교에서 교육·연구하는 그룹이 있고 사회영역은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원장 그룹, 복지관이 있음. 산성동 주민주체도 모임 준비중이며, 노인영역은 2개 복지관만 연락한 상태임. 전문인력 네트워크는 민간주체 2개 미팅했고 민예총 등은 협력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방향성을 모르겠어서 아직 본격적인 협력은 하고 있지 않음. 전임강사 10명과 매주 만나서 회의 진행 중임
 - 네트워크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연수 필요, 워킹그룹을 통해 산발적 · 파편적 상황을 묶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어 매우 중요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강습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되길 바람

- (지역성) 성남의 전문인력, 학교를 하나로 엮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하기 어렵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함. 그러므로 공론화가 중요함. 공론화가 협의체보다 더 먼저 필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이슈, 문제는 무엇인지, 총체적 비전을 위해 어떤 영역을 만나야 하는지 검토 가능. 이를 활용하여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만나면서 협의체 구성의 어려움도 해결 가능
 - 성남은 이전에 연구물, 사업결과보고서, 릴레이 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와 담론이 논의된 적이 있으므로 이를 모아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파편화된 일을 모으고 체크해야 함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성남형 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비전을 수요자에게 설명하기보다, 수요자와 학습자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 조례에 대한 정리 못함. 풀뿌리로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니 잘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무얼 할지, 어떤 색깔로 진행할지 잘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그동안 풀뿌리에서 문화예술로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어떤 것들을 지향했는지를 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고 이를 교육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이 되어야하고 성남 안의 많은 자원들을 공론장으로 모아 협업을 모색해야 함. 성남의 예술자원을 믿어야 함
-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력 발굴 관련) 예술가 발굴 연구를 했으나 지역예술가가 많이 지원하지 않았고 나이가 많거나 타 지역이 많았음
 - 재단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예술가, 주체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함. 강사한테 집중하게 되면 강사들을 강습에 집중하고 전임강사 등 안전망이 형성되면 경직되게 됨. 그래서 예술교육이 가져야 하는 유연성, 즉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함



③ 포항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4.(월) 10:30~12:30, 포항문화재단
- 참석자
 - (거점주체) 포항문화재단 이주행 대리, 이해지 담당자
 - (전문가) 전 수원평생학습관 백현주 기획실장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기초거점 지원 배경) 지역 내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이 부족함. 많은 시민, 공무원 등이 기초자치 센터에서 하는 예술 강습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기초거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고 싶었음
- (협의체 구성 관련) 지역 상황이 경직·보수화 되어 있고, 협의체 내 딱딱한 권력구도가 있어서 협의체 운영 구성과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또한, 협의체의 폭이 너무 넓은 감이 있음
 - 주체의 건강성과 민주적 과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협의체 회의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음. 문화예술교육 수행이 가능한 핵심 그룹이 노출될 수 있게 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더불어, 시민단체, 예술가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접근이 있어야 보다 효용성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을 듯함
- (학교예술 라운드테이블 진행) 방과 후 학교 예술교사와 교육청 관계자가 소규모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자 함.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관심있어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옴. 추후 학부모 그룹 등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할 예정
 - 학부모를 설득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학부모 그룹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주소가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강사나 예술가 그룹이 스스로 자신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할 때는 회의 진행의 전문가가 필요함.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나 모더레이터가 필요함

- (시범사업 관련) 재난 대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예술교육으로 재난 생존하기」 시범사업 진행 중임. 3월에 공모하여 2개의 프로그램을 선정 및 시행 중이고, 5분 분량의 영상 만들어 한 편의 동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임.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를 통해 포럼, 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중임

→ 사업·행사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성 확보, 협력체계 마련, 교육의 질 향상 등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④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4.(월) 16:00~18:00, 악양 생활문화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지리산학교 이창수 대표, 정연준 팀장,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이해원 대표, 전민정 실장
 - (전문가) 전 수원평생학습관 백현주 기획실장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기초거점 사업 참여배경)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하동 지역은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있으나, 예술강사에 대한 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해 물어보면 그저 무료로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변화와 확산을 가져오고자 함
 - (지역 내 협력구조 마련) 이번 사업을 통해 지리산학교와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가 연결된 것처럼 하동 관내의 문화예술 단체를 파악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 함.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노력할 예정임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재맥락화) 하동에는 다양한 생활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나, 예술가적 정체성은 부족함. 예술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면서, ‘당신이 하는 행위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재맥락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재맥락화 작업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주체에게 각인되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부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임. 담론화 작업이 행위를 다양하게 하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생각함
 - (지자체 예산 확보 관련) 예산이 부족해도 지리산학교가 10년 동안 운영한 것처럼 진행할 마음은 있지만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봄
→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서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봄
 - (민간주체로서의 공공성 확보) 민간주체의 장점은 자유로운 기획,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가능성에 있음. 단, 약점은 공공성일 것. 지역 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공공과 함께 자체 평가지표를 만들어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기초거점 역할에 대한 고민) 기초거점은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지원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하나 의문이 있음. 준재단이 되면 그것이 갖는 형식화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4-5년 정도 민간 부분에서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실험을 계속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음



⑤ 강릉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5(화) 11:00~14:00, 강릉문화재단
- 참석자
 - (거점주체) 강릉문화재단 심원 부장, 안윤진 대리
 - (전문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
 - (진흥원)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사업 목표설정) 누구나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 네트워크 중심축을 구축하고, 문화예술협의체의 구성과 지속성 부여, 이를 통한 강릉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 (예술가와 활동가의 자리 찾기) 소외지역 학교, 마을공동체, 동아리 등 시민들 사이사이 고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예술가(활동가)들의 활동 무대 발굴 및 연결하고자 함
 - (문화예술의 일상화) 강릉의 지역 자원 및 문화예술기관, 공유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인, 활동가, 예술 강사들을 시민들(생애주기별)과 만날 수 있는 매개 역할과 문화예술 확산에 중점을 두고자 함. 또한, 공간의 예술가, 현장의 예술가, 시민들 속 예술가 및 활동가를 적재적소에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중심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시범사업-단오제) 지역 예술가들이 마을로 들어가고, 마을이 스스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음.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단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각자의 마을의 특성화를 살리는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나가고자 함
 - 기능적인 방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가지고 창의성을 증진하거나 지역문제를 고민하거나,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타 단체 및 지역과 재단 협력관계) 위탁시설을 재단에서 운영하여, 다른 기관의 경우 시설에 대한 어려움과 사업운영에 대한 갈등 관계 요소가 존재함. 문화재단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게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구도를 위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젊은 예술가 및 청년 워킹그룹과 함께 협력하여 활동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잠재 파트너들은 어떻게 만날 것인지, 새로운 파트너를 어떻게 발굴하고 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 복지관 · 청소년 교육기관 등 지역 안에 권역별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내 박물관도 좋은 잠재적 네트워크이니 장기적으로는 박물관과 같이 가면 좋을듯함
-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추진방향) 마을 주민 속으로 예술가를 보내는 시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음. 마을 주민들이 기관으로 찾아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예술가들이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할 예정임
- (조례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행정과의 관계 형성) 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지역 관계자 및 시의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낮음. 문화다양성을 위해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단체들과 맞춰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꿈터·거점사업과 함께 여론조사 및 언론 기획기사(이슈화)를 진행하고자 함



⑥ 춘천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5.(화) 14:30-17:00 / 춘천 아르쥔 생활문화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춘천문화재단 김미정 사무차장, 김현정 팀장, 강정지 대리, 문화도시센터 강승진 센터장, 시민문화팀 신의섭, 문화예술교육팀 김현지 담당자
 - (전문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전문위원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정혜우 대리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협의체 운영방식) 고정적인 협의체가 아닌, 느슨하게 연대하는 협의체 운영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마을활동가와 예술인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협의체 운영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에 맞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설계방안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의 구조를 담고 있는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향 고민
 - 생애주기별로(아동, 노년 등) 실태를 조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술을 매개로 각 연령대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를 살펴본다면, 생애주기라는 개념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임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시민문화예술교육과의 구분 관련) 재단 내에서 내년부터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고려 중임. 사각지대 없는 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정규 교과목과 연결했는데, 근무조건 및 수업시수 확보에 어려움 있음
 - 교과과정으로 들어갈수록 문화예술교육 수행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학교라는 곳이 거대한 클라이언트이자 파트너이니,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함. 다만, 교육청과 문화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업 시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각 지역의 교육청과 학교의 교장에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직접 컨택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들을 만들어나가면 좋을 듯함

- 예술교육 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을 그룹핑하고 양성된 인력에 대해 진로 방향을 평가하고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
- 더불어, 춘천이라는 지역의 특징은 마임·인형극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이라고 봄. 이를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진행 인력 및 시간 부족의 문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인력은 한정적이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많아서 고민임
 -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할 듯함. 또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숨겨져 있는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⑦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6.(수) 15:00~17:00, 청주동부창고
- 참석자
 - (거점주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시민예술팀 박효진 팀장, 심밖음 선임, 박종명 선임
 - (전문가) 비커밍컬렉티브 김정이 대표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100인 선정 관련) 구 단위로 공모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재단과 공유해서 나온 계획과 의견을 받아서 내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에 있음
 - 100인을 조사원으로 쓸 것인지 프로그램 개발자로 가져갈 것인지, 연차별 목표를 두고 조사원에서 궁극적으로 개발자로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지고 선발과정의 기준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면 활동가보다도 주민이나 동장 등 중요한 인물이 좋은 기획의 자원이 될 수 있음. 재단이 코디 겸 조장과 직접 소통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기초거점의 위상과 연결될 수 있음
 - (지역 현황 조사 관련)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활동과 적합한 인력, 공간이라고 생각함. 지역 내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조사하도록 해서 최종 취합하고 공유할 계획에 있음
 - 지역 내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를 넘어서서 그 공간이 외부에 개방되는지, 활용하는 절차와 담당자는 누구인지, 활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타 고려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봄. 궁극적으로 자원조사의 깊이가 깊어야 보다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이고 실행은 자율적이되, 담아내야 하는 데이터는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13개 장르가 너무 많으면 시각과 공연, 기타분야로 가능할 듯함. 조사한 것들의 수위와 거점이 희망하는 수위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엑셀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가 필요함. 또한, 프로그램별로 제작 프로그램인지,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인지 변별이 필요함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역할) 지역 내 단절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단의 공공성을 활용하여,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초거점은 주요 파트너로서 예술가, 기획자를 우선고객으로 해서 이들이 잘 되어야 거점도 잘된다는 목표로 두고 2순위는 시민으로 삼아 이들의 접점이자 연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광역과의 관계 관련) 광역센터가 청주에 있다 보니 청주시문화재단과 겹치는 것이 많음. 예산 매칭이나 사업이 겹치지는 않는지, 고민 지점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들어보려고 하고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청주에 대해서도 알리기 위해 교류하고 있음
 - 광역과 중앙은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는 전략과 역할이라면 기초 단위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충돌되지 않는 생태계가 될 것인지를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 예산 확보 관련) 지자체나 학교에서도 유사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할당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시의회나 의원, 지역 언론들도 연결망과 행위자 중 조력자이므로, 포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검토 할 수 있을 듯함
- (문화예술교육의 범위 관련) 문화예술교육 거점 관련 추진체계가 너무 많아(도서관, 박물관, 주민센터, 청소년거점시설 등등) 범위를 어디까지 뒀어 하는지,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 됨. 또한, 다양한 자원이 모였을때 생활문화, 전업, 젊은 층의 작업이 매우 다른 양상일 것이고 필요로 하는 공간과 접근이 다르므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서, 유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⑧ 광주문화자치회의(북구문화의집)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7.(목) 14:00~18:00, 광주북구문화의집
- 참석자
 - (거점주체) 광주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관장, 박우주 사무국장, 김희승 코디네이터
 - (전문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운 교수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정혜우 대리,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협의체 구성) 북구문화의집 사무국인 '추진그룹'과 7개 파트로 나누어 기초 단위의 이슈나 제도적 방안과 요구를 고민하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이뤄지는지를 논의하는 '연대그룹(위원회)'이 있음.
 - 또한, '워킹그룹'은 현재는 핵심 그룹과 인력을 포섭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추후에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풀을 확보하고자 함
 - 연대그룹에서 민간파트너로서 '주민 그룹'이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마련 및 실효성 측면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음
 - 더불어, 협의체 구성원 간 비전 공유, 끊임없이 논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할 듯함. 제로베이스 시작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함께 개념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함
 - (옆집 예술선생 프로그램 관련) 5개 분야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준비 중임. 내용에 대한 가치보다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강조하고자 함
 - 기초 단위의 프로그램은 기존 문화예술교육과 정반대로 소규모, 형식의 자율성, 시간의 자율성 등과 같은 형식적·내용적인 고민이 필요함. 옆집 예술선생에서도 몇 가지 지향하는 조건들을 고민해야 하고, 강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프로그램의 내용 관리를 해야 할 것
 -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생각했는지, 왜 해야 하는지 동기를 통해 내용적인 관리를 하는 식상한 방식이 아닌 낯선 방식으로 과정을 조직했음을 보여줘야 함. 북구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어떤 과정으로 작동했는지 구조화에 집중하고, 단순화하되 체계화한 아카이빙하여 추후 성과로 세울 수 있다고 봄

→ 다만, 행정적인 관점에서 수요 그룹, 즉 공신력(주민의 요구)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듯함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예산 확보에 대한 제도적 고민) 구청에서는 광역 단위(시)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행정에서 근거를 기반으로 구의회를 움직이고, 집행부를 통해 예산을 만들 수 있는데, 행정단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구문화의집에서 요청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음. 더불어,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북구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짐
 - 예산의 문제는 조례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텐데, 광주북구문화의집은 광주문화자치회의가 위탁단체로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므로 여러 한계 지점이 존재함
 - 만약 조례가 생겨서 북구문화의집이 기초센터로 지정받게 되더라도, 현재 위탁기관으로서 되어있는 광주문화자치회의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될 경우, 지속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광역과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 광역의 역할이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광역 단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 범위가 넓으나, 구 단위나 기초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으므로 광역과 차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플랫폼의 기능을 정확하게 해내면, 자연스럽게 기초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기초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애매해질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광주 지역의 상황에서 북구문화의집은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봄



⑨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8.(금) 09:30~11:30,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참석자
 - (거점주체)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김평수 센터장, 최형석 사무팀장, 이일록 연구원, 조영미 연구원, 류기정 이사
 - (전문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
 - (진흥원) 허윤정 팀장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방향 관련 논의
 - (지역생태계 연구 관련) 지역특화 콘텐츠를 시범사업으로 접근 중임. 자원의 성장과 관련해서 마을선생님 예술강사(학교뿐만 아니라 북구 내 예술강사), 마을특화 예술강사를 양성하여, 센터에서 인력 파견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다행복 교육혁신지구 사업 연계 관련) 북구청과 교육지원청이 하는 사업으로 교육공동체에 가까운 형태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주로 마을선생님과 마을해설사로서 예술교육을 가미하거나, 놀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 주도적 놀이와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접근 중임. 강사들이 어떤 문화예술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선발 때부터 고려할 예정이고, 이후 연수와 워크숍도 함께 운영할지 논의할 계획임
 - (협의체 구성) 북구 내 문화예술단체, 마을공동체, 공연장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보내고 있음. 계속 만나는 것만으로 방향을 도출 할 수 있을지, 이상과 실제의 괴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청취해야 할지, 어디까지 들어서 기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임
 - 고민의 단위가 너무 커지면 갈피를 잡기 더 어렵고 위상을 너무 높게 잡는 측면이 있어 보임
 - (협력의 범위 관련) 다행복 교육혁신지구 등 사업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어느 지점까지 협력대상으로 넓혀야 할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직 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일치가 없음
 - 학교, 복지관,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어디까지 해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1차적으로는 워킹그룹 역할, 2차는 연계그룹, 3차는 통반장 등 넓게 보는

활동하는 그룹 등 농도별로 나눠보는 방법도 있음

- (협력대상 발굴) 발굴 지원 활동은 커뮤니티 간담회를 통해서 발굴하고 개별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며, 기존 커뮤니티가 많아 발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음. 평생학습 영역이 계속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도 그 일부이기 때문. 가치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룹의 발굴 필요
-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북구는 사전 데이터가 많아 자원조사 연구는 진행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분석하면서 지역커뮤니티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영하고, 역할과 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사업 초기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단체와 프로그램, 자원들이 기존에 있었고, 존재감의 문제가 있어 박람회 등의 계획도 성과보고 자리 정도로 축소하게 됨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북구지역 특성) 다행복 교육혁신지구가 다른 구보다 끈끈하게 형성돼있고, 낙후지역이라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화해서 해결하려는 자생적 활동이 많음
 - (거점 공간 마련 관련) 북구빙상장이 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컨소시엄한 사회적 기업 3곳의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며, 그 외 공간도 계속 찾고 있음. 꿈터에 별동을 지어서 센터가 지역 커뮤니티 실습장소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일부 상시공간 외에 나머지는 매개만 해주는 역할로 생각 중임
 - (기초센터의 역할 정립) 최근 북구에 새로운 형식의 여러 센터와 놀이터가 들어오면서 역할 정립의 문제 발생. 우선 북구의 기초센터와 꼭 협력해야 하는 주민 역량강화 같은 부분을 협력해보자고 하는 중임
 -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민) 부산은 광역센터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광역에서 하는 기획 역할이 없으므로 기초센터가 생기면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고 광역이 경계하게 되는 상황임. 북구 내 잠재적 인력 발굴과 수요와 공급 주체를 연결하는 아카이빙 소스를 가지고 있는 센터로 수요와 방향이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좌충우돌이 있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고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음
 - 사업 기획·준비 시 대책이나 기대치 등 밑그림이 없을 경우 뒤죽박죽될 수 있어 사전 밑그림 필요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단정해서 판별할 수는 없고 스스로가 인식하게끔, 다른 형태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을 하는데 누구랑 할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모델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허브 역할로 기능하고자 함

-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 내년에 1대1 매칭으로 예산이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사업 세팅과 공급 역할이 있어야 존재감이 생길 텐데 해당 예산으로 핵심역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임
 - 장기적 인식확장을 가져가면서, 지자체 설득을 통해 방안을 만들어야 함
- (조례 제정 관련) 조례 제정, 센터 활동 교류를 위해 복구 창조문화활력센터가 구와 의회 등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지원해주고 있고, 구청장과 의장은 미팅 때마다 지지해주고 있음
 - 조례도 전략이 치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조례를 만들 때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않고 조례를 통해 실제 사업을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산과 광주가 예산과 실제 사업이 움직이는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가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봄



⑩ 지리산씨협동조합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8(금) 10:00~12:00, 지리산씨협동조합
- 참석자
 - (거점주체)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대표, 고은주 담당자, 황빛나라라 담당자, 임지선 담당자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
 - (진흥원)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관련 논의
 - (협력 관련) 학교 교육, 평생교육학습 도시와의 연계성에 대해 협의·고민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논의 중이며, 사람(군민)중심으로 관계 형성하여 의견을 모으려고 계획 중임. 활동하는 사람과 돌아보는 사람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더불어, 기술, 미디어 연결, 디지털 키트, 시범적 협업을 위한 디지털 협력망도 구상 중임
 - (지역자원 조사 관련) 현재 시스템, 시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하고 협업하고 새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음
 - 대상·프로그램·시설에 대한 특성에 대한 파악(지역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봄. 역할·시스템·사업활동 연계가 될 수 있는 연차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함
 - (지역 현황) 현재 재난에 대한 ‘스트레스, 트라우마’라는 이슈와 분위기가 형성돼 있음
 - 재난, 코로나에 대한 지역주민의 마음을 참여 예술가가 현장에 직접 가서 기록하는 방식도 좋을 듯함.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강사가 아닌 연구자·기록자로 올 한해 활용할 수 있을 것임(기록의 문화예술화)
 - 아카이빙, 기록 자원, 과정자체를 일반 시민과 함께 여러가지 방법으로(콘서트, 공연, 전시회 등) 체계를 잡고 공유하면 좋겠음(예시. ‘지역사회회복과 문화예술교육’사례의 워크숍 주제 등)
 -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 지속가능성의 담보는 관의 자원이 절대적이라고 봄. 이것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어떻게 잘 작동하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각 지대, 빈 자원,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모델을 만들고자 함

- (조례제정 준비)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과의 협력이 중요함
→ 사각지대에 대한 연결망을 구축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이나 사회복지부문도 협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임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목표지점) 치유와 회복을 넘어 지역 회복력을 키우고, 삶의 격을 높이는 구례형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자 함
→ 기초 단위의 사업은 연결(플랫폼, 허브)인 동시에 어느정도 혁신적인 모델을 실험(실천적인 것)하는 것이 가능함. 중간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게 실험하고,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면 좋겠음
 - (지역가치-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문화예술교육 주체들(문화지표, 주체, 예술가, 활동가, 강사 등 네트워크)과 만나서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자 함
→ 사회회복프로젝트 등 이슈를 예술인이 이미지·글로서 지역신문과 웹진을 통해 알리는 것 중요(이슈화)
 - (지역 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킹 및 협업 촉진) 현재 단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매개 조직들 네트워킹, 소통을 고민하는 단계임



⑪ 전주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8.(금) 14:00~16:00, 팔복예술공장
- 참석자
 - (거점주체) 팔복예술공장 나유미 팀장, 정희경, 전주시 오원엽 주무관
 - (전문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운 교수
 - (진흥원) 정혜우 대리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관련 논의
 - (하반기 사업(컬로키움) 관련) 10월 중순부터 30개 기관·단체 참여 컬로키움을 운영하여 지역 내 요구를 듣고 목표·전략 등을 구체화시킬 예정. 패널은 타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구성
 - 컬로키움을 위해 30개 기관을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광역센터의 주요 파트너들임.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가 중요함. 광역센터와의 차별점이 필요하며,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함
 - (협의체 구성 관련) 컬로키움을 기점으로 워킹그룹 등을 형성하여 진행할 예정임이며, 기초 단위의 협의체를 제도화해서 구성해야 할지 고민 중임
→ 네트워크의 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모아서 연대감을 공유하는 것임. 정서적 연대가 형성되어야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음. 더불어, 지자체·재단·교육청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실무 협의체'를 형성하여 소규모의 정책 단위로서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해 고민한다면, 다른 기초거점과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임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광역센터와의 차별지점 관련) 광역센터에서는 큰 주제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기초 단위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직접 운영해 온 자원(지역 예술인 관련 데이터 등)을 통해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술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 기초센터의 특징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있을 듯함. 예술가들이 협력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범 기획이 가능할 것임. 현장 문화예술교육자의 창작력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곰터 사업과의 연계·구분지점) 꿈꾸는예술터 사업 예산은 공간조성 비용으로만 활용했고, 운영비용은 시에서 지출함. 전주문화재단 출연금 중 팔복예술공장 운영비가 있으며, 기초거점사업과 관련 예산은 팔복예술공장과 전주 전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확장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함
→ 팔복예술공장의 강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공간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생산되는 곳이라는 점에 있음.
상주작가들과 끊임없이 기획하고 개발하고 시범해본 후, 그 생산물을 팔복예술공장을 벗어난 다른 곳에 전파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것임.
이 부분은 광역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임
- (조직 운영 관련) 본 사업의 주체인 전주문화재단의 조직(팔복예술공장 예술놀이팀)이 와해된 상태. 실무담당자는 본 사업을 인수받은 지 2주 정도이고, 사업목표의 추상성, 전략의 부재가 문제라고 봄. 더불어, 현재 팔복예술공장이 전주문화재단 소속인데 재단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래서 현재 전주문화재단을 팔복예술공장이 있는 공간으로 옮길 예정이며, 기초거점이 확실히 다져지면 기초센터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
→ 같은 공간에서 운영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생기겠으나, 작가와 시민이 만나는 공간이 행정지원 조직과 같이 붙어있다 보면 일부 기능이 경직될 수 있음. 더불어, 기초센터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생산력이 있는 팔복예술공장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⑫ 복합문화지구 누에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9. 18(금) 15:00~17:00,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 참석자
 - (거점주체) 복합문화지구 누에 김진아 팀장, 최지연 담당자, 구이슬 담당자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
 - (진흥원)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계획 실행 관련 논의
 - (협의체 운영) 3단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거점 복합문화지구 누에-문화공동체 중간조직-마을단위 작은 거점을 구성하고자 함
→ 중간조직의 의미가 모호함. 설명을 들어보면 완주 생태계 네트워크 워킹그룹 성격이 강함. 마을 단위는 행정상 권역으로 하면 4개 권역인데, 이 곳을 지역-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4개의 Lab)으로 구성하면 좋겠음(랩을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협의회) 지역문화공동체, 공공기관, 협력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 마을 공동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마을 중심의 플랫폼, 문화예술생태계 만들기)
→ 지역공동체 기반 지역 문화예술 연계, 지역민들에게 예술경험을 제공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음
 -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고민) 4개 권역 특성 파악하여 권역 별로 네이밍하고, 자연생태 공동체와 문화예술이라는 두 개념이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함
→ 용어에 대한 명확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성 반영 필요 → 지역 예술가 및 공동체 등 최대한 지역자원을 찾기/권역의 주제를 가지고 이슈화하기/ 좋은 시범 프로그램 하나를 돌려 사례 공유하기
 - (예술적 자원과 협업의 구조)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지역주민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고, 예술가 그룹-기존 주민조직을 결합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 모델을 만들 예정임
→ 공동워크숍, 지역예술가들의 '네트워킹 데이'등을 만들어 어떻게 지역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하면 좋겠음. 더불어, 지역의 인문학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함(참여자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음)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논의

- (민관협력 모델의 틀) 기존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사각지대에 대해서 공공부분에서 민관협력 모델로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방향성 수립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면 좋겠음



2) 2차 컨설팅(하반기)

① 춘천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10. 27.(화) 15:00~19:00,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김현정 팀장, 강정지 대리, 김현지, 안재은, 이유리
 - (전문가) 전 수원평생학습관 백현주 기획실장
 - (진흥원)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공유
 - (사업 키워드) 올해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자면 1) 학교 안 창의예술교육을 학교 밖으로 꺼내서 커뮤니티 속으로 넣기 2) 배움터를 조성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끌어내는 것 3) 협의체는 다양한 조직을 발굴(하나는 인터뷰 방식으로 점조직 연대, 하나는 배움터 형식으로 조직, 사업별 협의체를 모아서 합치기)임. 춘천은 이를 통해 실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올해는 특히 마을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시민성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분야에 있는 기초협의체는 있는데 교육전환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내 실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매개인력 역량강화 워크숍) 기초센터사업에 참여하기 전부터 매개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해옴. 예술인 강사를 학교 안에 잡아두지 않고 활동 영역을 밖으로 이끌어 내고자 함
 - 다각적으로 마을 활동가-예술가-의제를 낸 그룹이 다같이 의논해서 함유하고 있는 문화예술로서 의미를 찾고 지역의제들이 문화적 작업, 하나의 통합적 활동을 기획하고자 함
 - 또한, 마을단위에서 대안교육, 공동육아 커뮤니티-작은 도서관 등 학교 안에서 예술강사에 참여하던 인력들이 학교 밖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시간과 일자, 횟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약 없이 무형식의 교육을 추구하고자 함

- 사업 추진관련 고민지점 공유

- (마을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시민력-문화력이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로서, 일종의 작은 협의체로서 운영하고자 함. 지역 의제 중에서 탈락된 의제들을 살려서, 여기에 문화적인 요소를 같이 작동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러한 진행방식의 효과나 성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임
→ 해법으로 작동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발굴되지 못한 의제를 오히려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 문제를 찾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 있음. 앞단의 경험을 통해서 의제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중간조직과의 협력) 춘천 내 마을자치위원회, 도시재생센터 등 다양한 중간조직들이 존재함. ‘공급 과잉’일 수도 있는데, 춘천문화재단이 이러한 관계 속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임
→ 중간조직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학적으로 함께 지향하는 곳으로 운영해야 함.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의욕적이고 모두 긍정적이고 좋지만, 어느 면에서 자기들이 주도하게 될 때 본격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갈등은 생기게 됨. 하지만 그 갈등을 두려워 말고 그 갈등을 선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하고 합의할 것과 합의가 어려운 것 등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해야 함. 갈등은 한편으로는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임
- (행정구조 및 인력) 문화예술교육이 문화도시 안에서 작동되는 구조는 행정적으로는 읽히고 있지만 기초거점 사업의 경우 3년을 보고 있고, 문화도시는 5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이 종료되어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춘천의 경우, 인력이 문화예술교육만 담당할 수 있는 것과 행정의 편성 등 좋은 환경과 조건을 쟁취했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함



② 복합문화지구 누에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10. 29.(목) 16:00~19:00, 복합문화지구 누에
- 참석자
 - (거점주체) 복합문화지구 누에 김진아 팀장, 최지연 담당자, 구이슬, 소빛나, 윤선영, 이영내(고산마을), 김지영(이서마을), 손안나(삼례마을)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
 - (진흥원)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지역 거점별 사업 추진상황 및 고민지점 공유(고산마을)
 - (추진 상황) 고산마을은 처음에 교육 공동체로부터 활동을 시작했음. 10년간 지역 학교, 지역 교육 관련 기관 조직들 내에서 현재의 순가락 공동체들이 이루어짐
 - 이 사업을 통해 복합문화지구 누에와 문화교육예술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고산마을도 유아, 초중고 학생들이 뭔가 함께 배움을 나눈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컨셉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 이 공간에서 세대간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좋았음. 대상의 경계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함
 - (고민지점) 기존 ‘한 달 살기’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산마을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예술가들이 많았음. 한 달 동안 잠깐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그들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음
 - 상주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함. 관심있는 사람은 많은데 누군가 불박이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였음. ‘교육’이라는 성격이 강하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또 다른 강박처럼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었음. ‘문화예술’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어쨌든 부가되는 활동에 대한 것이 강박적임. 누군가 지속적으로 봐주고 컨설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전문가 의견)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수립·운영하면 안되고, 사업을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음. 너무 완벽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두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음.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뭘 해볼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예술 놀이를 통해

육아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린이 놀이로 풀 수도 있음. 그런 것을 논의해보는 자리가 필요함. 올해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음

→ 모든 상황들에서 기록 잘하는 것도 중요함. 고산마을의 양봉, 꿀 등은 굉장히 많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음. 어린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참여하다보면 양봉-아이들 연대가 생기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림
→ 교육이 가능한 예술가들은 마을장인, 생활예술가라고 불리움. 이들은 예술적 경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 과정까지 해주며 문화예술교육을 잘 아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

- 지역 거점별 사업 추진상황 및 고민지점 공유(이서마을)
 - (추진 상황) 이서마을은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함. 현재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산책 정도만 하고 있어 이를 확장해서 지역을 알고 지역 내 정체성을 쌓아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예술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진 각자의 재주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예술성이라고도 생각이 됨. 우리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 다음주에는 반찬가게를 가는 산책을 함. 그냥 산책으로는 여성이 안 모일 것 같아서 먹는 것을 공유하고자 함. 가는 길에 공원이 있음. 그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넣을 예정. 모이는 것은 잘 하고 있고, 내후년 계획이 나오고 있음. 계획서가 잘 나오고 있음. 모일 때마다 생산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 (고민지점) 처음에 산책공원 안에서 만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찾으려고 했음. 그런 상황이 어려워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임
 - 이서혁신도시의 문제점은 다 새 건물이라는 점임. 그 안에 오랫동안 가게 운영을 한 사람이 없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만 많음. 이런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 (전문가 의견) 산책을 제대로 한번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음. 기획할 때 4명과 이야기하면서 문화산책놀이, 놀면서 문화산책하면서 지역도 만들어가는 것, 함께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음. 하나라도 제대로 올해 시작을 해보고, 만나서 같이 산책을 기획하는 과정에 참여할지 알아보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동네 ‘문화산책기획단’으로 염두를 두는 것이 좋겠음. 규모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계기만 만들면 됨

- 이서마을도 가볼만한 포인트를 잘 엮어서 골목답사 형식으로 하면서 결핍공간에서 체험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음. 더불어, 지역 내 새 건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원을 활용해서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함.
- 이서혁신도시 색깔을 만드는 그룹들, 새로움을 인정하면 되는 것임. 이미 기본적으로 과거가 없어졌는데 굳이 과거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음. 누군가 사람을 만나도 됨. 그 사람과 깊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됨. 이렇게 1년이 되면 세팅이 될 것임.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세우면 힘들 것임
- 예술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음. 그래야 기획의 세계가 열리는 것임. 처음부터 지역 주변에 새로 젊은 전업주부, 젊은 여성들이 뭔가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음. 문화예술교육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임. 본인은 어떤 자리를 막연하게만 가지만, 막상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대화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안에 있는 것이 끄집어내어질 것이고, 그것이 문화예술교육임

• 지역 거점별 사업 추진상황 및 고민지점 공유(삼례마을)

- (추진 상황) 삼례 주민들은 동학농민운동 등과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의심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삼례 분위기 자체가 역사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임. 이런 삼례 지역의 분위기가 회복이 되려면, 상처들이 일단 밖으로 나와서 치료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삼례에 신천습지라고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하천습지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습지가 있음. 우리가 다시 신천습지를 보존을 하고, 이 신천습지를 활용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의 장을 신천습지가 그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음
- (향후 추진방향) 만경강 생태지도를 가지고 돛자리, 만경강 도보여행 키트 등을 만들 예정임. 문화예술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굿즈가 되고 그 굿즈들이 판매가 되면서 지역에 뭔가 경제적으로도 자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램. 이것을 이루기 위해 계절형 축제 이벤트를 생각 중임
 - 또한, 마을에 국제 규모의 천연 잔디 구장이 있는데, 딸기 체험을 하고나서 운동장에서 마음껏 놀기도 하고, 다리 밑에 체험부스를 세워놓고, 갈대, 억새로 여치집을 만든다던지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 하루 코스로 충분히 축제가 될 듯함.

- 마을 주민들과 함께 스크린을 걸어놓고 밤에 영화도 보고, 여름에는 만경강 야경코스로 하면 좋을듯함. 야행 이후에는 저녁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분들이 색소폰을 분다던지, 이러한 작은 주민음악회도 열면 어떨까 싶음. 또한 마을에 있는 연극인들과 연결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극도 하면 좋겠음
- (전문가 의견) 첫 번째는 참여하는 분들이 주체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임.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그분들에게 영향이 가야함. 두 번째는 예술적 경험이 필요함 나비를 그렸다고 하면, 세밀화도 좋은데 본인의 새로운 상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함. 지식을 아는 것에 더하여, 생태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한단계 더 나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야 함
 - 관찰한 생태를 가지고 공유하는 장을 만드는 워크숍을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보완할 때 예술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음.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연결시켜주고,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례비 지급 등이 가능할 것임
- 생태를 원초적으로 경험하고, 공감각으로 예술적으로 상상하는 것만 넣는다면 꾸꾸던 것을 할 수 있음. 사진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림 등, 한 사람을 위한 전시를 할 수도 있음. 그사람의 생애를 엮어서 생애 전시회도 가능함. 아이템이 무궁무진함. 올해는 구상 및 체계를 잡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함
-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려움. 지금은 마음이 열린 상태이니, 활동비를 지원해도 바로 진행이 가능할 듯함. 사례들은 무궁무진함. 사진작가와 해녀가 만났을 때,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본인이 해녀가 됐음. 그 후에 장면들이 나옴. 충분히 거점이 되어있는 상황임



③ 성북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11. 4.(수) 10:00~12:00, 혜화문아래 카페
- 참석자
 - (거점주체) 성북문화재단 박현진 팀장, 김현주 대리, 양혁진 코디네이터, 마을온예술 김명진 코디네이터, 김남이, 민들레 김경옥 대표
 - (전문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라운드테이블 운영
 - (목적) 지역의 소리를 듣는 것, 문화예술교육과 기초거점에 대한 생각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해가는 과정 등을 라운드테이블 운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논의내용) △성북구만의 특징은 작은 사업과 활동이 많은 것 △문화예술교육에 교육적 시선과 맥락을 연결하고,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고 교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 △거대한 새로운 프로그램보다 기존의 활동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 △교육의 본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함
→ 5회차까지 진행했으나, 다양한 의견 중 성북구만의 차별성·의제를 찾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시범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함. ‘코로나시대 주민의 삶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키워드) △(수혜자편) 신뢰 기반으로 부모의 인식변화가 필요 △(복지편)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 △(활동가편) 생애주기에 맞춘 예술교육이 필요 △(기관편) 초 단위와의 연계한 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함
 - (진행방식) 성북을 선거구에 따라 갑·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함(두 지역이 매우 다른 상황에 있음) 장이 지역에서는 학부모이자 장곡초 학부모위원장, 마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진행함. 학부모가 논의하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뛰어놀게 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근거리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 정릉 지역에서는 ‘예술로 돌봄’에 대한 의미를 예술가와 함께 이야기할 예정임

- ‘돌봄’이라는 것이 현재 매우 뜨거운 화두이고 지역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권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봄을 해결하고 싶다, △마을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오고갔음
→ 프로그램이 꼭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을 듯함(예: 일산 도토리 도서관). 역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기초거점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라운드테이블의 주된 목적으로 하면 좋겠음

• 아카이빙 사업

- (목적) 수혜자로서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과 마을의 상황을 읽는 목적임. 다양한 목소리가 합쳐져서 큰 라운드테이블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 (진행방식) 라운드테이블에 대한 녹취·기록촬영 완료함. 참여워크숍·포럼 등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며, 뉴스레터 카드뉴스로도 배포할 예정임. 성북문화재단 뉴스레터 통로로 유통할 계획이며, 공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 형식의 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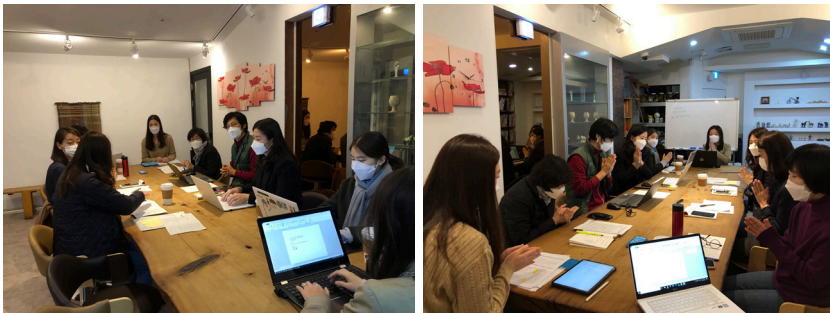
- (현안) 기계적으로 조사하고 끝난 상태로 분석 전임. 조사 목적이 모호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현황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각지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임. 현황조사 다음 단계에서 지역 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서, 현황조사에 대해 분석할 내용을 찾았으면 좋겠음

• 기초거점 사업의 의미 및 향후방향 논의

- 기초 단위에서 지역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지만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에서 일하지 못함. 지역에서 기초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내 입으로 너의 입’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고 동의를 만드는 과정
→ 기초거점 사업은 주체가 신뢰를 얻기 위해 과정을 통해 지역의 동의를 구하고 지역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갈등 조정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
→ 요즘은 소통을 청자와 화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설득’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성북은 설득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아보여 좋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면 좋을 것. 다만 코로나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가 안타까움

- 기초거점 사업의 향후 방향
 - 정책 공표와 종합계획 문서화 등 정책 흐름으로 보면 치고 나가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함
 - 기초거점 사업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필요함
 - 기초거점은 물리적인 공간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움.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할 수 있음. 성북 지역만의 언어로 우수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봄



④ 성남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11. 23.(월) 14:00~16:00,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성남문화재단 강승호 센터장, 조인국 팀장, 박은진 과장, 김환실 대리, 신영주, 구나애, 박지영, 김정민, 조일현
 - (전문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
 - (진홍원)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 진행현황 공유
 -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산성동 지역의 네트워크 단위를 중심으로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민공론화 프로그램 등 진행 중임. 산성동 지역 내에는 재개발 이슈 등이 쟁점이라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었음. 또한,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감도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음
 - (전문인력 사업 관련) 전임강사 10인이 12월 중순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 초반에 기획했던 것들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예술가 네트워크 등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음. 다만, 지역예술가들 간의 이해가 다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예술가와의 연결지점을 어떤 범위까지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협의를 이어나갈지가 고민임
-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초거점 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 문화복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일부는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학습원 과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논의의 구조를 확대해가자는 의견을 나눔. 더불어, 추후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예술가들과 함께 선뜻 무언가를 해보자는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해보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는 단계임

• 사업 개념 및 주요 방향 공유

- (꿈꾸는 예술터 사업과의 차별) 꿈터 사업은 예술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목표에 따라 연차별로 계획을 만드는 사업임. 2020년 건물 개관을 목표로, 어떤 모습으로, 공간 내에 어떠한 사람들을 채워 나갈지, 어떻게 공간을 운영해 나갈지, 연계지점은 무엇으로 돌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처럼 꿈터 사업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초거점 사업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임. 성남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의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식을 준비하는 작업임. 기초거점 주체의 역할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지향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협업을 이뤄나가는 것임

- (기초거점 사업의 주안점) 계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기록하고 앞으로도 어떤 단계를 통해 전체적인 과정을 완성해나갈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초거점의 역할과 범위, 개념에 대해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함(ex: 재개발 이슈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와 갈등구조 속에서 현장으로 가서 갈등을 마주하고, 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며 스스로 경험해야 함)

→ 사업 자체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만드는 과정, 협업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주안점을 뒀다 함. 올해 진행해 온 흐름 안에서 어떠한 것을 진행했고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2021년 이후 기초거점으로서 어떤 일을 진행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함

- (비대면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본래 문화예술교육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생기게 됨.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소규모 그룹 활동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봄. 소위 ‘소규모 근거리 예술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예술교육을 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임

→ 가족 단위 예술교육 행사 등 시범사업을 통해, 성남지역 내 있는 주민들이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 오면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다는 등 입소문을 타도록 해야함(ex: 소규모 근거리 방석극장, 1인극, 그림자극 등). 더불어,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할 것임

→ 이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형태가 무엇일지, 성남센터 공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듯함(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 문화예술교육의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문제임)



3) 통합 컨설팅

① A권역(부산·하동·포항·구례)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11. 9.(월) 10:00~17:00, 부산 갯강이생활문화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김평수, 정승민, 이일록, 최시내, 최희웅, 차지혁, 최형석, 심종석, 조영미, 포항문화재단 이주행, 홍채연, 이해지, 지리산씨협동조합 고은주, 황빛나라, 임현수, 지리산학교 이창수, 정연준
 - (전문가) 비커밍컬렉티브 김정이 대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
 - (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내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협력적 거버넌스(원향미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연구원)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방향성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소 협소하고 평이함. 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분리한 내용,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언급한 정도임. 따라서,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조례에 지역편차에 대한 해소, 학교교육·사회교육의 공존과 상호 소통, 단순 특수시설이 아닌 지역 전반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 등 지역만의 기본 원칙과 목표에 대한 지역적 상상력이 다양하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사례 공유(금정문화재단)
 - (학교 문화예술교육) 금정구에서 과거 세계시민교육 수도를 표방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했는데, 학교 및 국립무형문화유산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예술강사들이 무형문화를 배워서 문화다양성 주간에 학교로 가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
 -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화예술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경험하는 기회 제공함
 - (한영컨퍼런스 창의적 나이들) 부산은 고령화가 특히 심했는데, 이에 대해 문화적 대응을 한 사례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영국문화원과 컨퍼런스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함

→ 치매안심센터,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등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타분야 주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였음

- (인생기록단) 지역의 초등학교가 문화예술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되면서 재단에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시작하게 된 사업
 - 지역 내 외국인 등 소수자를 만났을 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경험으로서 타인 삶을 기록해보자는 아이디어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드로잉·사진·글쓰기 수업을 진행했고, 다양한 전시물을 기록함
- (도란도란 마을축제) 도시재생 사업을 축제 형식으로 진행한 사례로, 이주민과의 갈등·아이와 어른간의 소통문제 등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나누고, 전 세대가 함께 예술적 경험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점을 함께 논의하였음
- (금정문화오지라퍼) 동네별로 예술가 네트워크를 진행했는데, 예술가들 중 같은 이슈를 가진 이들을 모아서 ‘오지라퍼’라고 부르고, 지역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민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모음
 - 이들과 함께 지역연계활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사업의 필요성과 서로에게 도움이 될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가 참여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커뮤니티 간담회) 금정구에서 중기계획을 만들면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질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함
 - 세대별, 공간별로 나눠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주요 핵심질문(문화란 무엇인가, 금정에서 문화 중 무엇이 인상적인가?, 당신의 문화생활을 빛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을 설정해서 의견을 수렴함
 -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보니 지역 내 필요에 의해 우연히 시작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개인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므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계를 넘나들고, 함께 공통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서로 배움과 함께 성장’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봄.
 - 더불어, 협력적 거버넌스는 결국 ‘제3의 영역’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면서, ‘문제해결형 거버넌스’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거점의 역할은 상상력을 갖고 연결해주는 역할로, ‘보이지 않는 손’이자 ‘연결자’로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봄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지역이슈, 자원발굴 및 현황조사 관련

- 통계 기반 사업설계 필요성
 -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 자원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반복되는 경향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구하는 문화기획이 얼마나 이로운지를 정책 입안자에게 설득하려면, 그 무기는 ‘데이터’밖에 없음
 -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행위임.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문제의 원인과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음. 또한, 데이터는 설문지를 구성하고 어떤 대상으로 조사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후의 상상과 해석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Policy LAB과 Big data
 - 정책 수립을 할 때의 프로세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역전문가를 부르고 의견기반(Opinion Policy)으로 만드는 정책이 대부분임. 그러나, 개개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은 한정적이고 위험성이 많음. 유럽에서는 Policy Lab을 통해 정책을 실험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좀 더 안정화하라는 의미임
 - 기존 콘텐츠와의 변화 등이 설계에 따라서 내부 실행 프로그램들을 표식화해야 함. 각각 변화를 시각적 효과들로 만들어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각화된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일 것임 → 결국은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수집 단계: 점-선-면
 - 데이터 수집은 ‘점’의 단계로 점과 점을 연결하면 정보가, 정보가 연결되면 큰 면이, 면이 모여 공간을 만들 수 있음. 공간이 형성되면 프로젝트에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물질성이 만들어짐.
 - 올해는 데이터를 쌓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지혜와 지식,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야 함
- 기초거점 사업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방향
 - 기초거점과 관련해서 기초 단위 연구이기 때문에 별게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음. 중앙에서는 광범위하게 당위적인 내용만 해도 되지만, 기초는 각각의 데이터를 포착해야하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연구방법으로 접근하면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움

- 웬만한 자료는 이미 행정단위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 단위에서 재해석을 해서 재조사할 부분을 찾아야 함. 또한, 연구 따로 실행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함
- 이 때,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관이나 시스템으로서 규정 등으로, 해당 데이터가 누적될 때마다 관리하는 주체, 이용범주 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놓아야 함. 끝으로, 데이터는 처음에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가와 당분간 협력할 필요도 있음

○ 거점주체별 진행상황 공유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추진방향) 올해는 기초거점의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구를 ‘알아가는’단계로 운영하고자 함. 복구에서 어떤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태계 연구, 커뮤니티를 만나는 일을 하고 있음. 연구원 4명과 진행함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복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부산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함. 1회차 라운드테이블에서의 주요 내용은 복구 문화예술교육의 △아젠다 발굴 △역할과 기능 △거점의 과업 도출 △실행전략 이었고, 2회차에서는 각 기관 담당자들을 모아 기관에서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에 대한 제안을 받았음. 3회차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아젠다로 이야기 나눌 예정임
 - (시범 프로그램·역량강화 프로그램)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는 공간자원은 있지만, 실행 기획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열악함. 그 부분들을 매개시켜주고, 복지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기초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내고, 기초에서 발굴되는 데이터와 사례조사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함. 문화예술에 관해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하는 무형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해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을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임

- 지리산씨협동조합

- (추진방향) 문화예술 분야, 지역사회, 기관, 학교 네가지 분야로 나누어, 그 안에서 구례에 상주하는 사람과 외지인의 비율을 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 사업이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양적인 부분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정성적인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누구든 간에 지표,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들을 구체화하는 시기이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발전해나갈 예정이며, 그동안 만나왔던 분들 다시 만나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보고. 객관화해서 얘기할 시기라고 생각함
- (주안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 기능에 관한 개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여지지가 않아서, 이들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또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과 예술가들을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 중. 지자체의 목표지점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되,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민간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게끔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
-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만들어 가되, 활동하는 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하고자 함. 현재 지자체 담당자들이 지리산씨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맞춰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안·분석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어떤 상을 그려야할지 논의하는 상황임

- 포항문화재단

- 지자체/지역 기관에서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황임. 전반적으로 공간이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측면도 있음. 재단이 프로그램을 주도해나가는 것보다 민간과 같이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목적임
- 지역의 공간·자원들을 연결하자는 생각으로 다양한 기관을 만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음. 문화예술과 하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평생학습·자치행정 등과도 연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우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만으로 첫 단추는 이루었음
- 문화예술교육 관련 가치 확산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 시간을 갖고 여러번 만나고 성과를 가지고 만나야 하는 물리적인 부분이 고민임. 또한, 학교

안에서 결정권자에 대해 강의식 토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강사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는 상황을 유도하고자 함

-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 현재까지 지역 내 28곳을 방문하여 지역 조사를 진행했음. 단체, 기관 관계자는 거의 없고, 오히려 지역 내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예술가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임. 하동 지역의 목적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문화예술교육 관련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섬진강 권역 안에서 단체, 사람들과 함께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임.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민간단체를 주도하는 방향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이슈를 가지고 예술제를 여는 것이 큰 목표 지점임. 그간 지리산학교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고 10년 동안 사람들을 모았고, 4천명 이상이 오고 가면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음
- 지역예술가들에게 항상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며,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또 다른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적, 철학적인 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임.
- 끝없는 고민의 과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 지역 관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함. 핵심은 선생이면서 제자, 제자이면서 주민, 주민이면서 선생이라고 봄. 이것의 핵심은 같이 어울려서 길을 찾는 것이라고 봄

○ 이슈별 전체토론

- FGI 조사 결과 분석방안

- 지역주민 FGI 진행, 이슈별 정리는 해두었는데, 사람들마다 많이 나온 이야기가 있고 덜 나온 이야기가 있음. 이를 비중을 따져서 정리해야하는데, 무엇을 참고로 하면 좋을지?
-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음. 해당 시스템에 내용에 넣으면, 그 안에서의 것들을 양적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방안임. 또는, 각 연구자들이 수고를 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한 예로 ‘반복적인 패턴의 이야기들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 항목들에 네이밍을 붙이는 작업’임. 이것이 연구자들이 하는 창작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이야기를 기반으로 가능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그 대안과 연결되는

문제들을 분할하여 과제, 진단 부분을 정리해내면 좋을 듯함

→ 빈도 분석과 비슷한 부분, 많이 나왔던 문장을 위주로 분류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

- 지역 내 신뢰도 확보 관련

- 모든 사업들이 공모 중심이고 답다운 방식이라서, 갑을관계가 심하게 얽혀있는 측면이 있음. 재단 자체에 대한 시선은 좋지만, 지역 내 권력구도를 깨는 것이 많이 힘든 측면이 있음. 더불어, 지역 예술가들의 사업에 대해 고착화된 시각과 편견이 일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우선 모이는 작업이 중요할 듯함

-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권력 구도를 깰 필요가 없다고 봄. 오히려 그들의 우선권 밖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것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명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고 봄. 지역 내 예술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무조건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봄. 처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무엇을 하던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스스로 해나가는 사업이라는 지점 때문이었음. 가치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체로서 정하고 그것에 맞춰 밀고 나갈 수 있다면, 진행하면서 험난한 과정들을 깨나갈 수 있다고 봄(목적이 명확하면 그것만 들고가면 됨)

-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재는 그 이해를 위해 소통하는 단계임. 부산은 인구대비 면적이 크다 보니, 우리도 알지 못했던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들이 보이는 측면이 있음. 제대로 된 플랫폼 역할을 하려면 이용할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방향을 잡고, 다양하게 만나보고 있음

- 사업 자체가 개별단체의 역할과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센터라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봄. 개별 단체로서의 입장은 지리산학교의 말이 맞지만, 현재로서의 목표 지점은 ‘지자체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연결·통합할 수 있느냐’를 문제로 갖고 있으므로 그 간격 조정이 필요

-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문화예술교육이 본질적 지향이 결국에는 사람의 과정, 시간을 통해 어떤 변화와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사업이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함. 그와 동시에 정성적인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실제로

관계 맺으면서 구체화하고, 보여줘야 할 것임

- 공공과의 관계 관련

- 공공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 우선 공공과의 협의를 최소화하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거점 형식의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몇 년 동안 진행하면 지자체 쪽에서 알아서 찾아올 줄 알았으나, 큰 관심이 없음. 구례라는 지역적 특성상, 군수 중심 권력구도가 잘 바뀌지 않고, 작은 지역의 특성상 한 다리 걸치면 다 알게 된다는 점이 강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분석하면서 직접 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며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을 형성, 계속적으로 일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진행해왔음. 이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고, 지자체 관계자와의 토론 및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고, 그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잘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하는 생각으로 지자체를 만나고 있고, 문화예술 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자치행정 등과 연결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 논의해나가고 있음

- 기타 담당자 의견 공유

- 원래는 아카이브를 하는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생각보다 행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다보니 아카이빙 쪽을 손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데이터 활용 관련방안을 좀 더 고민하여 추후 데이터 활용을 통해 아카이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함

-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하고 있는지, 무슨 활동을 도드라지지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또한, 지역 내 교육 수준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데, 왜 그런지,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 많이 데이터화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함

- 지역에 오래된 권력구도 안에서 경쟁의 눈초리가 보이는 등의 아쉬운 점이 일부 있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100일 정도 동안 28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제야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것 같고, 이러한 공유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 만족스러움.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전문가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 귀촌하기 전 IT활동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음. 전공이 이과 쪽이라서 문화예술과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 분야에 내가 기여를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함



② B권역(강릉·광주·전주·청주·춘천)

□ 개요

- 일시 · 장소: 2020. 11. 12.(목) 13:00~17:00, 곡성 목화마을 한마음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강릉문화재단 심원, 안윤진, 정민진, 서지원, 북구문화의집 김희승, 전주문화재단 정희경,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심박음, 김현목, 춘천문화재단 강정지, 권현아
 - (전문가) 비커밍컬렉티브 김정이 대표, 전 수원평생학습관 백현주 기획실장
 - (진흥원) 이현민 주임

□ 주요 내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지역이슈, 자원발굴 및 현황조사 관련 (김정이)

- 통계 기반 사업설계 필요성
 -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 자원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반복되는 경향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구하는 문화기획이 얼마나 이로운지를 정책 입안자에게 설득하려면, 그 무기는 데이터임
 -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행위임.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문제의 원인과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음. 또한, 데이터는 설문지를 구성하고 어떤 대상으로 조사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후의 상상과 해석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Policy LAB과 Big data
 - 정책 수립을 할 때의 프로세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역전문가를 부르고 의견기반(Opinion Policy)으로 만드는 정책이 대부분임. 그러나, 개개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은 한정적이고 위험성이 많음. 유럽에서는 Policy Lab을 통해 정책을 실험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좀 더 안정화하라는 의미임
 - 기초거점 사업도 일종의 정책 실험으로 기존 콘텐츠와의 변화 등이 설계에 따라서 내부 실행 프로그램들을 표식화해야 함. 각각 변화를 시각적 효과들로 만들어 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각화된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일 것임. 결국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데이터 수집의 단계 : 점-선-면

- 데이터 수집은 ‘점’의 단계임. 점과 점을 연결하면 정보가 되고, 정보가 연결되면 큰 면으로, 면이 모이면 공간적인 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음. 공간이 형성되면 프로젝트에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물질성이 만들어짐
 - 올해는 데이터를 쌓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지혜와 지식,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야 함. 더불어, 데이터 속 또 다른 이야기를 읽어내면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는 구조가 가능함

• 기초거점 사업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방향

- 기초거점 사업처럼 큰 규제 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서는 각 기초거점의 상황에 따라 Policy Lab과 같은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다고 봄.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데이터’가 있다면 추후 가장 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통으로 연구조사를 맡기지 말고, 해당 방향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조언자를 두어야 함. 또한, 데이터를 처음에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당분간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백현주 실장)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개념과 방향, 범주 설정방법
 - (운영 철학의 형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하여, 운영의 철학을 세우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모여서 운영 철학을 형성해야 함
 -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때는 수요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싸우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수요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
 - (문화예술교육 개념 수립방향)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함. → 의사결정자들, 지역의 다양한 계층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됨. 그때 중요한 것은 교육은 결국 학습자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임. 교육자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만족하는지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함. 함께하는 시민그룹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 봐야함. 관련하여 지역 내 인력·주체들이 준비가 어떤
정도나 되어 있고 누구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인력양성

- (중간지원조직의 활용) 지역 내 다양한 기존 지원조직에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며, 그들을 일종의 문화예술교육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재교육·인력양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임

→ 지역 인문학공동체, 주민자치위원, 오피니언 리더 급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향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거점별 진행상황 공유

• 춘천문화재단

- 춘천은 마을단위로 가는 노선을 선택하고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존 문화예술교육이 시민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활동
영역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음. 체험을 경험으로 바꾸는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이 활동으로 전환되는 모델을 발견함
- 마을자치지역센터-마을자치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 작업 진행중.
주민자치회를 만나기 시작했고, 마을자치센터와 상생할 수 있는 공존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이 마을단위에서 성토되고 그것이 문화력과
시민력을 같이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중임

• 강릉문화재단

- 그간 지원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있지 못했음.
기초거점은 재단 하나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문화도시지원센터와 중복되는
측면이었음
- 함께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하다가 사업 타이밍을 조금 놓치기는 했으나,
거기서 얻은 것은 ‘가능성’임. 그 전에는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받아서
학교에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적 기반, 예술가 역량이 확보되면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광주문화자치회의(북구문화의집)

- 개별 사례에 집중하면서 5개 장르별 반장을 세우고 참여자를 선정, 프로그램
기획을 준비중임
- 지자체·재단·교육청과의 관계는 좋음. 앞으로의 불확실성 앞에서 현재라도
집중하는 것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올 해 마무리가
되었을 때의 결과를 밑바탕으로 하여, 내년 이슈와 연결하려고 하고 있음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충북문화재단이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데, 그들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함. 지역 내 자원은
많은데 정보교류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기초거점으로서 정보들을
같이 한군데 모아서 같이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정함. 활동가 발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숨겨져 있는 자원을
조사하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하고자 함

• 전주문화재단

- 지난 콜로키움에서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재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어 잘 마무리됨. 이후, 회의를 위해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하다보니,
재단에 대한 수많은 불신과 마주하게 되었음
- 코로나 때문에 못해왔던 회의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회의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왜 소모적인 회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라는 의견을 많이 받음
- 더불어, 거점에 관해 설명하고 기초거점 역할 중 인력 양성에 대해 기존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재교육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자원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도 함
- 구조적으로는 현재 재단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고민. 향후 거점에 대한
방향을 올해 안에 충분히 논의하여, 뿌리를 단단히 하고 싶음

○ 거점주체별 의견 공유

• 거점을 운영할 때, 좋은 인력(내부)들을 만나지만 곧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분들을 잡아놓은 방법과 힘이 있을지? 각 기관별로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인력 계약기간이 2년 동안 가능한데, 보조사업은 단년도로 예산이 나와서

사업이 끝날 때쯤 의사를 물어보고 다른 사업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2년씩 이어나가고 있음. 다만, 2년 뒤에는 불안해하고 2년마다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하고 있음

- 민관위탁은 불안정한 조직으로 거의 비정규직이 많음. 민간위탁이 좋았던 점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임. 공무원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임. 재단 자체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봄(ex: 상급자들을 계약직으로 뽑으면 됨)
- 기초거점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주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자체 인력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도·재단의 의지를 단서로 달면, 그것에 맞추어 사업이 내려오게 되어 있음. 실제로 재단 대표는 2-3년 임기이고, 그 안에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외부의 보조금 사업을 얼마나 따오는지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재단 대표를 임명하는 구조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마을단위에서 새로운 중간조직이 생기고, 그곳에서도 문화재단과 유사한 일을 하고, 협의체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협력도가 높음. 이처럼, 생각보다 주민자치와 마을활동가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결합해서 혁신 장치 모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 영역에 고민이 있음. 이미 잘하고 있는 활동가 100명을 모아서 지원하면 기존의 지원사업과 뭐가 다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또한, 마을에는 너무 다른 층위의 사람들이 있고 마을 활동가들은 경험이 많지 않고, 38명이 팀을 구성했는데 예산 수립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음. 예술가들은 어떻게 투입될지 모르는 세 주체를 만나다 보니 통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상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움. 청주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할 때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두고 있는지?
- 단순히 생각하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 올해 목표였음. 두 번째는 활동하는 점 주변에 무엇을 하는지 찾아보고 찾게 되는 사람들이 공간과 인재를 발견하여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활동의 가장 큰 목표였음. 구성원들 간 퀄리티에 차이가 있고 활동 동네마다 생각하는 방향과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나, 사업 구성을 재단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주도가 되게 함. 그래서 지원이라기 보단 주도권을 넘겨주는 작업임

→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결과물을 받았을 때 부족한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담론이나 철학이나 기본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지 않은 경향이 있음. 지원을 하는 의미가 그냥 경험으로 두고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틀이 있는지 궁금함

→ 원래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신청서를 받고나서 마음을 많이 비웠음. 11월 말 정도 되면 내년도에 의견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다같이 만나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함

- 기초거점 사업은 데이터 폭탄처럼 많은 영역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좋음. 이 사업은 후순위 작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주의 사업을 좋게 평가함. 예술적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지원사업의 시각이 아닌 분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함





[2021년] '협력'하고 연결하기

발견하기 과정에서 찾은 것들을 연결하기

: 지역별 현장방문 및 컨설팅(상/하반기)

관계자 간 의견공유를 통해 서로의 필요지점 연결하기

: 권역별 관계자 회의(광역센터)

chapter 3.
On the Ground

[2021년. '협력'하고 연결하기]

— 추진방향

□ 상반기 컨설팅

- 추진목표: 거점주체가 지역 내 주체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 (방향) 2년차 거점주체들이 당면한 이슈와 고민을 파악하여 일방적 조언이나 평가가 아닌 상호논의가 가능하도록 진행
 - (수요조사) 컨설팅 수요조사 시 희망 대상 및 분야 세분화하여 거점주체가 현재 필요로 하는 핵심 파악
- 운영방식
 - 사전 수요조사: 거점주체별 핵심컨설팅 영역과 상세 필요항목 조사
 - 전문가·관계자 섭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형 구분 및 개별·통합 운영 방식 확정, 전문가·광역센터 관계자 섭외하여 매칭
 - 현장방문: 거점주체 사업 현황 및 고민지점, 현재 이슈 등 공유, 전문가·관계자 사례와 의견 공유
- 주체별 일정 및 방향

유형	주체명	주요 키워드 및 방향	일정
방향 설정형	포항문화재단	2020년 사업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올해 방향수립을 위한 밀착/심층 논의 진행	5.24(월) 15:00
이슈 해결형	북한문화지구 누에	'교육예술가 양성사업'의 의미 및 고민지점 공유	5.18(화) 13:00
	지리산씨 협동조합	2020년 사업 연장선상에서 온라인플랫폼 개발 및 자원조사활용/아카이빙 계획 및 방향논의	5.27(목) 14:30
의견 공유형	춘천문화재단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특정분야(환경 등) 연계·자문, 실질적인 프로젝트 실행 논의	6.2(수) 17:00
	광주 문화자치회의 (북구문화의집)	로컬 거버넌스(소규모 활동조직) 형성 및 활동전반 논의	
	성북문화재단	타주체 관계자와 매칭하여 논의계기 마련	6.23(수) 09:30

□ 하반기 컨설팅

- 운영주체: 지역별 또는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 간의 협력방안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방향) 개별 컨설팅 또는 지역별 통합 운영(*워크숍 연계)으로, 유사한 고민을 가진 주체 간 협력방안 및 방향성에 대한 의견 공유,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

- (수요조사) 신규 거점주체(7개) 중 일부는 사업 지원 단계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이나 파악된 고민지점들을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 전문가와 점검 및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진행, 통합 컨설팅에서는 신규주체 및 2년차 주체, 광역센터가 함께 역할 및 사업 방향성,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 운영방식
 - 사전 수요조사: 거점주체별 개별 연락을 통해 현시점 주요 고민지점과 사업 추진방향 점검 진행, 하반기 주체별 사업 계획 및 일정 고려하여 통합 컨설팅 수요 파악
 - 전문가·관계자 섭외: 개별·통합 운영 방식 확정, 전문가·광역센터 관계자 섭외하여 매칭
 - 현장방문: 거점주체 사업 현황 및 고민지점, 현재 이슈 등 공유, 전문가·관계자 사례와 의견 공유
- 주체별 일정 및 방향

유형	주체명	주요 키워드 및 방향	일정
개별 현장방문 컨설팅 (*전문가 연계)	밀양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의 불확실 꿈꾸는예술터 사업과의 연계지점 및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성 미비 사업 전반적인 계획 보완 및 꿈터 공간을 방문하여 공간조성 진척상황 점검 	9.10(금)
	장수문화예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예술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 예술성에 대한 우려, 인력 활용/역량강화/연계 등 기초거점 사업에 대한 전반적 고민 진행현황 공유 및 연간 추진방향 논의 	9.14(화)
	중구문화재단 (광역)서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중구지역 이슈 및 기초거점 사업 방향, 결과 공유 예술강사 역량강화 연수에 관한 논의 요청 광역-기초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11.12(금)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노인 문화예술교육 이슈 문제 기타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정책동향 관련 	11.30(화)

유형	주체명	주요 키워드 및 방향	일정
통합 워크숍 (*광역 센터 및 2년차 주체 협력)	[광주전남권] 광주북구문화의집/ 교육문화공동체결/ 지리산씨협동조합 (광역)전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광주권역 이슈 및 고민, 각 주체별 사업 진행현황 공유 광역-기초 간 협력방안 논의(문화지소 등 기초 활성화사례) 	10.20(수)
	[충청권] 공주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광역)충북/충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권역 이슈 및 고민, 각 주체별 사업 진행현황 공유 광역-기초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11.1(월)
	[경상권] 포항문화재단/ 밀양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권역 이슈 및 고민, 시범프로젝트(마을기록 사업) 관련 사업방향 공유 및 네트워킹 *포항 행사(결과공유회) 참관 병행 	11.6(토)
	[전북권] 복합문화지구 누에/ 전주문화재단/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광역)전북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권역 이슈 및 고민, 각 주체별 사업 진행현황 공유 광역-기초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11.9(화)

[발견하기 과정에서 찾은 것들을 연결하기]

— 지역별 현장방문 및 컨설팅(상/하반기)

1) 상반기 컨설팅

①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5. 18.(화) 13:00~16:00,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
- 참석자
 - (거점주체) 복합문화지구 누에 김진아 팀장, 최지연 담당자, 황우찬 문화예술교육사
 - (전문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 담론을 형성하는 ‘누에 연구소’와 마을거점 리더 모임
 - (내외부에서 현황과 문제를 논의하는 ‘누에 연구소’) 완주만의 문화예술의 차별지점, 장기적인 지향점,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 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모임을 연구소 형식으로 구축함. 기존 관계를 구축한 교수진, 예술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 추진중
 - (마을거점 리더들 간의 공유현황) 4개 마을거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들과 사업에 대한 소통/교감/고민지점을 공유하며 지속 논의 중임
 - 전반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단순히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누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초거점 센터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들도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면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기초센터로 남고자 내부적으로도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중임
- 예술가 양성사업 추진 방향
 - (예술가 양성사업의 궁극적 목표) 단순히 양성사업(아카데미)를 수료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닌 이 과정의 참여자(예술가)들이 성장하여 마을거점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자 함
 - (커리큘럼의 차별화 필요) 예술가 양성사업을 위해 다른 기관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나, 기존의 TA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예술가들의 피드백 존재함. 완주만의 색깔을 담아 차별화하는 방안 고민
 - (인프라 부족) 기존 문화예술교육에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힘들어하고, 경험이 없는 예술가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을거점별 격차 및 새로운 참여자 발굴

- (마을거점별 기획/실행력의 격차) 작년까지 기획 단계에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마을거점들이 올해 실행에 들어가며 전문 인력들의 확보/기획력에 격차를 보이기 시작함. 기획자-지역공동체-예술가 삼각구조가 확실한 팀은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존재
 → 정체되어 있는 곳들도 함께 끌고 나가면서 새로운 마을거점을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의 어려움 등으로 현황에 대한 파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 (새로운 예술가를 양성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 현재 참여중인 마을거점 리더, 정책단, 교사, 기획자 모두 작년의 경험을 통해 성장 중이고 이미 서로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수월한데, 만약 예술가 양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가를 발굴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음(양성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

• 기관 및 예술가 협력 시의 고민지점

- (청장년층 예술가 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현재 공동체 안에서 주로 활동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술가들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서 아동/청소년 대상교육을 진행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청장년층 예술가가 필요하나, 젊은 청장년층 예술가의 경우 생계와 직결된 부분을 먼저 충족하고자 하는 입장이 있어,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들을 보임
- (예산 확보를 위한 기관 연계 시의 입장 차이) 기초거점 사업을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과정에서 본래 기획 의도와 대립되거나 조율이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함
 → 다른 입장을 수용하고 가다보면 기획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같이 작업하는 마을거점 리더, 기획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어서 고민
- (지역 상황에 따른 유동적 진행방식에 대한 우려) 예술가의 경우엔 시작과 끝맺음이 명확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강조하고 마을과 지역에서는 주민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예술적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특성상 일이 많은 때와 비수기의 차이에 따라 참여도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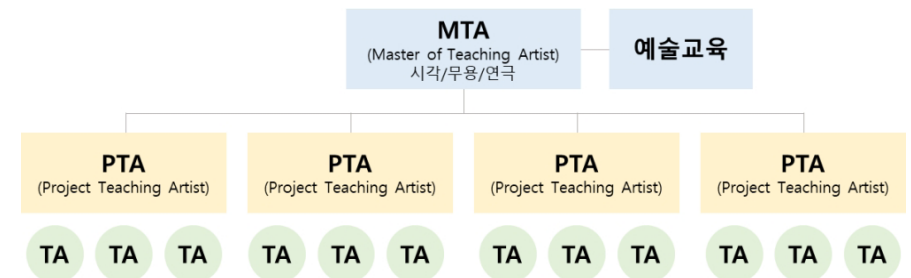
미치기 때문에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실행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술가들의 불만이나 이해의 차이가 존재함

→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동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기획자,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예술가 필요

○ 전문가 의견 공유

• 예술가 양성 사업 설계를 위한 사례

- (서울문화재단) 진흥원 예술강사 구조, 경기문화재단 방과 후 예술학교 지원사업 등의 사례와 같이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예술강사를 선정하고 모둠을 형성하여 연수/교육/워크숍 등을 통한 콘텐츠 개발·발굴·실행 구조로 마련하고자 TA 사업구조 마련
- (링크센터 사업과의 연계) 예술강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실행하는 방향성을 검증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 링크센터의 맥신그린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르치는 예술가(Teaching Artist)라는 개념을 도입. 다양한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활동영역을 개발하는 TA와 현장으로 나가는 TA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존 예술교육 사례들을 조사하고 변별력을 갖기 위한 통합교육을 고민함. 이후 재단과 전문가가 학교 교과와 연계한 TA 사업의 구조를 만들
- (TA 사업의 인력구조) 시각/무용/연극 분야로 구성된 MTA와 5~10년의 경험을 가진 PTA, 현장에서 활동하는 TA로 구성된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 이후 TA들의 자체적인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 현재는 현장TA와 매니징TA로 구조화 되었음. 이후 방과 후 과정을 없애고 학교 교과와 연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통합예술교육&인문 과정을 진행 중임



→ 과정과 단계를 많이 두는 것이 당위성을 갖게 하는 방안일 수는 있으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봄

- (전주 팔복예술공장) 이전의 문화 프로그램과는 다른 전주만의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공간 특정화 된 문화예술교육으로 시작하였으며 새롭고 신선한 예술가들과 함께 ‘놀이’를 중심에 두고 진행 중임
 - 전주가 가진 한계 중 하나는 예술을 도구화 한다는 것. 예술가들이 모이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갈 집단지성이 아닌 ‘놀이와 예술을 만나게 하라’고 정책으로 묶어버리는 한계점
- (청주 동부창고) 충북문화재단과 다른 문화예술교육, 변별력과 차별성을 가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예술교육과 다른 것’을 고민 중이나,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무도 발굴하지 않았던 강사를 찾는 방향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예술가 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예술가는 많지 않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을 고민하는 예술가는 더욱 찾기 힘들
 - 예술가 양성사업 방식을 구축하기 이전에 ① 지역 내에서 지향하고 있는 예술교육의 상이 무엇이고, ② 그 상을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술가들이 있는지, ③ 해당 예술가들과 파트너가 되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
- 누에만의 예술가 양성사업 방향
 - (가르치는 예술가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예술가) 지역에서 ‘예술적 시민성’을 가진다는 것은 공동체 활동 안에서 사회적 역할을 찾아가는 의미이므로 티칭(Teaching)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고 누에만의 방향설정 필요
 - (예) 광주에서 진행한 ‘경자씨 프로젝트’는 참여자들과 지역의 특성, 삶의 속도를 이해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임. 예술가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태도로 호흡을 마주하는지 들여다 봐야함
 - (그간의 고민지점을 통한 주제어 발굴) 이전에 진행했던 담론이나 활동, 회의 내용 등을 통해 이러한 고민을 예술교육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들을 더 나눌지 예술가들과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를 리스트업하고, 왜 그것들이 필요할지 누에의 언어로 정리/문서화 하는 과정 필요
 - (예) 삼례 수달마을의 경우 그 안에 환경 모임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예술로 가져올 것인지 고민하는 집단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 지역과 예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단계를 진행한 후, 논의 안에서 나오는 주제어를 프로그램의 컨셉으로 만들 수 있음

- (사업의 이면을 고민하는 과정 필요) 누에연구소 구조를 통해 지역의 차별성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보이는 것 외에 이면의 단계를 고민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사업의 동력이 될 것임
- 담론을 형성하는 사람들과‘완주에서 예술이 답아야 하는 것’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논의 안에서 나오는 주제어 공유 필요
- 예술가 인프라 확보 및 마을거점 간 격차 해소방안
 - (예술가 대상 정보 공유 및 마케팅 필요) 역량있는 예술가들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를 고민하고 끊임없는 정보 공유 및 인프라 제공 필요
 - (예) 완주 한 달 살기와 관련된 명함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QR코드 삽입하여 해당 사업정보 전달
 - (각 마을거점별 수요를 바탕으로 한 방향성 설정) 모든 마을거점을 똑같은 수준으로 끌고 간다거나 동등한 대우를 하기 보다는 각 거점이 생각하는 지표를 확인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파악/지원
 - (예) 취약한 마을에는 예술강사를 보내서 참여자와 관계를 맺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해를 하는 데 집중하고, 우수한 마을에서는 리더가 되어 새로운 마을거점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접근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의견 공유

- 조례제정 관련
 - 완주군 중장기 계획에 조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공동체/거버넌스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내년초 조례제정 추진 예정
 - 하반기 중 조례안 공유 예정이나, 지원법 상에 한계가 있어 각 지역 간 조례에 대한 의견에 대한 가이드 정도일 것임
- 청소년 정책단 활동
 - 누에 연구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단을 모집하여 강의/프로젝트 등 본인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기 자기주도성을 갖는 계기가 될 것



② 포항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5. 24.(월) 15:00~17:00, 포항문화예술회관 2층
- 참석자
 - (거점주체) 포항문화재단 이주행 팀장, 홍채연 담당자, 이해지 코디네이터
 - (광역센터) 경북문화재단 문예교육팀 이현혜 팀장
 - (전문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
 - (진흥원) 지역협력팀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공동체 회복 이슈를 활용한 <홍해 마을기록 사업>

- 마을기록사업 추진 방향 및 지역내 기관 간 협업 현황
 - (마을의 변화에 대비한 기록사업) 지진이 처음 발생했던 홍해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마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여, 사람/공간 등 남기고 싶은 것들을 예술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기록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구성함
 - 사업 취지상 프로젝트 기획 내 시민들과 예술가가 대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결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고민임
 - (지진트라우마센터 및 도시재생센터와의 협업) 홍해지역 사례 등을 요청하기 위해 지진트라우마센터와 공간 및 예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마을활동가와 연결이 되었으나 홍해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미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부딪치는 지점이 발생함
 -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재단과의 협업에 대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기관 간 추구하는 방향 및 자원이 겹치다 보니 자칫 경쟁 구도로 비칠 우려가 있어 협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마을기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방안 제안
 - (매개단체 및 매개자를 통한 협력) 포항만의 특성을 살린 마을기록사업을 위해서는 지진트라우마센터의 사례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초반에 추진 과정에서 방재정책과와 발생한 갈등은 기관 대 기관보다 중간에 매개단체나 매개자로 연결다리로 하면 추진하면 오히려 쉽게 해결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 지역특화 프로그램 진행 시 예술가의 참여 확대 필요
 - (시민이 주체가 되면서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구조)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 현상을 바라보고 마을을 기록하는 방식이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되, 각 팀당 예술가 1~2명이 함께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시민과 예술가가 협업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곧 LAB이나 CoP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 (예술가의 시선으로 기록) 마을기록사업 진행 시 예술가가 중요한 기록자로 참여하여 시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기록의 과정과 결과물이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진행 필요
 - 예술가들이 마을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느냐가 중요하며, 도시재생센터에서 생각하는 마을기록과 문화예술 차원에서 생각하는 마을기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명확하게 설득하면서 협업모델을 찾아야 함
 - (포항만의 특색을 살린 마을기록사업 필요) 지역의 이슈(재난, 지진 등)를 중심으로 마을기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실천 등을 다루는 것은 이미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진행했던 마을기록사업의 모델이어서 아쉬움
 - 최소한 마을의 텍스트(메타포)를 분석하고 마을의 변화나 삶, 생각에 변화를 줬던 것들을 가지고 실제 이로 인해 변화한 사람들의 태도나 문제 등을 기록도 하면서 예술적 경험의 장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 필요
 - 이런 연결구조에 어떤 예술가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프로그램 진행보단 사전 작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개발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 필요
 - (마을기록 사업/공동체 회복 사례 발굴 및 결과공유 필요) 재난 상황 안에서 사람들의 정서상의 문제 등을 이슈화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기록을 진행한다면,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있으며 기록한 결과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른 문화예술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구룡포 해녀를 소재로 한 <생태환경 프로젝트>

-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고민
 - (지역의 이슈나 자원 발굴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바닷속과 생태환경을 잘 알고 있는 구룡포 해녀들과 프로젝트 추진, 워크숍과 트레이닝을 통해 ‘생태전문가’로서 이후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 생태환경을 주제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는 상황. 참여 의지가 높은 해녀그룹을 발굴하였으며, 지역 내 작가가 소통하며 재단과

내용 논의 중

- 구룡포 해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평생교육의 공간과 연결하여 협업의 사례를 생성하고자 함. 각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는 재단 내 생활문화 파트와도 연결, 작은 프로젝트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진행 예정
- (지역 내 학교와의 협업) 구룡포 초등학교와 이야기 중 처음에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단이 원하는 프로그램 추진의 어려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과 재단이 할 수 있는 것과의 괴리감이 존재

• 다른 단체/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접근 방법 제언

- (평생교육 분야와의 협업을 위한 접근과 설득) 구룡포 해녀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기존 평생교육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ex. 수원의 ‘누구나 학교’), 파견 강사제도 등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접목시키면 확장의 요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재단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참여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평생교육에서는 새로운 참여자나 수요를 확보받는 구조로 간다면, 협업의 의미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음
 -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일부 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특화시킨 지점들이 있으므로 이런 지점을 평생교육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논의
-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연결되는 지점 강조) 기관이 가진 미션과 동일한 일이고 그것을 심화할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

○ 지역의 자원(기술)과 예술을 연계한 <융복합 프로젝트>

- 포스텍과의 MOU 체결을 통한 프로젝트 개발 현황 공유
 - (공간을 활용한 기술-예술 연계) 포스텍과 MOU를 체결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등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개발을 추진 중임
 - 과학과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통한 교육 진행에 대한 전문인력(교수)의 의지가 높고 협력이 원활한 편이나, 지역 내 과학 분야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협력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거나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기술-예술 결합 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 필요
 - (포스텍과의 협업) 공동체와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며 재단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맥락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포스텍과의 협업 역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 쉽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 고민 필요
 - 재난 소재나 작년부터 진행해왔던 아동, 마을기록에 초점을 뒤서 기술과의 융합지대를 시범적으로 찾아보는 방향도 좋을 듯함
- 관계자 간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 설정 및 세부논의 필요
 - (어느 한 분야를 과시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 지양) 조금하계 성과를 내는 식이 아니라면 기술과의 접목이나 연구는 충분히 진행해볼 수 있으며 오히려 교육쪽에서도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현황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서 예술교육과 연결이 되면 다른 식의 설계가 가능할 것임
 - (예) 제주에서 지역의 특색인 바람을 이용하여 감각이나 감수성에 관한 부분들을 기술과 접목시켰던 사례(창의랩 사업) 등 참고 가능
 -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지역 안에서 경험이나 관심이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렵다면 포스텍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셨던 교수님들과 CoP가 함께 만나 이야기를 진행해보는 것이 사례를 만드는 데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접목을 위한 지속적 기회 마련 필요
 -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 진행)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나 이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나며, 쉬운 주제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소통하고 부딪치는 과정이 필요
 - 경북문화재단에서 창의랩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전문분야와 결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분야를 잘 몰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논의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웠음
 - 기초거점 사업의 장점이자 중요한 지점은 현장에서 자주 만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

○ 협의체 운영 관련

-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및 타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고민
 - (포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협의체를 당장 구성하는 방향보다는 우선 네트워크 형식으로 소규모 예술가 그룹과 함께 모임을 형성하고 논의주제를 정하여, 이후 해당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이전에는 주제 없이 논의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슈별 주제 전체가 모여, 각자 진행한 것들을 나누면서 논의 주제를 좁혀나가고자 함(우선적으로는 재단에서 관련 소재를 제안할 예정)
 -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한 평생교육 기관과의 협업) 작년에는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지역 자원·이슈를 통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협업하는 방향으로 설정함
 - 평생교육의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중복성 등에 대한 우려를 비추셔서, 프로젝트 진행시(ex: 동네지식인) 공간 협조 등을 통한 협업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방향을 마련 중임
-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체 발굴 필요
 - (협력주체 추가 구성) 주체를 발굴하고 파트너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함. 포스텍이나 유아 쪽과의 만남이나 성과물을 통해 집중할 만한 포인트가 생겼지만 개별 파트너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곳들과의 접목)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자극이나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나 일반 공동체, 팀들과 지속적으로 미팅, 협업을 추진하며 작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임
 - (협의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협의체 안에서 논의 되고 만들어진 일들을 현실화하는 경로를 만든다면 주제를 이끌어내고 규모를 세분화하며 좁혀나가는 데 탄력이 붙을 것
 - 성북의 경우에도 협의체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예산이 뒷받침해서 실제 사업화 하는 과정들을 세팅했던 것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임
 - 예산의 문제는 광역재단/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고민 필요
 - (협의체 모델의 고도화 예시/서울문화재단 사례) 올해 개소하는 서울 예술청의 경우 예술가, 거버넌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직접 지원사업을 만들거나 사업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 진행. 검증이 되고 효과가 확인되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구조로 가려고 추진 중

→ 포항도 협의체의 체계가 구축되면 이후 협의체에서 나온 논의들을
실험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되면 재단이나 시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지면 좋을 듯함

○ 참여주체 발굴 지원, 지역 내 인력 양성

- 참여주체 대상 적극적 지속을 위한 지원방안 고민
 - (타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한 고민) 참여하는 워킹그룹/주체들의 경우
문화다양성/문화예술교육/문화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결국 기초거점 사업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갈증을 드러내기도 함. 활동비 지원과 같은 예산 문제가 존재해 고민이 있음
→ 재단에서 이전에 모집 및 선발했던 코디네이터들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보다는 단순 관리자의 업무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워
했으며, 활동비 지원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 재단 내에서도 추가적
미션을 주거나 사례비를 늘리는 등 지속해나갈 수 있는 방안 고민 중

- 지역의 인재를 확보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 필요
 - (실질적인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필요) 몇 년 동안 인력양성을
통해 역량을 키운 지역의 인재들이 실질적인 생활고의 문제로 이탈하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수준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나 고민이 기초거점 사업에서도 필요하다고 공감함

○ 기타 2021년 사업 추진방향 관련

- 웹진 발행 및 실태조사 진행 현황 공유
 - (지역민 대상 콘텐츠 배포) 웹진의 경우엔 소규모 인터뷰와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을 구성하고 기존의 SNS를
활용하여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해지 코디네이터 진행)
 - (이슈 중심의 자원조사 추진) 2020년 진행했던 실태조사와 달리 올해는
이슈를 중심으로 자원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페이퍼 작업이나 통계 위주의
실태조사보다는 네트워킹나 기관과의 간담회 내용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실태조사 개념을 잡고 진행 예정
- 핵심사업 설정 및 참여주체-사업 간 연계 필요
 - (사업 개수 조정) 연간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한 양을 담고 있어서 가급적

사업의 개수를 줄이고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 온라인 플랫폼/문화예술 웹진 발간/단순 실태조사 사업은 축소하고, 핵심
사업이 무엇이며 각 사업이 어떻게 만나는지, 소통한 다음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다룰지 등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구체적 참여주체에 대한 내용 보완) 어떤 지역의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사업구조 안에 들어오는지, 해당 주체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핵심사업 간 유기적인 연결) 작년부터 진행해왔던 '아동'과 현재 추진
중인 '기술',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라는 소재를 모두 연계하여, 참여하는
주체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시선으로 주제를 발굴하고 공통의 안을 만드는
LAB 활동 방식으로 진행 가능할 듯함
- (포항문화재단의 2021년 핵심목표 수립) 공동체 회복(또는 공생)과 협업
플랫폼 구축, 소통과 네트워킹, 또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것을 재단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가지고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연결하는 형태)
재난마을기록(홍해)과 구룡포 해녀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두 재료 모두 아동의 환경이나 생태교육과 연관한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으며, 기술과의 융합은 우선 지역의 예술가와 기술 쪽 협업가들이
기술이 지역사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세부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은 연구하고 개발하는 LAB이나 CoP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네트워킹 형태가 될 수도 있음
- (포항만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틀 형성) 기초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며 특히 포항과
같이 지역 이슈를 안고 있는 곳에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함. 2021년은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것의 초기, 씨앗을 뿌리는 형태로
진행해도 충분히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업 카테고리 분류/단순화 작업을 통한 핵심사업 정리 필요
 - (사업계획의 점검과 정리) 많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과 정리 필요. 기초지역이 현장과 끊임없이
부딪쳐야 하는 건 맞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와 업무의 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에 무언가를 던져주고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 (워킹그룹의 역량을 키우고 발굴하는 작업) 이전에 해녀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포항 단체의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 협업을 하거나 컨택을 해보는 방향도 있고, 지역특성화나 꿈다락처럼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포항 내의 예술가, 작가들을 찾아 발굴하는 것 위주로 작업을 하는 방향도 가능

→ 사업이 많더라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을 통해 핵심사업이 정리될 수 있을 것

• 올해의 성과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지향을 놓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작게라도 성과를 압축적으로 잘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정리하는 것이 좋겠음. 그래도 작년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향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유사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 희망

-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의 협업의 필요성) 지역적인 차이만 있을 뿐 협의체/거점 등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포항문화재단과 이 자리를 계기로, 이후 고민 지점을 공유하고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을 앞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함



③ **지리산씨협동조합**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5. 27.(목) 14:30~17:00, 매천도서관 1층 회의실
- 참석자
 - (거점주체)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대표, 하경혜, 임지선, 조다은, 임선재
 - (전문가) 비커밍컬렉티브 김정이 대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조례를 바탕으로한 거버넌스 체제 확립

- 조례 제정을 위한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 (조례에 대한 주체별 의견수렴 현황) 지난해 관계자회의 등을 통해 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조례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고, 콘텐츠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작년까진 조례안 논의 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리산씨협동조합에서 먼저 중심을 잡고 각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하였으나, 저마다 생각한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전략을 바꾸어 주민그룹/문화예술 활동가/교육청 등과 함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례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체제를 현실화하는 것을 과제로 잡고 있음
 -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고민)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으로 인한 한계 극복, 위원회 구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조례 항목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발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센터지원 등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을 통해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도 어떤 의원이 발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지점이 있음
 - 따라서 올해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위해 조례 제정 시의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 고려

- 조례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사업의 우선순위 구분 필요
 - (문화예술거점으로서의 역할 제시 및 사업 재배치 필요) 지역 자원조사의 내용과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세부 용어 선택 및 종합적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리산씨협동조합 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입장이 정리 되어야 함
 - 현재 조례안의 내용에서는 구례만의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이나 위상을 찾아보기 어렵고 구례만의 특성이 보이지 않음 →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주체들과 조례 제정의 핵심에 대해 논의하고 내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담고자 하는 의지와 방향을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까지 저절로 되는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한 문제해결형 워킹그룹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만 진행하기 보다는 주체들이 담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추진해줄 외부의 전문가들과 주체들의 의견과 공통 비전/과정을 모아 합의 된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과 문장을 정리하는 사전적 단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거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디테일한 사업 설계와 우선순위를 통한 사업의 재배치가 필요하며, 핵심 역할을 하는 레이어와 단위 사업에 대한 레이어에 대한 구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명확한 경로를 그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함
 - (조례 항목에 대한 세부 점검 필요) 현재 조례안의 구성은 상당수가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위탁을 통해 수동적으로 받고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론적인 내용들을 넘어, 실행 단계로 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례가 한 번 제정되면 전국이 비슷한 내용들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구와 용어에 대해 면밀히 따지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의 목적 정의와 원칙들을 정리하는 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서울어젠다’와 ‘유네스코의 문화예술교육 참조사항’등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실태조사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함으로써 DB확보는 물론 조례에 어떤 것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실제 교육의 수혜자이자 수요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항목을 추적하기 위해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회조사 과정에 실태조사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구례만의 특성을 담은 조례안 점검 및 조정 필요
 - (조례안 내용 점검 및 합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추후 조례의 문구나 용어들은 충분히 변경·조정이 가능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기관의 조례를 참고할 때에도 기초 지역 단위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을지 목록화를 진행한 후에 참고하는 것이 좋을듯함
 -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시해두는 것이나, 주체간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타분야(ex: 평생교육)와의 협력 범위를 함께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분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함께 진행할 부분/따로 진행할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분 필요
 - 군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거나 지원이 명문화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함

○ 지역 자원조사 및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관련 진행현황 공유
 - (지역자원 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 작년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교사/코디네이터가 교육 활동에 대한 근거로써 ‘지역 자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어, 올해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함
 - 미디어랩 : 커뮤니티 맵핑 방식으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는 활동
 - 길 위의 인문학 : 구례에 있는 명인/명소를 주민들과 함께 가이드북으로 제작
 - 지역자원 조사를 위한 기술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과정을 만들기 위한 사례/방향성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있음
 - (데이터 수집 목적 및 방법 관련) 초반에는 수요자 조사(FGI)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렇게 진행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확인 하는 단계까지만 될 수 있어, 방향을 변경하려고 생각 중임
 - 교육청에서는 현재 자원조사를 진행하는 방향보다는 새롭게 생기는 공간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학생들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구례군에서도 읍·면단위의 격차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임
- 데이터 수집·아카이빙 및 수요조사 관련 추진방향
 - (기초단위로서의 데이터 확보와 아카이빙의 중요성) 우선적으로는

아카이빙/데이터 확보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둌으로써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자체에서 하는 실태조사/DB/리서치 목록 등을 찾아보고 지리산씨협동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3년이나 5년마다 구례군 차원에서의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내용을 넣는 방법 고려

→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외부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실태조사를 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하는 불안정한 구조이지만, 정기적인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통해 구례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이나 긍정적인 성과의 데이터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임(반대로 열악한 재정 문제나 필요한 부분들도 파악이 가능할 것임) → (예) 전북 지역의 경우 전주/익산 등 큰 단위의 도시들의 데이터로 인해, 나머지 군단위 도시/소멸도시의 DB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초 단위에서 실질적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는 성과 등 정량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임

- (데이터 수집의 방식) 1) 지리산씨협동조합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과 2) 온라인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임

→ 두 가지 방식 모두 무엇을 위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온라인플랫폼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 안에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의견을 직접 표출하며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

- (수요조사와 대상 설정 범위) 수요자는 자신의 지식 범주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고, 실제 자신의 욕구보다 익숙한 항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짓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음

→ 정확히 타겟팅 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요조사의 핵심임 (예)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다면, '교육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가진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인사이트를 충분히 제공할 전문가 그룹 대상의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해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임

• 수요조사 중심 자원조사 필요

- (지역의 환경이나 성향에 따른 보정 필요) 대상에 따라 수요조사 단계에서 나온 결과와 이를 실제로 실행했을 경우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이나 성향에 따라 항목 보완 필요 → FGI나 수요조사 이전에 사전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미리 유형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온라인 플랫폼 관련

• 플랫폼 구성 관련 추진현황 및 중점 방향 고민

- (온라인플랫폼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과정) 실제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도구로 만들고자 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자의 활동과 연계하여야 하며,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민 중임

• 온라인플랫폼 운영 방향성 제안

- (수요 발견 및 직접적 이익과의 연결) 수요를 발견하고, 온라인플랫폼 안에 그것을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따라 활용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음. 자신들의 수요를 데이터로서 입력하는 것은 직접적인 이익이 있지 않는 한 연결이 어려움. 계속해서 연동이 되고 이후의 단계로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야 함 →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시스템을 만들 경우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욕구와 목적이 확실했던 수요자들 간의 매칭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음 → 구례와 같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을 온라인으로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융복합 콘텐츠 개발 협업 관련

•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협업 배경

- (공연-문화예술교육 연결방) 한국문화예술종합학교 공연예술센터와 함께 인형극/공연콘텐츠와 문화예술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올해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추진예정

→ 콘텐츠마다 연결될 수 있는 교육적 방향을 고민하고, 해당 소재를 활용한 워크숍을 통해 지역 안에서 전문적인 협업을 시작해 나가고자 함

- 한예종 협업 과정에서의 우려 지점

- (대등한 관계 설정 필요) 한예종과의 콘텐츠 기획·운영 시

지리산씨협동조합이 주도가 되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등한 관계로서의 콜라보레이션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줄풍류를 활용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어 어떠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인지 목적이 모호한 부분이 있음. 데이터 아카이빙의 경우에도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향후 데이터를 모으는 구조로 연결 될 수 있듯이 협업도 목적과 방향성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봄

- 협의체 운영 및 협력 현황

- 구례군 및 교육청과의 협업 현황

- (교육청과의 협력 관련) 교육부-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활동과 교육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구례 교육’에 대한 브랜딩을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 또한, 교육청과는 <사람책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자원에 대한 아카이빙과 온라인플랫폼 구성에 대한 계획 등 같은 목적 안에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임

→ 작년 한해 동안 진행했던 자원조사 내용이나 확보한 자료들은 교육청과 공유된 상황이며, 현재는 아카이빙과 자원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제에 적용하여 관리하고 확장해 나갈지 논의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 이전에 구축해놓은 웹사이트에 있으나, 정보 수집이나 정보의 질이 고르지 못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참여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방안과 이를 위한 연결지점 고민

- (구례군과의 협력 관련) 작년에 이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수해 복구와 관련한 예산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으로 다른 영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민간 주도의 특징에 맞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와 모델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구례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할만한 역량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리산씨협동조합과 함께 실행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업으로서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음

- 기타 사업 관련 추진상황 공유

- 사업별 추진방향 및 기타 고민사항

- (구례교육지원청/공간 관련 협력) 구례공공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미래교육/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 중임

→ 기초거점 사업과 별개로 구례 지역에서 공유스튜디오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함께 지역 내 교육공동체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공간 디자인 및 협의 진행 중임

- (매개인력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기획)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매개인력들의 경우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부 인력들끼리 스스로 콘텐츠/교육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현재 교사들과 함께 ‘자율적 학습 공동체’과정 등 공동체·모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교육청에 제안하여,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임

- (지역 내/외부 인력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기획단 운영) 작은 지역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유입된 외부인과 내부자들 간의 갈등이 구례에도 존재함. 학교에서도 교육적 방향 등에 대해 정서적 차이가 있는데, 지리산씨협동조합도 지역 내부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인 상황임

→ 외부인과 내부자 둘 중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게 될 경우 다른 쪽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융합시켜 나가기 위한 민간기획단을 기획하고 있음. 지역 출신이면서 이러한 지역내 갈등을 이해하고 좁혀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고자 함

- (마을 코디네이터(강사) 운영 관련) 현재 코디네이터 과정은 1) 마을학교에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분들과 2) 문화예술교육 강사로 거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임. 단순한 강사 체계에서 나아가 다른 자원들을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 고민 중

→ 현장에서는 1)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2) 정체되지 않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요구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며 구체화시키는 것이 과제임

- (광역재단과의 협력) 광역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지소 사업과 연결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한 바 있으나, 현재 또 다른 매칭사업 보다는 내부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 변경함

→ 내부적으로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면 광역재단과 연계하거나 확산해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장기적인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함

• 광역재단과의 관계 및 협업 관련

- (광역재단의 사업과 기초거점 사업의 연계방안)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며 생겨나는 문제나 협업지점에 대한 고민은 광역재단과 함께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델을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수렴해가는 과정으로 나갈 것으로 보임. 성과를 다투기 보단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광역이 자체적인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초거점 사업과의 협업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연결지점을 만들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④ 춘천문화재단, 광주북구문화의집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6. 2.(화) 17:00~19:00, 아르쥔 생활문화센터 모두의살롱
- 참석자
 - (거점주체)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김현정 팀장, 김보린 과장 / 문화도시센터 강승진 센터장 / 광주 북구문화의집 김희승 코디네이터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 춘천문화재단
 - (지역의 이슈와 문화예술교육의 연결) 작년부터 진행됐던 마을배움터 사업의 경우엔 문화도시 사업과 상관없이, 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인적자원을 발굴해내는 측면과 지역의 이슈를 문화예술교육으로 재해석하여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것이 쌓여서 춘천의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 추진 중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들을 어떻게 마을 깊숙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문화도시 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음. 단, 기초거점 사업은 시범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들과 연결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도시와 구별하여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시점에 따라 그때 그때 형성되는 마을과 주민들의 요구를 모아간다면, 그것으로 좋은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기초거점 사업의 핵심 방향) 장기적으로 ‘근린형 생활문화 공간’에 동네지식인과 돌봄을 메인으로한 마을이슈/의제사업/일종의 LAB사업들을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획 중임
- (필요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필요한 장소를 찾고, 수요를 찾아 스스로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방식으로 주체 찾기 진행 예정
- (동네지식인) 근린형 생활문화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자원으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찾아내고 이후 만들어지는 공간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

- (기타) 돌봄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에서의 이슈와 갈등, 문화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함
 - 다양한 사업을 연결해 줄 매개체이자 교육에 대한 거점을 문화도시 사업의 '도시문화 전환학교'로 잡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더 많은 이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구조를 3년 내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 (문화도시사업과의 구분·연계지점 관련) 현재 문화도시사업의 방향성을 문화예술교육도시로 잡고 추진해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춘천에서의 기초단위 거점구축 사업은 12개의 거점을 통해 어떻게 10개의 면단위/2~3개의 원도심에 지역 활성화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하고 있음
 - 올해는 샘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 중이며, 문화도시 사업과 구분하지 않고 기초거점 사업의 성과와 지역의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함

• 광주 북구문화의집

- (옆집예술선생 활동처 발굴 및 사업 현황) 작년부터 진행한 옆집예술선생사업의 경우 참여자/멘토/참여자 등이 만든 프로그램이 모두 구축되었지만, 참여자 등이 만든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만한 활동처가 부족함
 - 타깃이 분명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안정감 있게 활동할 만한 적절한 활동처가 없는 것이 맹점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올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옆집예술선생의 주된 활동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단계와 프로그램 기획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임
 - 주제에 맞는 그룹을 형성하고, 주제에 따른 활동들을 이어가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처들을 발굴함으로써, 활동처의 실무자들이 그룹 안으로 들어와 함께 이슈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제 그 활동처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중
- (협의체 및 그룹 간 논의를 통한 협력) 활동처 발굴에 대한 어려움은 협의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멘토/코디네이터/참여자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룹들이 각자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임
 - 주도적인 인력풀이 형성되었으며, 멘토와 코디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적 공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활동처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음. 모든 그룹이 새로운 활동처를 발굴하는 것은 힘들 수 있으나, 협의체 활동을 통해 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타 사업방향 관련 공유

- 광역 단위와의 교류 및 협업 현황
 - (춘천문화재단) 광역센터인 강원문화재단과 역할이 다름에도 점차 추구하는 방향이나 사업, 역할이 혼재되어 이에 대한 고민이 큼
 - 현재 광역센터는 지리적 접점이 있는 영월 등의 지역과 교류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함
 - (북구문화의집) 광역센터인 광주문화재단과는 몇 년간 <창의예술학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초거점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음
 - <창의예술학교 사업>의 경우 처음 사업을 세팅할 때부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으며, 현재 콜로퀴움을 형성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하면서 매년 운영지역을 변경하고 있는 형태임



⑤ 성북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6. 23.(수) 09:30~11:30, 문화예술교육공작소 합
- 참석자
 - (거점주체)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박현진 팀장, 김현주 대리, 김재현PM, 지강숙
 - (광역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민지 팀장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및 고민지점 공유

- 콜로키움 운영
 - (지역의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활동 계획) 작년에는 기초거점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대해 확인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으로 거점의 역할과 지역의 이슈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콜로키움을 여섯 차례 정도 계획 중
 - 이번 달 첫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으며, 민간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혁신교육 사업’에 대해 구청/추진단/민간단체/기관들과 논의하는 자로 진행함
 - 두 번째로 ‘중앙, 광역, 기초단위가 모여 어떻게 협력하고 각각 주체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진행 예정 → 이후에 학교 단위나 교육 기관에서는 어떻게 협력하고 거버넌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함
 -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논의) 작년에는 기초단위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작업이었다면 올해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단계 → 성북 안에서만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게 아닌 중앙/광역과 연결
 - 첫 콜로키움에서 혁신교육사업 자체보다는 하나의 모형이 지역단위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네트워크망이 파편화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사례를 통해 논의 진행예정
 - 두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공공기관 측에서 생태계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 세 번째는 교육기관에 있는 관계자/담당자들과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배출되는 이슈들을 랩이나 현황조사 등을 병행하며 좁혀 가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랩 운영

- (다양한 실험을 위한 랩 운영) 콜로키움에서 나왔던 이슈들이나 논의 내용들 중에서 작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랩을 통해 커뮤니티/네트워킹/공간 등 거점에서 필요한 영역의 다양한 실험 예정
 -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연습) 예술교육사업 진행 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견한 문제점인 ‘프로그램의 사유화’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공동의 자산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함
 - (추진방향) 기본적인 설계만 해놓고 방향을 설정, 오픈한 후에 콜로키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레이어를 얹는 실험과 연습을 랩에서 진행해볼 예정
 - (향후계획) 성과가 좋았던 프로그램들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나 연구가 아닌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중임
 - 이런 작업들을 통해 이후 기초거점 혹은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안에서 공동으로 나눠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정보, 효과에 대한 정보들이 교류되고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협의체 운영 및 주체 간 소통
 - (동네예술교육 모임을 통한 다양한 주체와의 만남) 중학교 교사/지역교육 전문가/마을배움터/예술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 중임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을 아동·청소년 등 한정적인 대상을 두고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 삶이 변화되고 행복함을 느끼는지 이야기하며 그 변화를 통해 대상을 만나야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집중하고자 함
 - 모임 논의내용 중, 내년 이후 문화예술교육캠프를 계획해보자는 의견을 공유함 → 센터나 거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로 기대
 - (예술인 마을과의 연계) 석관동 예술인마을에서 거주하고 활동 중인 예술가들과 서로 상호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 각자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커뮤니티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돌고 도는 공유재’라는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일 자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는지 등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 중
 - (장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설계 및 콘텐츠 논의) 공릉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놀이문화로 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성북문화재단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사업 추진방향 관련 의견 공유

- 기초 단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개념 수립 고민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통의 인식)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매개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이 특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라는 단어로 묶여서 이야기나 인식의 한계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 중임 → 기초거점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각자가 가진 상을 유연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무언가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무언가’ 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특정 대상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느낄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
 - (지역 내 문화사업 간의 개념 구분) 생활문화/지역문화 분야에서도 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올해부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통합하여, ‘동네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개념을 정리할 예정이며,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좀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 현재 자치구 활성화사업 참여 지자체들도 혼재된 사업 진행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관련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주체들이 인식의 확장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게끔 기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두 가지로 목적이 구분되는데, 광역에서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구조를 바꾸거나 유지될 수 있게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 각 개념의 통합은 정책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역 단위 안에서는 영리하게 알아서 풀어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음. 단, 이와 관련해서 정책

관계자는 ‘근거’를 요구할텐데, 이 근거는 협의체 등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통해 나올 것이므로 지역 안에서 단단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예술교육의 역할 등을 전략적으로 나눠주셨으면 함

- 다양한 실험을 통한 기초거점 모델 형성방안
 - 콜로키움 등을 통한 실천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랩 사업을 통해 테스트 하거나 지역 안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고자 함. 서울문화재단의 지역TA와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의 모형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기존 사업들이 가진 빈틈이나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채울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설득하려면 작은 단위에서라도 사업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교육의 개념 해체/지역의 커뮤니티 유연화/일자리문제 해결 등 중앙-광역-기초 단위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고, 설득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인력 간 ‘연구 공동체’를 활용하고 관련 전문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설득되지 않은 가치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봄(예: 시민예술대학, BK 사업 등)
 - 단, 시민예술대학 등에 ‘R&D’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으나, 이것이 콘텐츠 개발인지/연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봄

○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논의

- 지방이양 이슈 관련
 - 앞으로 1~2년 안에 지방이양이 현실화 되면 중앙-지역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나, 지자체로 지나치게 권한이 가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임. 중앙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또한, 기초 단위에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필요성을 잘 정리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인적자원 발굴 및 플랫폼 형성에 대한 부분은 기초 단위에 맡기고, 중앙 차원에서는 정착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함. 중앙 단위에서의 예산 통합은 요원한 이야기이겠지만, 중앙-광역 단위 차원에서 예산활용에 대한 지침을 느슨하게 형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이러한 조건이 마련된다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각자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이양이 될 경우, 중앙 차원에서 예산지침을 내리더라도, 지역 안에서의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 이렇게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쉽지 않을 수 있음
 → 지방 이양으로 인해 지자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며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과 이해도에 따라 사업 유지와 예산 확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며 어떻게 다른지, 가치나 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기초 간 역할 설정 관련

-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역의 역할) 최근 기초 관계자들과 모여 중앙의 역할/지방이양 이슈/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고, 광역에서 직접 진행하던 것들을 기초와 협력하거나 기초가 하는 걸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시범적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험적인 사업이나 하나의 레퍼토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기초와 같이 진행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정리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 다양한 위치와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모이게 되면 이야기의 결이 모이기 힘들고, 서로의 이해도가 달라 방향성을 잡기 힘들 → 성북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도 좋은 사례로서 공유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커뮤니티/네트워크 사업 주안점) 성북 지역에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이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두고 있음 → 단체의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섞여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자 함
- (지역 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역할 필요)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미 기초단위의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죽었다는 의견들이 많음. 지역에 사람/자원 등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전문가를 들여오면서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지역의 고민조차도 외부에서 던져야 하는 상황임 → 형태가 랩이든 연구공동체든 지역 내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나야 지속이 가능할 수 있음. 고민하는 사람, 고민에 동참해주는 사람 등 플레이어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 지역 내에서는 상황이 다양한 상황에 있는 활동가들이 많을 것이므로,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기초 단위에서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광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전에 생활문화 영역에서 FA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광역에서 해당 인력을 뽑아서 기초로 파견하였는데, 해당 현장과 교육자가 맞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음

○ 기타 의견공유

• 저작권 이슈 관련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범위와 더불어 각 프로그램만의 특별함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작권 이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음. 문화예술교육 LAB 사업 등을 통해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함
 → 문화예술교육의 저작권 이슈의 경우, 장르가 확실한 예술교육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봄. 단, 활동형 예술교육, 즉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용적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 있음

•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화예술교육사업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해왔으며, 서울문화재단 지역TA사업의 경우 어느 정도 활동비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중앙/광역/기초 단위에서 함께 만나 일자리나 활동가들의 안정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구조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두 번째 콜로키움에서 마련하여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수 있었으면 함
 → 현재 사업 내 인건비 집행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단가 기준을 가져온 것으로, 기획비에 대해 지원하는 폭이 넓은 편임. 또한, 학교 TA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재료비나 자료 준비 등 부수적인 운영을 재단에서 지원하고, TA는 연구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구조임

• 중앙-광역-기초 단위와의 협력 관련 콜로키움 진행방안

- (대상) 논의하는 주제마다 대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함. 단, 이번에는 각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기초거점 사업에 직접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중앙-광역-기초 관계자를 포함하여, 민간 활동가, 구청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음
 → 지방이양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막대해질 것이므로, 꼭 중요한 참여자로 있어야 한다고 봄

- (내용) 중앙-광역-기초 간 구체적인 고민지점을 자유롭게 나누되,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서울센터의 자치구 사업이나 지역형 TA 등으로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이와 더불어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비판에 더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나 타지역과 구별되는 성북만의 성과 등을 함께 공유하는 방향도 필요할 듯함



2) 하반기컨설팅

① 밀양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9. 10.(금) 14:00~17:00, 밀양 꿈꾸는예술터
- 참석자
 - (거점주체) 밀양문화재단 박규태 팀장, 장진호 총괄감독, 조예나PD, 김보승, 장수빈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 모든학교 체험연구소 김혁진 연구위원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및 점검

- 사업추진을 위한 비전 수립
 - ‘밀양아리나’라는 공간 자체가 본래 공연예술의 성지임. 이 공간이 과거에는 예술인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시민 중심으로 전시, 공공프로젝트, 공연예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추후 밀양 지역만의 세부적인 컨셉을 수립할 예정임 → 현재는 공간 자체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특정 행사가 있어야 공간을 찾고 있는데, 추후에는 ‘문화예술 놀이동산’의 컨셉으로 가족들이 손잡고 놀러오는 ‘일상 탈피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함
 - 밀양 지역의 ‘꿈꾸는 예술터’는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지 명확한 컨셉이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ex: 연극/공연을 매개로 하는 공간 등), 기초거점 사업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어디에 목표를 둘지 목적을 보다 탄탄하게 세울 필요가 있음
 - 현재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위주로 컨셉이 설정되어 있는데, 공간 운영도 중요하지만 협업/실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법/목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 특히 기초거점 사업의 취지는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 만형’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것임. 따라서, 시민을 직접 모아내는 것이 아닌, 그러한 작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보다 큰 틀에서의 고민 필요(그 방식이 연구/프로그램/콘텐츠개발이 될 수는 있겠음)

• 시범사업 관련 내용

- 지역 내 문화자원(자연환경, 야외공간, 공연장)과 연계한 야외 공공

프로젝트(뮤지컬 사업),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씨앗형 사업, 문화예술교육 인력 육성(매개인력 양성) 및 주민예술 활동가 구성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운영 등을 계획 중임

→ 프로그램 관련 범위가 너무 넓고, ‘거버넌스’가 빠져 있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킹그룹 등 사람들에게 대해 발굴할 필요가 있을 듯함

→ 사업의 목표는 거점역할을 할만한 사람을 발굴하고, 밀양 지역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두어야 함.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의 ‘빅 마우스(big mouth)’를 세우고,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내 편’을 만드는 과정으로 활용해야 함

→ (전문가 의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능 강좌를 벗어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개념을 수립하고, 예술교육 창작자 발굴 등 밀양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여기서, 예술가 창작 지원이 아닌 예술교육을 창작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핵심임



•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 꿈꾸는 예술터의 경우에는 ‘시설’중심으로 조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기초거점 사업 관련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진행 예정
-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진단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왜 하는지, 밀양만의 철학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 누구를 끌어들이었는지를 포함하여 ‘공통의 목소리’가 드러나야 함
- 올해는 너무 구체적인 종합보고서를 쓴다기보다는, 내년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주제를 설정하고, 추후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의 ‘컨셉’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소규모의 플레이어라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②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9. 14.(화) 10:00~12:00, 장안문화예술촌 문화마실
- 참석자
 - (거점주체) 장안문화예술협동조합 이서하 대표, 신동근 총괄감독, 박광현 팀장, 배병희 담당자, 이승미 문화예술교육사, 김도현 행정인력
 - (지자체) 장수군청 최은영 주무관
 - (전문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 이가디자인랩 이정희 대표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오한솔 주무관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원혜정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고민지점

- 군 소속 기관 예술강사 역량강화
 -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장수군 문화예술교육의 근본적 문제는 기존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과 신규인력의 유입을 저지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상황 반영하여 장안문화예술촌, 소리예술터 등 장수군 소속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동아리의 예술강사 대상으로 역량강화 진행하고, 해당 강사들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1차 목표임.
 - (네트워크 형성의 출발지점) 장수협동조합과의 협업에 대한 필요성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에게 장수협동조합이 양성한 질 좋은 인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임. 장수군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고 해결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1~3년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변화를 위한 협의체는 누구로부터 시작할 것인지 등에서 출발해야 함. 장수군 공통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는 지점을 조사·발굴하고, 포럼 등을 바탕으로 한 공유 통해 새로운 전환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한 후 파트너를 찾아야 함. 지역 내 주체들이 장수협동조합과 함께 해야 하는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 (지역자원 조사·아카이빙 기반 네트워크 구축) 앞서 언급한 노인 대상 이야기 기록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청소년들과 폐교 전 초등학교에 대한 노인들의 기억을 노인들의 옛 사진, 목소리 녹취하여 기록하는 등 이와 같은 지역 내 자원 조사·아카이브 과정 추진이

기초거점 사업에서도 필요함. 해당 과정은 지역 내 파트너 구축과도 연관됨. 예를 들어 자료 및 자원 조사 통해 인문학 기반으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인을 찾고, 시인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내용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 필요한지 등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순환적 구조 만들어야함. 공간 조성 관련해서도 시를 쓰는 공간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건축가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장수협동조합은 지역의 자원조사 추진, 이를 기반으로 작게는 1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장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계적 지점들을 찾고, 그 지점을 공간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기초거점 사업 성과로 몇 개의 프로그램 진행했는지보다는 어떤 주체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들과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상을 가져갈 것인지 등이 중요함. 기초거점 사업 자원조사의 경우에도 외부용역을 주기보다는 자원조사 자체가 의견수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일부로 풀어낼 필요 있음
- 거점의 역할은 지역 내에서 또 다른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주체별로 사람, 콘텐츠, 공간 등 무엇이 필요한지 찾고 주체별 필요지점에 따라 자원을 연결 해주는 것임. 본 사업 통해 해당 역할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희망함. 사업계획서에 이와 같은 내용 및 과정 추가 필요

• 자원조사/관내 예술인 지도

- 관내 예술인 현황 파악 통해 자원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한 지도 구성 중.
- (예술인 DB) 지도는 최종 결과물이어야 함. 현 단계는 지도 구성 전에 DB조사를 먼저 해야 함. 이 예술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경력을 갖고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함. 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



③ 중구문화재단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11. 12.(금) 15:00~18:00, 충무아트센터 B1 소나무실
- 참석자
 - (거점주체) 중구문화재단 김은숙 팀장, 이지혜 담당자, 김은솔 문화예술교육사
 - (광역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민지 팀장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기초거점 추진현황 및 방향성 공유

- 사업 진행과정
 - (내부 사업계획 검토) 지자체 및 재단 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의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거쳤음. 이후, 평가의견 등을 참고하여, 중구문화재단만의 역할을 정립함
 - (외부 주체 의견수렴) 지역 내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주체와의 만남을 통해 협의체를 형성하고, 거점으로서 어떻게 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가기 위한 단계를 거침
 - (지자체 관계자) 구청 교육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추진단 담당자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논의 진행 → 공통적으로 ‘예술강사 풀’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민간주체) 지역 내에서 거점의 역할을 해왔던 민간주체(극단 진동, 시각예술단체 내내로, 예술치유허브 더브릿지 등)와 어떤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함
 - (활동가) 도시재생 쪽에서 활동했던 개인 활동가를 만나서,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활동 영역의 시각을 들어보는 자리 마련함
 - (청년 예술가) 축제 아카데미 사업 등을 계기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 간에 문화기획학교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성장한 예술인들을 만났음 → 지역 예술가의 경우, 학교를 벗어나 처음 예술교육활동을 시작할 때 어디서/어떻게/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수요를 가지고 있음
→ 청년예술가 중 예술교육 쪽에서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지역 내 민간주체들과 매칭하여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이를 라운드테이블 주제로 가져갈 예정임

- (전문가/김혁진 연구위원) 지역에서는 방과후/돌봄 등을 전략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예술교육 시각에서는 학교 안팎을 떠나서 아동청소년교육에 대해 어떠한 관점/체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유 → 단순히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려고만 하지 말고, 청소년 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정리함
- (지역 내 예술가/고대웅 작가) 을지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N개의 서울 프로젝트(서울문화재단)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험이 있던 예술가를 만나서, 그동안 예술교육 활동 관련 어려운 지점 등을 이야기함
- (을지로예술센터) 을지로의 시각예술가들을 교육과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온 을지로예술센터의 PD를 만나서, 실제 예술가들은 교육보다는 자신의 작업에만 관심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었음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의 진로 체험과 청소년 축제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이것을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해보고, 자유학기제 교사연수와 연계지점 등을 논의함
- (협의체 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외부 사례에서 응용할 부분을 찾기 위한 미팅을 진행하고,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닌 문화분권/자치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관점을 공유하기 위하여, 지자체 관계자/재단 내부직원(예술경영팀, 생활문화팀, 도서관 담당자 등)/예술가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원고로 받아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1차 협의체 모임 때는 민/관/학으로 구성하였으나 2차부터는 장르별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임. 전문예술/생활예술/평생교육 등 분야를 나누어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라운드테이블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그동안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고, 문화예술교육이 어떠한 개념인지, 사업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반응도 있음. 이 또한 재단이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음
- (포럼 운영) ‘중구는 예술대학’이라는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여, 해당 사업 관련 활동성이 드러나는 성과와 시도를 담아낸 포럼을 기획하고 있음 → 기존에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강사의 관점으로 기획의도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고, 초등학생 참여자에게 원고를 받아서 발표하게 하는 등 강사/참여자 중심으로 사업의 의미를 짚어보고, 일반적인 미술수업과

- 문화예술교육 수업은 무엇이 다른지 등을 다뤄보고자 함
- (자원조사) 작년에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당시에 ‘공간’에 대한 조사는 다소 빠진 부분이 있었음. 동주민센터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 외에도 작은 공방이나 갤러리형 카페 등 동네 안의 문화공간을 탐방하고 해당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함
- (중장기계획 수립) 1월 중에는 사업을 통해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향후 거점의 역할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고서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 사업방향

- (거점의 역할) 지역 내의 각기 다른 형태의 주체들로 조직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구문화재단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모델이라고 봄. 협의체가 네트워크의 주체이며, 이 협의체를 잘 구성하여 조직을 잘 만드는 것이 목표임
 - 각 주체들이 모두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섞여서 모이는 협의체의 형태보다는 개별 협의체들이 모여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 중이며, 여러 주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연결시키고 발전시켜서, 또 다른 주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주제로 가져가려고 함
- (지속가능한 방향) 그동안 ‘중구는 예술대학’,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문화재단 TA 사업’등 주체들이 스스로 예술교육에 참여하고 기획하고 활동했던 사례들이 다수 있었지만, 더 발전하거나 거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데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성과공유가 안되었던 이유도 있었음
 -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구축해왔던 중구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고민과 경험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지역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결해내고자 함

• 고민지점

- (예술강사 역량강화) 방과 후 학교 등 학교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경우, 정해진 교과목 외의 강사가 바로 투입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서, 예술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요청이 들어오고 있음 → 학교 안팎을 통틀어서 예술가들을 예술교육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들이 사전에 필수역량으로 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봄. 예술강사를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형식이 있다면 이를

응용하여 구청과 논의/시도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교육 쪽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작업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경우, 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술가와 기획자/행정가를 1:1로 매칭한다면 예술가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대상 연수/커리큘럼 등은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전달하겠음. 단,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후 이러한 노력들이 중장기적 단계에서 어떤 지향점이 있는지가 향후 2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에서 보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듯함

○ 기초 거점으로서 단계적인 역할 설정

- 광역사업 현황 및 고민 지점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 시에서 사업 간에 중복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재단 출연금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임. 다양한 사업에서 예술교육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예술교육에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야 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소수이더라도 의미있는 선례를 형성하기) 재단에서 진행 중인 기반조성 사업과 자치구TA 사업 등의 경우 충분한 설계단계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각 자치구들의 환경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못한 지점이 있었음 → 2~3년 진행해온 시점에서 자치구별로 큰 격차를 보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음
 - 너무 큰 범위로 계획하지 말고, 우선 정말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의지가 있는 곳들부터 시작해서 소수여도 의미 있는 결과들로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사업방향 관련 의견 공유
 - (주체별 개별 의견수렴 방식) 협의체를 분야별로 나누어 만나고 각각의 요구를 잘 파악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봄 →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했다면, 논의의 방향이 너무 방대해지거나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그다음 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고 보았음
 - (플랫폼으로서의 거점의 역할과의 균형) 중구의 경우 '충무 아트홀'이라는 공간을 거점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내부적인 미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함께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동시에 모두를 활성화 시키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단계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상황에 맞는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광역센터나 중앙에서만 주도한다면, 아카데미 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될 수도 있다고 봄. 중구에는 자치구의 이해도에 따른 상황, 대상의 역량에 맞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주체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매칭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 → 여기서 행정가들이 예술가와 예술교육자와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의 다른 지점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의 의미를 짚어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역량강화로 볼 수도 있겠단 생각

○ 기초거점 사업의 목표 및 방향

- 사업 취지
 - (추진목표) 2년여 간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점은 추후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경험을 축적할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또한, 누군가가 주체로서 활동하려면 해당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절대 할 수 없는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거는'작업이 중요한 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함
 - (사업의 지속을 위한 장치 마련) 중앙에서 기초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보해줄 수 있는 시간 자체는 한정적이겠으나, 지방 이양 후 광역에서 사업 개편이나 기초와의 협력 구조를 고민할 때 사업을 거쳤던 주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쪽으로 추진하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고 봄 → 거점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부딪치며 경험을 쌓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한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임
- 향후 사업의 방향성
 - (지역화의 흐름) 거점사업 추진 시 광역센터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 연계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광역의 역할이 막중해진 상황이므로, 이후 중앙의 개입이 줄어들고 몇 년이 더 지나면 전체적으로 기초의 결정권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에서 탄탄한 논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광역과 중앙은 설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기초거점 사업이 중요함

- (타사업과의 연계) 기초거점 사업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문화예술교육적인 콘텐츠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른 분야와의 연계지점을 고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단, 이때 문화예술교육으로 접근 시 생기는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를 어떻게 기초거점 사업으로 잘 포장하고 강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함
→ 문화도시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기초거점의 경우에도 분리시키려 하지 말고, 문화예술교육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지역에서 독보적인 영역으로 가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음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의견 공유

- 기존 지역주체와의 관계 관련
 - 지역에 기초거점의 역할을 하는 재단이 새로 생겼을 때, 지역 안의 유사영역에서 이미 활동을 해왔던 주체들(ex: 문예회관, 문화원 등)과의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기존에 있는 오래된 문화주체들과 어떻게 무난하게 같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중임
→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중구의 경우 문화원의 역할이 지방에 비해 적고, 또 다르기 때문에 재단과의 비교나 경쟁은 없음
→ 단, 여기서 재단에 바라는 요구(ex: 미술협회, 예총의 경우 충무아트홀 갤러리에서 1년에 한두 번 전시를 하고자 함)가 일부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임
- 지역에 맞는 계획수립 관련
 - 지역색은 자원이 아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로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함. 현재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을지로 등에 시각예술을 전공하는 예술가들이 많고, 개별작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적 결속력이 떨어지고 활동에 대한 요구점이 많지 않음 → 따라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형성하기보다는, 이러한 중구의 현실과 형성 과정 자체를 남기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함
→ 기초거점 사업을 설명할 때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이 단순 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거점이 꼭 재단일 필요는 없으나,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데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재단이기도 하다고 봄

• 다른 영역에 있는 자원간의 협력

-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원을 발굴하여 인터뷰하고 활동보고서를 쓰고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함.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청년예술가들이 이후에도 ArtZit(아트지트)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음
→ 다른 영역에 있는 예술가와 주민이 협력하고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참여했던 사람들이 남아 사업의 씨앗이 됨



④ 성남문화재단

□ 개요

- 일시/장소: 2021. 11. 30.(금) 14:00~16:00 / 성남 꿈꾸는예술터 3층 통합랩
- 참석자: 성남문화재단 직원, 문화예술교육센터 전임강사, 교육진흥원(허윤정 팀장) 등
- 논의내용: 2022년 이후 문화환경 변화와 문화예술교육(중앙정부와 기초단위 지역협력현황과 미래)

□ 현장 논의내용

○ 자치분권 정책의 흐름

- 국정목표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자치분권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 2018년 9월에 발표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이 제시되어 있음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문화비전(‘18년)에 따라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향하여 중앙의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상황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현황

-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한 국고보조금 예산 통합 개편(‘19년)
 - 기존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역 연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센터 운영비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예산으로 통합 개편되었으며, 이는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음
- 중앙 직접운영사업의 지역이관(‘19년)
 - 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던 직접 사업들의 일부는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 운영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기존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광역지자체로, 문화파출소 운영사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 이관됨
 - ‘20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로써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의 전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참여’, ‘지역사회 공동체’의 개념이 강조되는 상황임
 - 또한, ‘19년부터 지역 사업에 대한 중앙 단위의 지침은 거의 삭제되었는데, 지역의 색깔/방향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사업방식의 기존 형식의 탈피를 시도하고 있음. 단, 여기서 ‘지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이 주도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가져옴

○ 중앙-광역 단위의 변화 움직임

- 지역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정비
 - (지원법 개정) 지역 중심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준비 중
 - (조례 제/개정) 17개 광역 단위 조례 제정 완비, 기초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급물살에 따른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의 움직임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
 - 중앙의 획일적 틀이 아닌, 지역 자체적인 방식으로 기획/설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이나 광역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을 다변화하고자 함
 - 지역에 스며드는 다각적 모델(공간 거점, 광역-기초 연계, 학교-지역사회 연계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광역은 직접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제반 환경조성 비중을 강화할 예정
- 중앙-광역의 기초 거점 발굴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18년)에서 ‘기초센터’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이를 방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초센터’가 아닌, 지역 안에서 ‘거점’의 역할을 할 주체를 지역 스스로 발굴하고, 역량을 높이고, 정체성(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에의 참여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교육진흥원의 거점 발굴.지원	광역센터의 거점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부터 기초 거점 발굴(15개소) · 단편적 프로그램 실행 목적 아닌, <u>거점/플랫폼 역할</u> - 중앙/광역에서는 파악 불가한 지역 전반의 <u>심도있는 분석</u> - 지역 내 존재하는 주체들 간 필요지점 파악하고 연계하는 <u>매개의 역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u>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토대</u>가 되어줄 기초·생활권 단위 거점 발굴 · 지역화 시점에, 기초 단위 역량 있는 거점 필요성 체감, 점차 확대 추세 · 도/광역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

- 기초를 포괄하기 위한 움직임
 - (지역계획 수립) 1차 지역계획('18-'22)과 달리, 차기 지역계획('23-'27)은 지역 내 담론 형성, 기초·현장 주체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단순히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추진방식의 설계 과정에서도 지역 내 협의의 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초 단위에서의 방향성

-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흐름 감지
 -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하더라도, 지역을 넘어선 다른 지역들, 즉 정책 전반의 변화의 흐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자치분권 2.0 시대) 복지, 교육,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수요, 협치, 거버넌스를 필수로 하는 정책적 흐름이 있음(ex: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혁신활성화지원사업 등)
- 기초/생활권 단위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
 - 왜 중앙/광역이 아닌 '기초'단위의 정책을 강조하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지역현황 분석, 사업의 기획/운영, 연구/개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중앙이나 광역도 충분히 가능한 접근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함
 - 기초 단위 전략의 장점/메리트는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떠올려야 함
- '우리 지역'의 지난한 과정의 훈련 필요
 - (다른 정책, 하나의 목표) 지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어떠한 논의의 과정을 거쳤는지, 목표와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떠올려야 함
 -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일은 단번에는 불가능함. 많이 부딪쳐보아야 '지역'만의 노하우가 가능하며,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예산/조직/활동가 등)의 한계, 갈등의 유형과 수위, 서로 다른 욕망을 연계하는 유연함 등이 필요함
- 가장 소중한 자원'은 '해볼 수 있는 기회'
 - 지역화 시대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설계 과정을 오픈형으로 추진하는 개방적·참여형 과정에 대한

연습이 많이 축적된 지역일수록 부각될 것임

→ 지금 당장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함. 한 명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방식으로는 노하우 축적에 한계가 있을 것임

[관계자 간 의견공유를 통해 서로의 필요지점 연결하기]

— 권역별 관계자 회의(광역센터)

1) 광주·전남권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10. 20.(수) 10:30~12:00, 광주 미로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대표, 조다운 담당자 / 광주 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관장, 박우주 팀장, 김희승 코디네이터 / 교육문화공동체 결 박시훈 대표, 김유정 담당자
 - (광역센터)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수재 주임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 현장 논의내용

○ 주체별 핵심개념 및 추진현황 등 공유

- 교육문화공동체 결
 - (사업목표) 광역에서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고 기초 단위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의 필요성과 역할을 인지함
 - (지역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광주 동구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단체들과 만나서 이야기 중이며, 용역을 활용하여 별도의 실태조사도 진행 중임
 - 학교문화예술교육(혁신학교), 공동체 사업(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사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 만나 서로의 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 지점들을 들여다보고 정리하기 위한 간담회 진행
 - (광주 동구 지역의 특화지점) 동구가 정책적으로 표방하는 ‘인문도시’와 연결한 사업, 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과 기술’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고려지점 등 지역 안에서 거점주체가 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 고민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며 방향을 찾는 단계
 - (구청과의 연계 및 소통) 미로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간인데, 미로센터에서 예술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제안을 수락하여 현재 공간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음

• 광주북구문화의집

- (사업 목표) 기존 예술강사 제도와 같이 중앙이나 광역에서 끌어오는 게 아닌 우리 동네,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를 스스로 발굴하고 만들겠다는 컨셉과 목표로 ‘북구만의 예술강사 제도’로서 준비하고 있음
- (사업 현황) 작년에 이어 ‘옆집예술선생’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임. 올해는 6개의 주제를 설정하여 활동처를 발굴하고 멘토/코디네이터/예술선생이 그룹을 이루어 활동해나가는 연구모임 격의 6개 거버넌스 운영중
 - 옆집예술선생님 2-3인이 그룹마다 모여서, 각 주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실행할 활동처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진행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활동. 더불어, 이를 돕기 위한 학교/지자체/교육지원청/평생교육 등 각 분과별 위원을 섭외하고 ‘북구예술배움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거버넌스가 지역 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지리산씨협동조합

- (사업 목표) 작은 지역/농촌 지역으로서의 기초거점 모델로서, 지역 내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교육자치/문화자치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직접 인식하고, 실질적인 실행까지 고민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 현황) 2020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FGI와 라운드테이블을 거치면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역량 강화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만드는 중
-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의 협업) 문화예술교육과 복지를 융합하여 들어가는 활동 /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과 마을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매개하여 서로의 분야 활동의 질을 높여나가는 과정 등
-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간 조성)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 결합하여 문화예술교육/마을교육/미래교육이 융합된 형태의 공간을 조성 중임
 - 해당 공간에서 지역의 콘텐츠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중임
- (조례 제정 관련)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고자 했으나,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잠시 대기 상태임

→ 하반기에 분야별 워크숍과 대토론회 진행 후 지역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과 필요성에 대한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선거 이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견을 공유 중임

○ 전남센터 문화지소 사례 소개

• 문화지소 사업 추진경과 및 주요방향

- (사업의 시작) 전남은 5개 시와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단위에는 활동가 또는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을 시행해본 적이 없는 지역이 많았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같이 문화로 활동할 수 있는 지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모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장흥과 담양에서 문화지소 사업을 시작함
→ 장흥과 담양의 1차년도 사업은 사람 문제로 지속되지 못했음. 지속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모델링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지자체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을 몰랐다는 점이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남
- (지속성을 위한 조건) 첫번째는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담당자)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지자체 협력을 통한 예산 및 공간 확보, 세번째는 지속성에 대한 담보,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이라는 네가지 조건을 도출함
- (사람) 지속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설계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문화지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패가 결정될 것임
- (예산) 시범사업 이후 2차년도부터 예산을 군과 1대 1로 매칭하기 위해 직접 담당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군청 관계자분들을 모두 찾아뵙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그 결과 고흥/무안/신안/해남 4개 군이 예산 매칭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었고,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예산 외에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에 요청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지소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음
→ 예산 매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함
- (지속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속성 부분을 담보해야 함. 문화지소의 경우 평가 과정이 있긴 했으나, 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3년 연속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연차별로 과업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업 외에는 문화지소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정) 예산과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3년 중 마지막 해의 최종 과업이 조례를 만드는 것임. 문화지소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기본적인 안을 군에 전달하고 이에 맞춘 절차를 진행 중임

•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 문화지소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실질적인 운영은 단체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고, 운영단체란 곧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중요. 보통은 선발 과정을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했으나, 단체 선발에 대한 권한의 일정부문을 군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개소식’을 추진하여 군수님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중요성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 군과 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 사이에서 각 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이 중간자로서 재단(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봄

○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및 협력구조

•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조례가 있어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텐데, 현재는 이전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임
- 구례 지역에서도 올해 조례를 추진하다 문화예술교육만으로는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평생교육 등 타분야와 통합해서 설계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 중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인식이나 이해도는 높아졌으나, 사회복지/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문화예술교육이 보이지 않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봄
→ 결국에는 생태계라는 것도 지역의 정치/자치와 연결될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이 과정에서 광역에서 지역마다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거나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 지방이양 상황 이후의 광역의 역할 변화

- 지방 이양의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고민하던 정책 기획의 역할 등이 자동적으로 광역의 역할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임. 즉, 광역에서

과거보다 지역 전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광역의 예산범위 중 기초나 생활권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광역과 기초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봄

- 지방 이양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을 광역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은 위기이면서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기초거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
 -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광역센터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는 형태였지만,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형으로 자원 등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도 차원과는 설계가 달라져야 할 듯함. 광역시 내에 존재하는 자치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광역센터보다는 광역시가 움직여야 함
- 이전에는 중앙에서 보편성에 대해 고민했다면, 이제는 광역 단위에서 광역 내의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봄
 - 향후에는 광역센터가 직접적인 실행보다는 광역 내에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할이라든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이를 통해 기초 단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임

● 광역센터 역할 명확화를 위한 중앙 차원에서의 장치 마련

- 지방 이양으로 인해 광역이 직접 실행을 덜하게 됨으로써 광역이 기초를 두루두루 살피고 현황을 파악하여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우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향후 중앙이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권한 자체가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간섭할 수는 없으나, 각 지자체의 열악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원을 고민 중임(ex: 위원회 등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채널 마련 등)
- 지방 이양으로 인해 지역 내의 주요 행정인사 및 기관들에 의해 예산이 관리 및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도 같이 풀어야 하는 상황임. 지방비가 내려오면 재단에서는 행정인사 및 기관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재단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와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문서로 명시화하거나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초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봄

- 광역센터도 조직이다 보니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순환되는 구조. 독립적인 지위와 영역을 부여하고 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한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현재 광역센터의 역할이 지원법 상에서도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음. 향후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초지자체 등 기초 단위와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원법 상에 명시하거나,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할 것



2) 충청권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11. 1.(월) 15:00~18:00, 아트센터고마 3층 회의실
- 참석자
 - (거점주체) 공주문화재단 김세진 팀장, 서광 주임, 조해주 차장, 조진선 차장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백인석 팀장, 심맑음 선임
 - (광역센터)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선옥 팀장,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영주 팀장
 - (진흥원) 지역협력팀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기초거점주체 사업 컨셉 및 현황 공유

- 공주문화재단
 - (재단 사업현황) 1년 전 재단 설립 시, 지역예술계에 문화원/예총/평생교육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도록 사업과 프로그램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공주문화재단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선포하였음
 - 강북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장르와 인문학이 결합된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아트센터 고마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임. 코로나로 인해 현재 실시 중인 프로그램들을 온라인 형태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며, 9월~10월에는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유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캠프 형태로 진행함
 - (협력구조 현황) 재단 설립이 되자마자 문화도시에 선정, 재단이 문화도시 자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협의체 구성됨. 문화도시 협의체 외 문화예술교육 협의체와 지역에는 문화원/예총/민예총/지역 예술인/생활문화/유관기관/교육청/공주시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협의체를 위원회로 확장하기 위한 준비 중으로, 공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관을 상대하기 위해 법령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는 워킹그룹도 만들고 있으며,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협의체와 시나 교육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것이 목표
 - (기초거점 사업 목표) 기초 단위에서 나아가 읍·면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신청을 받았고, 읍·면 단위 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어떤 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간을

선정한 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기획) 집담회 형태로 지역민들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중임
-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업)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에 문화예술교육을 접목시켜서 생애주기별 형태의 컨셉으로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체험 연계 프로그램) 생활문화 형태의 폴리마켓 ‘감영길 예술시장’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판매 및 체험을 진행, 감상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감체험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북생활문화센터 체험 프로그램들 등 모두 호응도와 효과가 높음
- (지역작가-외부작가의 협력) 장르중심형 예술교육 진행 시 미술에서도 회화에만 치중되어 있던 것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작가와 외부작가의 협업을 통해 현대미술 기획전시와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등 진행
 - 지역예술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는 결국 고유사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함. 지역이라는 틀에 고정돼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만 고집하다 보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의 융합/콜라보 등을 추진할 예정
- (협의체 중심의 모델 개발) 현재 공주의 협의체 구조는 지역 내 예술인과 문화예술교육가,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서로 연계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기존에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하던 단체들의 경우 프로그램을 크게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재단에서 생각하는 개발/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작가와 수혜자의 입장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임
 - 따라서 협의체를 통해 축을 만들고, 이후 재단에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연구자/프로듀서의 역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
- (인력양성 필요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진행할 때 공주 내 인력풀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 인력을 양성·발굴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내년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외부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사업 현황) '100인의 기획단'을 컨셉으로 청주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관련 사업을 구상해보는 작업으로 시작.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소한 동네문제 해결단'을 운영하면서 각 활동가들이 본인의 동네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임

→ 총 20팀이 접수하고 총 7개팀을 시민들이 직접 뽑아서 12월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해결을 위해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퍼실리테이터가 투입되어 방향성을 다시 잡아주는 방향으로 지원 중임

- (기초거점 사업 목표) 기존 단위사업을 넘어 "생활권에 새로운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지점은 1)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 2) 원도심과 구도심 간에 문화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임.

→ '소동단'을 통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새로운 활동자들도 발굴되어 기초거점 사업에 합류 중임. 이후에는 기초거점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도 같이 할 수 있을만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계속 활동하고 뻗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함

→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문화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고민 중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초단위 보다 더 작은 생활권 단위로 들어가 새로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발견

- (지역 내 인력풀의 한계) 충북 내 대다수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단체들이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청주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나 활동 진행 시 인력풀이 많이 중복되어 새로운 인력을 발견하거나 발굴하기 어려웠음

→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람, 활동, 아이디어들을 지역 내의 다른 사업들과 연결시켜주는 중간역할을 할 예정. 교육청 마을문화학교/ 문화도시사업 등과 연계하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다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연결/확장 또는 정리해서 내년에 사업의 단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 중

○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현황

•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충북문화재단)

- (사업 현황) 기초가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이라면 광역은 지원을 해주는 지원구조의 성격이 강하고, 충북문화재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지원사업 운영이 대다수였음
- (거점사업 현황) 광역센터로서 지원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2019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지원,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거점사업을 진행 중임
→ 한 개의 단체가 4년간 지원을 받는 구조이며, 올해는 단순 지원이 아닌 다양한 개발·연구 프로그램, 인력개발이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민간거점 체계를 만들고자 함
- (헬로우아트랩 사업) 지역 안에서 꿈다락/유아/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향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이전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임
→ 민간거점과 헬로우아트랩 사업을 함께 실험 사업으로 묶어서 새로운 인력/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생성하며 지역 내 단체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지원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함
- (고민지점) 충북에서 양성한 인력을 기초에 어떻게 연결해줄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의 공존에 대한 이슈들도 고민임

•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충남문화재단)

- (사업현황) 문화예술교육 '지방이양' 이슈가 대두되면서 충남 지역에서는 최근에서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방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음. 이전에는 지역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고민할 기회 없이 광역 안에서도 중앙의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기 바빴던 감이 있었으며, 2019년 기반구축 사업이 생기면서 광역 단위의 '플랫폼'으로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마련하기 시작함. 15개 시·군에 분포되어있는 지역의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단체·기관과 네트워킹/교류를 진행하며 사업추진 중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역재단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관점들이 싹트고 있으나, 아직 지역의 인식 속도가 정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더불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이전의 고민이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지점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고민지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분권에 맞춰 광역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꿈다락/지특으로 대표되는 지역 지원사업을 어떻게 지역으로 이관하고 광역이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현장/생활권 단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음. 그러나, 재단 내부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제한이 많은 상황임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나 담론을 통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나와도 실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문화예술교육만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하는 전문가가 없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겸업으로 하는 생계의 보조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임.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 없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육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위기임
-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개념 연계 및 협력) 두 개념을 떨어뜨려놓고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괴리가 생길 수 있으며,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올바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기초단위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역할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인지, 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공간/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의 역할

- 기초거점 사업 필요성 확산
 -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생활문화나 도시재생 등 다양한 관점들로 봤을 때 그 자체로 어떻게 자생하고 행정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지 설득해야 한다고 봄. 향유자 수 등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기초 거점처럼 연구 중심의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 기초거점 사업의 주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외부적인 관점으로 조직 자체의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 안에서 주체들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했으면 함

- 또한, 광역의 경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하여 현재 재단의 팀 내에 센터가 있는 구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힘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내부 조직을 넘어 지역 내 주체로서의 위상을 단단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봄
- 유관기관과 협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득을 위해서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및 거점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함. 중앙-광역-기초가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기초거점 사업이 지역 발전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는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방향 설정

-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하면 인력, 공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부족한 지점이 드러남. 충북의 경우도 공간 자체가 없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앙 차원에서 사업 구조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보다 실질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
- 지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원금을 많이 주는 등 활동가들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음. 이와 더불어, 문화도시 사업 등에 선발되지 못한 활동가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로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 생활문화 등 유사 개념과의 차별성 논의

- 생활문화는 단순히 예술이라는 기능을 동호인들에게 알려주는 성격이 강하나, 예술교육은 전반적인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향유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예술에 대해 안내하는 의미가 크다고 봄
- 예술활동이 예술의 영감의 자료가 된다는 점, 더불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생활문화 개념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함. 단,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봄

- 평생교육 분야와 비교해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는 좀 더 새로운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봄. 더불어, 청년 기획자들은 소소하게 본인들이 하는 요소들을 발휘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매력적인 형태의 지원들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3) 경상권

□ 개요

- 일시 · 장소: 2021. 11. 6.(토) 16:00~17:30, 포항 건빵제조소/커피 인스
- 참석자
 - (거점주체) 밀양문화재단 조예나PD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김평수 센터장, 최희웅 담당자, 이정연 담당자 / 포항문화재단 이주행 팀장, 홍채연 담당자, 이해지 코디네이터
 - (진흥원) 지역협력팀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주체별 핵심개념 및 추진현황 등 공유

- 포항문화재단
 - (핵심 사업방향) 포항 내 각 지역마다 있는 이슈(예: 생태, 청년인력 부족 등)를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해 나가고자 함. 이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체, 자원들을 매칭하는 역할을 재단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러한 방식으로 작은 ‘점’을 찍어나가며 거점을 만들고, 후에는 거점끼리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 형태로 하여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보고자 함. 최대의 목표는 ‘네트워크 형성’
 - (흥해 웃음소리 프로젝트) 처음에는 지진이라는 재난 이슈를 가지고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가져가고자 했으나, 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조사를 하면서 단순히 지진 트라우마나 치유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불신이 생겼고,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음. 지진이라는 이슈 자체를 다시 꺼내는 것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슈나 프로젝트들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대한 직접적으로 이슈를 꺼내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마을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지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였고, 이때 재단과 밀접하게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됨
 - 흥해 웃음소리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마을활동가/시민/재단이 함께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후에도 거점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 여기서 기초거점의 역할은 계속 매개하는 것을 깨달았음

- (아트테크 프로젝트) 포스텍과 협업을 통해 지역 아트테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12월 초에 포럼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전시하는 형태로 성과를 공유할 예정임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기초거점 사업 목표) 현재 북구 지역은 창작자와 콘텐츠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유통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컨셉을 바탕으로 기초거점을 통해서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자 함.
‘나루터’로서 물류와 사람의 집산지 역할을 했던 ‘매개공간’을 컨셉으로, 권역별로 뿌려져있는 점들을 하나로 매개할 수 있는 ‘이음선’을 북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함
→ 주민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한 ‘문화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작년부터 구축해온 DB를 활용하고, 북구 내 60개 이상의 공동체와 약 70개 정도의 생활문화동아리 등의 자원도 적극 활용하고 가공하려는 계획이 있음
- (핵심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인 탈장르화/탈극장/탈경계 등을 적용하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들을 거점으로 주민들과 예술인이 만나서 단순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임
- (예술반상회 사업) 북구 내 5개 권역 간 취약점/장단점을 바탕으로 한 온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
- (꽃 씨앗심기)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들과 예술가들이 커뮤니티 형성
- (예술꽃 물들이기) 지역예술인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 지역 특성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또한, 지역 내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이들이 가진 역량을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내부로 환원시키는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사업이 필요함. 이때, 지역의 예술가들은 지역 현황이나 문제점 등 의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해체하고 재해석하고 재구성, 확산시키는 역할임

• 밀양문화재단

- (지역 현황) 지역 내에 청년층 인구가 없고, 인프라도 적어서 기초거점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다 보니 중복사업의 형태도 많고, 활동가도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또한, 문화도시사업 안에 있는 활동가들과는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역량이나 임금의 문제에서도 의견 차이나 갈등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대다수가 생활문화의 경계에 있는 예술인인데 문화예술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위한 많은 이해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했고, 느리지만 단단하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에 있음. 올해는 거점에서 꾸준히 함께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집중할 예정

○ 향후 사업 추진방향 관련 의견공유

• 타 사업과의 연계점 마련

- 타기관이나 타영역과 너무 구분하려 하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업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올해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을 문화도시에서 연결해주어서, 연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재단의 입장에서는 지역 내 문화도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하였고, 문화도시의 입장에서도 기초거점이 소스를 제공하고 협업하여 거버넌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각각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었음
→ 초반에 협업하려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사례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방향을 변경함. 사례를 통해 이야기할 때도 함께 고민했던 활동가, 주민 등과 함께 움직여서 설득해나가는 방식을 세우고 있음
- 밀양문화재단의 경우 본래 사업들이 밀양아리나 축제 운영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꿈꾸는 예술터 등을 계기로 ‘문화교육팀’이 생기고 관련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임. 지금까지는 문화도시 파트와도 교류를 시도하지 않았으나, 추후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예정
- 어떤 사업에서든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라고 생각. 이를 위해 사람/공간/콘텐츠에 대해 어떤 자원들이 있고 무엇이 활성화 되어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야 한다고 봄

- 지역 내 활동할 수 있는 인력 발굴 및 기관과의 협력
 -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은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접점이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초거점이 추구하는 방향과 결이 맞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을 찾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음
 -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너무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한정 짓지 않고 여러 곳으로 열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음.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을 너무 초조해하지 않고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찾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진행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부산 북구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인들이 많은데, 여기서 리더 격인 분들을 예술인들과 매칭하면 충분히 예술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봄.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의 영역 구분이나 인력 양성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럽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았든 어떤 활동을 했던 간에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티스트’라는 관점으로 예술인과 일반시민을 구분 짓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중간 인력들이 다수 양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거점의 참여 주체들을 구분하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단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생활문화 개념과의 연계/차별지점
 - 이전에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컨슈머였다면, 현재는 문화예술을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 쪽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음.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활동하는 과정 안에서 교육적 가치를 수행하면서, 결과물도 반드시 특별한 게 아닌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거점에서 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 지역 내 주체들은 문화예술교육자이자, 지역문화 활동가이자, 생활문화 기획자라고 보기 때문에 각 방향성을 고민하기는 해야겠으나, 결국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음. 단,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다양성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좀 더 사회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봄
 - ‘문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두 개념이 같다고 봄. 크게 생각한다면 지역의 결핍된 부분을 문화예술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임

- 기초거점 지속을 위해 필요한 부분
 - 중앙차원에서의 네트워크가 추진이나 연대가 가능한 자리가 마련되면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지자체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고 하는 담론적인 부분들은 중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 중임.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과도 역할 분담이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4) 전북권

□ 개요

- 일시/장소: 2021. 11. 9.(화) 15:00~18:00 / 복합문화지구 누에
- 참석자
 - (지역) 복합문화지구 누에 김진아 팀장, 최지연 담당자 / 전주문화재단 김주희 팀장, 심민정 주임 /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이서하 대표, 박광현 팀장, 배병희 팀장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찬영 팀장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현장 논의내용

○ 주체별 핵심개념 및 추진현황 등 공유

- 복합문화지구 누에
 - (사업현황) 마을 거점을 발굴하고 거점들이 스스로 기획력을 키워 지역을 들여다보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목표
 - (마을거점 사업) 마을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들과 연결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초거점 사업에 함께 한 4개의 마을 중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 성과를 내거나 성장을 예측했던 곳은 정체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네트워크 간담회를 진행해도 진척이 없다 느껴지는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지치기도 함
→ 결과물이 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신규 마을을 발굴해서 실적을 늘리는 것은 내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거점들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방향을 변경함
→ 전문예술가, 전문인력이 도와주고 컨설팅하는 부분에서도 주체들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주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해는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 중
 - (조례제정 관련) 올해 목표 중 하나였던 조례 제정을 위한 착수 역시, 과부하를 우려하여 내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 완주문화재단 정책팀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 도움을 요청하였고 누에가 함께 참여할 예정
 - (매개자 양성 교육) 누에연구소 컨설팅 등을 통해 예술가 위주가 아닌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기획자까지 매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 중임
→ 현재 1차 교육이 종료되었고, 내년 심화 교육도 고려 중
 - (고민지점) 기초거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에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왜 민간과 경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나 반응이 많았음. 또한, 꿈다락 사업에 지원해서 협력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예술강사 풀이 아닌 마을의 활동가나 꿈다락 사업에 참여한 적 없는 예술가들로 팀을 꾸렸으나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반응
→ 기초거점 사업은 틀을 깨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기존의 틀에 맞춰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있어서 아직 ‘기초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음

• 전주문화재단

- (사업방향) 전주는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해온 문화예술교육을 생활권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임. 지역별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주에서 하고자 하는 예술교육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고자 문화예술교육 반사회라는 구조 등을 만들면서 예술인들과 같이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임
→ 그동안의 예술교육이 프로그램화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학습하고 교수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주의 예술교육의 상을 만들고자 함
→ 1년차에는 사람, 2년차에는 공간, 3년차에는 콘텐츠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단계이며, 이를 모아 자원지도를 만드는 작업 완성 예정
→ 그 과정에서 민간에서 쓰는 용어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을 설득할 때 쓰는 용어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상에 따라 설득하기 위한 용어와 이야기를 달리 적용해나가게 됨
- (고민지점) 지역 안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전문성 확보 관련) 팔복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험을 기획해 왔지만 대상에 대한 전문성은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전문성 확보에 있어선 지역 대학의 아동학과와 같이 전문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봄
- (예술가와의 협력) 예술가와의 협력은 필수이므로 예술가가 필요한 부분을 재단에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인지
→ 지역 내 예술단체는 예술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사업 등의 공모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방법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예술가를 위한 지원에 계속해서 집중하고자 함

- (예산확보 관련) 재단이 국비로 받은 예산에 대해 전주시에서 1:1 지자체비 매칭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활권 개인 공모 진행 중임
 - 강사비 기준을 정하지 않고, 미정산 지원을 하는 시도를 통해 참여 주체 본인이 직접 예산에서부터 기획하여 예술교육을 진행하며 예술교육에 대한 목마름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재단 내의 인식변화) 재단 내에서도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하고 어떻게든 작은 성과라도 보여주어야, 조직 안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고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봄
-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 (사업현황) 장수의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중임. 장수 지역의 특성상 인구가 적고 예술인, 문화기획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며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장수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함께 협력하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도서관과 학교까지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고, 장수 지역 각 학교에 찾아가 교장, 문화예술교육 담당 교사와 만나고 있음. 그중 지역 내에서 가장 작은 학교 중의 하나인 동화분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잘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 오히려 좁은 시야였음을 알게 됨
 - (고민지점) 장수에 있는 기관과 단체 모두 콘텐츠와 인력이 부족하여 매번 했던 교육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전북 지역의 강사 인력 네트워크가 부족하니,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지 문의가 오기도 하고, 역량강화에 대한 욕구가 컸음
 - 새로운 사업 담당자를 영입함으로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진행하는 등 2트랙으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다양한 관계자들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사업을 통해 서로 간에 자격검증을 하기도 하고, 그간 꺼내지 못했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희망적인 분위기로 보임
 - (향후계획) 농번기가 끝나고 지역민들이 본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계획 논의 중
 - 역량강화 프로그램, 워크숍과 같은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처럼 모일 수 있는 자리로 하여 7개 면에 작은 거점들로 하나씩 조성하고자 계획 중

- 광역 차원에서의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향 공유
 - (추진방향) 내년 이후 지방이양이 진행되면 기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목적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업방향 보완
 - 결과적으로는 기초 지자체나 기초 단체, 그다음 문화예술교육 실행 주체들을 광역재단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육성하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봄
 - (소외지역 관련) 전라북도의 총 14개 시·군 중 문화재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소외된 지역들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 내 공동체 간에 광역센터로서의 지원과 역할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
 - (조례제정 관련)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함. 광역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관련 포럼, 관련된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 등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 논의
 - 지속적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 간 협력의 필요성
 - 기초거점의 작동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현재 거점주체들이 다소 대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음. 또한, 함께 실험과 평가를 반복하며 검증을 받았음에도 중앙과 광역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설득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우려
 -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인 의도하에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봄. 기초 단위의 사업들이 보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설득하여 별도의 추가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내년부터 기초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강조할 예정이나, 그간의 구조를 바꾸려면 설득을 위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임
 - 향후 지원방식에 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봄. 자칫 형평성을 핑계로 모든 주체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그간 쌓아온 방향성이 흐트러지거나,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 기타 기초거점의 지속적인 운영 관련 논의
 - 가치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결과물로 딱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적인 협력 체계가 생긴다면 결과가 남을 수 있다고 봄

→ 앞으로 기초 단위에서의 고민과 관련한 자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답론화 과정에 대한 귀한 자료들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봄
- 다양한 기반 마련과 더불어, 광역 단위에서 지역협력위원회가 존재하듯이,
기초 단위의 현황과 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봄



[2022년] '지속가능성'을 준비하기

변화 속에서 이어가기 위한 준비하기

: 2년차 거점주체 대상 사전컨설팅

우리 지역만의 경험을 쌓기 위해 준비하기

: 신규 거점주체 현장방문/컨설팅

협력을 통해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기

: 권역별 관계자 회의

chapter 4.
Above the ground

[2022년. '지속가능성'을 준비하기
— 주요방향

□ 2년차 거점주체 대상 사전 컨설팅

- 목적 : 21년 평가 이후 거점주체별 계획 보완 및 방향성 협의를 위한 사전논의
- 운영주체 : 22년 사업계획 핵심 방향 및 지역별 추진현황 / 고민지점 공유
- 운영방식 : 온라인 회의 및 현장방문(21년 평가 결과에 따른 전문가 매칭)
- 주체별 일정 및 방향

주체명	주요 키워드 및 방향	일정/장소
중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기반(제도 등) 고민 • 자치구 내 자생적 기반에 대한 전략 필요 	3.16.(수) 14:00 /온라인
부산문화예술 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관점 수립 • 지역사회 이슈 분석 및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한 혁신형 프로그램 개발 	3.17.(목) 11:00 /온라인
교육문화공동체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 • 지역에 대한 분석에 따른 사업방향 수립 • 민간 협력의 선도적 모델 구축 	3.21.(월) 10:30 /미로센터 (*현장)
장수문화예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 범위 설정 • 지역 내 구성원 간 비전공유 및 역할논의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 	3.21.(월) 15:00 /문화마실 (*현장)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체 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 • 장기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 • 예술강사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체화 	3.22.(화) 18:00 /온라인
공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 사업 목표를 고려한 운영체계 • 실질적 협력구조를 바탕으로 한 사업방향 • 연대조직을 기반으로 한 타사업과의 연계 	3.28.(월) 15:00 /온라인
밀양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으로서의 장기적 목표/방향 수립 • 지역 내 주체들과의 협력 • 유사 사업 간 구분/연관성 고민 	4.14.(목) 15:00 /온라인

□ 신규 거점주체 현장방문/컨설팅

- 목적 : '22년 사업선정 이후 주체별 계획 보완 및 방향성 협의를 위한 사전논의
- 운영주체 : '22년 사업계획 핵심 방향 및 지역별 추진현황 / 고민 지점 공유
- 운영방식 : 현장방문 및 관계자회의(심사 결과에 따른 전문가 매칭)
- 주체별 일정 및 방향

유형	참석대상	주요 키워드 및 방향	일정
개별 현장방문/ 컨설팅 *1년차 중심	원주문화재단 +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사업 '22년 추진방향 공유 (최치만 소장) 	7.19(화) 14:00
	대덕문화원 (*협력주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 사업 '22년 추진방향 공유 	8.3(수) 10:00
	영도문화도시센터 +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 및 공간 운영방안 (김혁진 연구위원) 	8.12(금) 10:00
	연수문화재단 (*담당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 사업 '22년 추진방향 공유 	8.31(수) 16:00
	순한곳 제주 +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방향 및 주안점 공유 (임학순 교수) 	9.14(수) 14:00

□ 권역별 관계자 회의(광역센터)

- 목적 : '22년 사업선정 이후 주체별 계획 보완 및 방향성 협의를 위한 사전논의
- 운영주체 : '22년 사업계획 핵심 방향 및 지역별 추진현황 / 고민 지점 공유
- 운영방식 : 현장방문 및 관계자회의
- 주체별 일정 및 방향

유형	참석대상	주요 키워드 및 방향	일정
권역별 워크숍 (관계자 회의) *1,2,3년차 연계	금천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 서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 사업 '22년 추진 방향 공유 • 광역센터 현황 및 협력방안 공유 	8.10(수) 15:00
	부산문화예술 교육연합회 + 부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 사업 '22년 추진 방향 공유 • 광역센터 현황 및 협력방안 공유 	8.22(월) 14:00
	교육문화공동체 결, 광주북구문화의집 + 광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내/외 조직 간 행정적 협력방안 논의 • 광주센터 거점 사업과의 협업/연계 고민 	8.23(화) 10:30
	지리산씨협동조합, 문화감 창 + 전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내/외 조직 간 행정적 협력방안 논의 • 전남센터 관련 사업과의 협업/연계 고민 	9.28(수) 15:00

[변화 속에서 이어가기 위한 준비하기]

— 거점주체 컨설팅 및 지역별 회의 주요 내용

1) 사전 컨설팅

① 중구문화재단

□ 개요

- 일시/장소 : 2022. 3. 16.(수) 14:00~16:00 / 온라인 줌회의실
- 참석자
 - (거점주체) 중구문화재단 김은숙 팀장, 이지혜 담당자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원혜정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기존에 제시한 연구, 네트워크, 콘텐츠(프로그램) 계획에 추가로 지속가능 기반(제도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평생교육 관련 조례 등 기존 조례에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는 방법, 중구문화재단 정관 업무영역에 문화예술교육을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방법 등이 존재함
- ① 재단이 직접 주도, ② 플랫폼 연계, ③ 민간 지원 3가지 역할 모델에 맞춰 세부사업 설정 필요
- 3년 지원 이후 자치구 내 자생적 기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로드맵 설계 필요
- 사업별 세부 보완 의견
 - (연구형 지원모델 개발 관련) 을지로라는 장소성 기반으로 하되, 작가 한 사람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랩을 만들어야 함. ①을지로라는 장소 중심으로 스토리 발굴해 문화예술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연구작업, ②파일럿 운영, ③ 22년도 확산을 목표로 참여가능성 있는 지역주민 포함 네트워크 운영 프레임으로 설계 필요
 - (콘텐츠 개별형 워킹그룹 운영 관련) 예술강사들이 수요(중구청, 평생교육, 교육청 등 관련 기관)와 만나게 하고, 네트워크 통해 어떤 콘텐츠를 할 수 있을지 논의·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역량강화 등)하고 연결하는 역할 수행 필요
 - (네트워킹형 워킹그룹 운영 관련) 예술가들이 지역에 대해 계속 알아가게

하고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하게 하고, 중간중간 지역주민 대상 창작과정 참여 워크숍 등 지역과 연결해주며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어가게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역할 수행 필요

②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개요

- 일시/장소: 2022. 3. 17.(목) 11:00~13:00 / 온라인 줌회의실
- 참석자
 - (거점주체)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김평수 센터장, 최희웅 담당자, 박준성, 최진혁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 상지대학교 최보연 교수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원혜정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북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점이 3년 후 중앙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경로를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2차년도 사업계획에는 궁극적 방향과 경로 부재
- 맥락적 요인(지역성, 지역주민, 지역이슈)에 따른 방향설정 및 맥락적 요인에 의한 핵심요소(제도, 사람, 프로그램, 네트워킹, 내부 조직체) 기반 세부사업 설계 필요
 - ① (지역성) 2차년도 사업 맥락을 지역 분석 결과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② (지역주민) 부산연합회에서 생각한 지역주민이 누구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③ (지역이슈)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1) (제도) 북구청 기존 조례에 문화예술교육의 규정, 역할, 업무영역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2) (사람) 문화예술교육 인력이 지역을 이해하게 하고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게 하는 협업의 장, 연구의 장 만드는 것 필요
 - (3) (프로그램) 보급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깊은 의미, 가치를 지역사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혁신형 프로그램을 위한 랩(LAB), 플랫폼 등의 보급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
 - (4) (네트워킹) 1차년도에 만난 주민공동체 안에 누가 있고 기존 예술가와 어떠한 주제 통해 연결지점을 가질 수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과정에 대한 고민 필요
 - (5) (내부 조직체계) 어떤 비전을 갖고 기초거점을 운영할 것이며, 자체 평가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내부 조직체계 강화 필요
- 북구 거점모델 '플랫폼'의 정의 우선 필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자기 사업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정의 내리고 세부사업 전략과 연결해야 할 것

③ 교육문화공동체 결

□ 개요

- 일시/장소: 2022. 3. 21.(월) 10:30~12:30 / 광주 미로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광주동구청 문화관광과 천혜원 주무관, 교육문화공동체결 박시훈 대표, 김유정 담당자, 장세연 담당자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 한국문화의집협회 우지연 이사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2022년 기초거점 사업방향 논의
 -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 수립) 광주 동구 내 어떤 주제/시민/장소가 있는지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 2022년도의 구체적 모습을 구상하는 과정 필요
 - (동구라는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수립) 동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학습/진단/검토하여 함께 다음 계획을 내는 작업 고민해야 함
 - (개별 단위사업을 넘어선 전체적 방향 고려) 전체적으로 동구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로 사업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구청의 지속적 역할 고민) 3년의 사업을 통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지가 중요. 이때 동구 안의 협의 테이블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동구청)도 계속적으로 함께 만나는 과정 필요
- 민-관 협력모델 수립 방향 논의
 - (민관 협력의 선도적 모델 구축) 동구의 경우, 파트너십 경험과 단체들의 공간 등도 있을 것이므로 민-관 협력의 선도적 모델로 치고 나가도 좋을 듯
 - (기초거점의 영향력 확장) 중앙 차원에서 기초거점 사업의 존재감을 좀 더 알리고, 거점주체도 역량을 좀 더 키워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
 - (광역 단위와의 협의테이블 마련) 정책 흐름상 중앙에서 광역에 계속적으로 기초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과 역할 논의가 중요한 시점
 - (지역 안에서의 공간협력체계 구축 필요) 동구 안에서의 지역 내 공간협력체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매개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④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 개요

- 일시/장소: 2022. 3. 21.(월) 15:00~17:00 / 장안문화예술촌 문화마실
- 참석자
 - (거점주체) 장수군청 문화예술팀 이선미 팀장, 박지혜 주무관,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이서하 이사장, 신동근 총괄감독, 이승미 담당자
 - (전문가) 가톨릭대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 한국문화의집협회 우지연 이사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 실행범위 설정
 - 올해 어디까지 논의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장수군 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책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일지 고민 필요
 - 전년도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즉, 장수 문화예술교육을 구성하는 역할 및 생태계 고민 필요
- 지역 내 구성원들과의 비전 도출 및 역할 논의
 - 계획에 대해 지역 내 주체들과 함께 공유/합의하는 과정 필요. 행정 단위(군청), 지역주민 등의 주체가 모여서 다같이 논의하는 구조 필요
 - ‘지역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필요지점’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 필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
 -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3년이 끝났을 때에도 협력하여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가 나오는 것
 - 의견수렴의 차원만이 아닌 기초거점 사업에서는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같이 처음부터 협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
 - 거점주체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보다는, 지역 주체들과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역할을 나눠야 할 것

⑤ 성남문화재단

□ 개요

- 일시/장소: 2022. 3. 22.(화) 18:00~20:00 / 온라인 줌회의실
- 참석자
 - (거점주체) 성남문화재단 이상훈 부장, 박은진 과장
 - (전문가)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김혁진 연구위원, 한국문화의집협회 우지연 이사,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최보연 교수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단위 프로그램보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깊은 논의 필요
 - 네트워크가 기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면 재단과 구성원이 함께 지역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를 심도 깊게 고민했으면 함
 - 소통할 복지관/어린이집을 늘이는 방향보다는, 몇 개를 집중해서 가더라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에 더 많은 힘을 할애했으면 함
- 기초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로드맵 제시 필요
 - 당장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거시적 고민의 입장 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올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고민 필요
 - 문화예술교육 거점이라는 장기적 로드맵에서 나머지 영역과 주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 필요
- 예술강사 네트워크의 구체적 계획 필요
 - 예술강사 중심의 거점이라고 하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실체가 잘 보이지 않음
 - 지역 내 이미 구축돼 있는 자원과 예술강사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 계획 안에 좀 더 드러날 수 있어야 함
 - 지역 구성원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을 구체화할지 고민필요

⑥ 공주문화재단

□ 개요

- 일시/장소: 2022. 3. 28.(월) 15:00~17:00 / 온라인 줌회의실
- 참석자
 - (거점주체) 공주문화재단 김세진 팀장, 남정민 주임, 이진솔 교수(PM)
 -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교수, 상지대학교 최보연 교수
 - (진흥원) 지역협력팀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기초거점 사업의 목표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현재는 정책 목표가 다소 포괄적이고 불확실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공주 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임
 - 내부 구성원(공주센터, 협의체, 워킹그룹) 간 ‘지역성’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공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지형도/특성/과제들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함
 - 공주 지역의 또 다른 자원들을 어떻게 엮어서 문화예술교육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전략 필요
- 장르 중심의 교육 실행에 대한 방안 구체화 필요
 - 실험적 형태를 통해 도전하면서 향후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중장기 사업방향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 실질적 협력구조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사업방향 논의
 - 협의체에 있어 네트워킹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실질적 협의체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 감이 있음
 - 지역 내 관계자와 효율적 협업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인력양성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
- 연대 조직을 기반으로 한 지속성 확보 및 타 사업과의 연계 고민
 -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은 좋으나, 문화예술교육의 특성과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염두해야 함
 - 보다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향후 방향성 확인

⑦ 밀양문화재단

□ 개요

- 일시/장소 : 2022. 4. 14.(목) 15:00~17:00 / 온라인 줌회의실
- 참석자
 - (거점주체) 밀양문화재단 문화교육팀 박규태 팀장, 김리아 주임
 - (전문가) 모든 학교 체험학습연구소 김혁진 연구위원, 한국문화의집협회 우지연 이사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재단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비전 명확화
 - 밀양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 플랫폼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거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재설계 필요
 - 추진방향/운영체계가 프로그램 지원 및 보급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 거점이 의미하는 개념이나 정체성 요구됨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단 차원의 전략/지원체제 재검토 필요
- 3개년 흐름 안에서 사업 필요성과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선행
 -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만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그 결과로 이슈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 필요
 - 특정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실험과 시도 필요
- 지역주민에 대한 분석과 주민 참여 모델에 대한 구체화
 -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거점의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야함
 - 마을주민 외에 더욱 광범위한 주민 참여 확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업 간 목표와 연관성 논의
 - 꿈꾸는 예술터와 연계를 장점 요소로 활용하되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역자원 참여형 거점의 취지와 방향 반영 필요
 - 꿈꾸는 예술터 조성지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밀양시 전체 대상 추진 고려

[우리 지역만의 경험을 쌓기 위해 준비하기]

— 신규 거점주체 현장방문/컨설팅

1) 현장방문 컨설팅

① 원주문화재단

□ 개요

- 일정/장소: 2022. 7. 19.(화) 10:00~12:00 / 온라인 줌회의실(비대면)
- 참석자
 - (거점주체) 원주문화재단 예술진흥실 배경희 실장, ACP운영팀 김성수 팀장, 이유리 주임,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이민영 매니저
 - (전문가) 삶지대연구소 최지만 소장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운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기초거점 사업에 대한 목표 및 설정방향 공유

- 기초거점 사업 목표
 - 몇 년 전부터 원주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 없는 분야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서 이와 관련한 역량 개발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함. 특히, 다른 분야와 대비해서 원주 지역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수준이 기초적이므로, 단계별로 접근하고자 함
 - 원주 지역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상황에서 대상도 많이 겹치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재단에서 정리하고자 함
 - 현재 기초거점 사업 관련 양쪽의 이해의 편차가 있다고 보임. 1) 하나의 내용을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것인지, 2) 각자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하고, 협의하는 구조로서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단, 여기서 양쪽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한 후에 역할을 나누어야 할 것
- 기초거점 사업에서의 상호 역할에 대한 의견
 - 현재 ‘원주테이블’형태의 거버넌스 구조가 있는데, 원주문화재단이 테이블 리더를 맡고, 문화도시센터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체계를 잡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함 → 지역은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지역에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봐야하고, 지역에 대한 연구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단이 지역의 메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센터 혼자서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같이 해야 한다고 느낌

- 본래는 원주문화도시센터를 서포트 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나, 공동주체의 형태로 가져가기로 하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고민임 → 담론만 형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현실화하여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고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임

○ 향후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역할 논의

• 각자의 보다 명료한 목표 설정

- 문화도시센터는 거버넌스가 재단의 성과일지, 센터의 성과일지를 생각하지 말고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이라는 목적으로 함께 정리해야 함. 사업을 통한 모델링에 대해 너무 많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될 것 → 올해 사업을 통해 ‘원주는 문화예술교육의 과제를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실험을 해보고, 연말에는 <원주의 기초거점은 00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명료해져야 할 것

• 책임의 주체 명확화

- 전체적인 방향을 현재 단계에서 모두 합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각자의 목표지점을 세우고 사업을 일단 추진해보는 것이 수월할 것. 올해는 기초거점이라는 ‘제 3의 영역’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모아보고, 내년에 그 지점이 정리가 되면 협력주체를 늘어나고, 상호의 역할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 단, 전체적인 방향을 협의할 때, 각자가 필요한 바가 모두 배제되지 않고 담겨야 함. 자기 필요성이 없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현재의 정책적 흐름상 기초 단위의 정책 논의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이 언젠가는 필요함

• 운영적 측면에서의 소통체계 구축

- 기초거점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문화도시센터와 재단이 운영 상에서 각각 할 수 있는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함. 단적으로는 ‘총괄 지휘자’를 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통주체와 행정 담당자 등까지 명확하게 정리한 이후에 사업 실행에 있어서의 역할도 정리될 수 있을 것 → 만약 이것이 단번에 정리되기 힘들다면, 올해 사업 목표를 그러한 역할을

정리하는 것으로 둘 수도 있겠다고 봄. 기초거점 사업의 목표가 ‘원주 안에서 굵직하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주체를 찾는 것’이므로, 상호 협력 과정에서 서로간의 견제 등을 통한 갈등구조나 논의방식을 경험해볼 수도 있을 것. 각자의 역할을 설정하는 자체를 올해 원주의 기초거점 사업의 목표로 둘 수도 있겠다고 봄

② 대덕문화원

□ 개요

- 일시/장소: 2022. 8. 3.(수) 10:00~12:00 / 대덕문화원(대전 대덕구)
- 참석자
 - (거점주체) 대덕문화원 김인숙 사무국장, 차진주 담당자,
 - (협력주체)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 남명옥 대표, 공간 구석으로부터 서은덕, 마을기록연구소 그리고 최지원, 정명자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2022년 기초거점 사업 방향성 공유
 - (회의의 목적) 사업에 대한 고민과 시작점을 나누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향성과 지향점을 맞춰나가고자 함
 - (정책적 흐름) 전국 단위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기초 단위로까지 뻗어나가기 위한 전초작업이 해당 사업이라고 보면 됨
 - (사업의 취지) 첫해부터 교육 사업을 바로 추진하지 않고, 그 전에 지역 분석을 통해 진단 과제를 도출하고, 결과물로서 ‘중장기 계획’을 내야 함
- 주요 사업방향 소개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협력) 대덕이라는 지역 안에서 ‘동네 거점(사람, 공간 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 워킹그룹 및 기획단을 통해 현장에서 방향성을 잡고, 지역 주체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주체의 프로그램 및 예산을 연계/활용할 계획
 - (주민자치회와의 협력) 그간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부터 알력과 압박이 심했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서로 협력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음. 1) 대덕문화원의 전문성과 풍부한 자료, 2) 마을기록연구소의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 주민으로서의 고민, 3) 공간 구석으로부터의 지역 안에서의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단단한 동력을 통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볼 예정
- 향후 사업방향 관련 고민지점 공유
 - (구체적 사업대상에 대한 사전 설정) 지역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업임은 이해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임. 대부분의 주체들이 ‘공론화’등을 통해 새로운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되어있는 듯하나, 대덕구의 경우 ‘주민자치회’라는 구체적 대상을 설정해두고, 지역적 이슈를 찾아가고 싶은 측면이 있음
 → 주체별로 통상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 단계로 신규 그룹을 찾고 발굴하는 절차를 세우고 있는 것은 맞음. 단, 현재 지역에서 생각하는 방식(특정 대상설정)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왜/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중장기 계획 안에서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됨
 - (지역 주민의 참여/역할 범위 관련)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지역의 주체로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인지, 당장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인 것인지 고민 필요
 → 각 지역별로 목적하는 것이 어떻게/어떤 과정에서/왜/누구의 생각으로 나왔는지가 드러나야 함. 당장의 성과로서 주민을 참여시키지는 않아도 되나, 사업을 통한 점진적 변화 과정과 조율의 과정(실패사례 포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고민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여야 함



③ 영도문화도시센터

□ 개요

- **일정/장소:** 2022. 8. 12.(금) 10:00~15:00 / 영도문화도시센터
- **참석자**
 - (거점주체)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 윤도경, 김설 담당자
 - (전문가)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김혁진 연구위원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2022년 주요 사업방향 관련 논의**
 - (사업 추진배경) 기존 영도문화도시센터 사업에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으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지역이슈(재개발, 학교 폐교 등) 해결 방안으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1)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정책사업화), 2)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도모, 3) 지역기반 활동주체 구성(시민 거버넌스), 4) 해양 문화예술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생태)의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부분) 하나로 묶여지는 ‘상’을 추가했으면 함
 - (풀뿌리 네트워크 관련) 공간을 기반으로 동 단위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을 기반으로 다른 공모사업(ex: 도서관 지원사업, 인문학 사업)도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 주민들이 마을 선생님이 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의 지역주민/매개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핵심 방향성) 올해는 무엇보다 ‘이슈 파이팅(fighting)’을 통해 ‘거점’으로서의 입지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음. 특히, 1) 어린이를 위한 공간 마련, 2) 유휴공간을 활용한 협력공간 마련, 3) 조례 제정에 대한 시의원과의 협의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간 관련) 가변성/개방성/자율성을 항상 고려해야 함. 또한, 공간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브랜딩하여, 좀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보이도록 ‘보여주기식(showing)’프로젝트로 공간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안에 예술가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붙임화’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조례제정 관련) ‘조직’문제나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임

-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방안) 그간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함

• 향후 사업 추진방향 관련 세부 논의

- (조례제정 관련) 조례 내에 실질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과 조례의 후속
작업은 무엇으로 돌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현재의 운영 조례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 사례(ex: 춘천, 전주 등)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겠고, 구청
실무자의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실제 조례 제정을 실행시키는 것은 공무원)
- (광역과의 협력방안) 지금까지 광역센터는 ‘프로그램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쳐내기 바쁜 상황이었으나, 지방이양 상황에 따라 역할 전환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으나, 기초 단위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므로, 영도 차원에서 상호간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광역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좋을
듯함
- (지역 내 주체 참여유도 및 역량강화) ‘동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의제를 찾고, 사업 설계 및 협의를 한 후, 구체적인 구조가 나오면
실행권한을 부여하는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즉, 핵심 사업만
거점이 쥐고 가고, 구조가 정리되면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는 주체(협력
파트너)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과업을 주고자 하는 것임
→ 여기서는 ‘관계’가 잘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들이 왜 ‘협력주체’가
되었는지, 사업계획 안에 ‘작동원리’는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또한, 전제조건으로서 1) 예산은 ‘도구’로서만 둘 것, 2) 책무성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역할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보다
깊이 있게 해야 할 것임



[협력을 통해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기]

— 권역별 관계자 회의

1) 서울 권역

□ 개요

- 일시/장소: 2022. 8. 10.(수) 15:00~17:00 / 은평문화재단(서울 은평구)
- 참석자
 - (금천문화재단) 박지혜 팀장, 김지현 대리, 손다경 PM
 - (성북문화재단) 김현주 대리, 지강숙 PM
 - (은평문화재단) 이찬 대리, 권정원 주임, (협력주체)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김은영, 이은진, 쓰담쓰담협동조합 정소영,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임영은
 - (서울센터)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팀 황선영 팀장, 임유리 대리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주체별 주요 사업방향 및 고민지점 공유

- (성북문화재단) ‘20년 당시 민간주체(민들레, 마을온예술)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 그간 학교/기관/학부모 등 다양한 지역 내 주체들을 만나서, 공론장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 LAB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생활권’ 안에서
관계성을 갖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
→ (ex) 키움 센터와 연계한 지역 내 아이들 돌봄 이슈 발굴, 주민센터
협력 문화예술교육 관련 설문조사 및 강사-예술교육가 간 협업 논의,
뉴스레터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LAB 등
- (금천문화재단) 지역 내 한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대상과 관련한
이슈/장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 내 주체들의 고민을 모으고자
함. 올해는 실제로 네트워크화하거나 협력망을 구축하는 단계까지는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주체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함께할 수 있는 주체를 찾을 예정
- (은평문화재단)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관계성의 확장
및 주체 발굴’을 주된 목표로 두고 있음. 내부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가 및
실천가를 잘 구축하려고 고민 중이고, 이와 관련한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음. 더불어, 생활권별(불광, 연신내 중심) 거점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실험할 예정. 더불어, 협의회

구성을 위해 구의원, 교육청 등과도 관계를 맺고 문화예술교육을 지역 안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

• 사업 방향성 관련 의견 공유

- (중장기적 계획을 고려한 사업 추진) 기초거점 사업은 지역 안에서 ‘훈련’을 전제로 한 유일한 사업임. 점점 더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갈텐데, 광역은 기존과 같이 관리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기초 단위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되,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봄
- (새로운 참여자 발굴)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을 하던 사람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참여자를 발굴하여 누구나 동네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 (다양한 이슈와의 연계 고민) 서울 지역의 특성상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상황들이 비슷하겠으나, 지역마다 수요/지역 주체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ex: 예술가 모임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지역 구석구석을 훑어서 다양한 강사들의 욕구를 발견하면서 예술교육의 갈래를 발견하고자 함)

• 기타 사업 관련 논의

- (사업 취지 공유) 기초거점 사업은 결국 ‘과정’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봄. 1년 차의 경우 ‘자기 점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봄. 초반에 이 사업에 대해 ‘왜 하려고 했는지’, ‘거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정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봄
- (사업의 성과 추적) 현재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이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특정한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환류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지표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 결국 참여자의 표현이 많이 담겨야 한다고 보고, 과정을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성과에 대해 ‘아카이빙’하는 것도 필요
→ 과정의 추적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추상화되어 있는 현장의 언어를 정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 과정은 정책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함(ex: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고민)



2) 부산 권역

□ 개요

- 일시/장소: 2022. 8. 22.(월) 14:00~15:00 / 부산문화재단(부산 남구)
- 참석자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김평수 대표, 박준성 팀장, 최진혁 담당자
 - (협력주체) 부산 북구문화도시지원센터 정면 총괄기획자 외 1인
 -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최윤진 팀장, 남서아 대리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2022년 기초거점 사업 주요 현황 공유

- (올해의 목표) 부산 북구 지역 내 파편화되어 있는 생태계를 온/오프라인으로 매개하고자 함. 1) ‘만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2) 기획 단계부터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는 제도 등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구의원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
 - 최대 3년 지원 이후 지자체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음
- (기초 지자체와의 관계) 3년 차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초 지자체와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을 느낌. 보이지 않았던 지역 내 사업 구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남(ex: ‘만개의 날’행사도 북구청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해서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음). 결국 지속가능성은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일 것. 기초지자체와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장기적 방향성 수립 예정
 - 지자체와의 관계는 기초거점의 위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임. 장기적으로 북구청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조례제정, 예산 등)이 필요할 것. 지역 안에서 지자체가 투입되는 모습이 보여야 설득력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 부산문화재단 연계 가능사업 관련 공유
 - (공간 발굴 사업) 2021년 폐교공간을 활용한 창의 예술교육을 진행했고, 올해도 ‘쉽’을 컨셉으로 한 공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해마다 공간의 경험을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결국 기초거점 사업에서도 ‘공간’이라는 부분은 중요할 것이고, 네트워킹 사업에서도 물리적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하여 지속적 협력이 가능했으면 함

- (아카이빙 사업) 올해는 예산 문제로 당장 구축해 놓은 플랫폼은 없으나, 그간 지역 내 단체들이 진행한 작업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을 내년 이후에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음. 올해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를 구축해 놓았음(실시간으로 단체들이 직접 정보를 업로드하는 방식임)
 - 부산연합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만개)의 경우에도 지역 주체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의 작업을 뽐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DB를 생성하고 탑재하는 것은 부산연합회가 가져가고, 부산재단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플랫폼 구축 관련하여, 광역 및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주는 것임. 반면,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부 정보를 끌어오는 것이므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음(단, 기초 차원에서는 지역 간 전체적인 결합 요소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들은 광역과 기초가 의논해야 할 것)
- (기초 단위 활성화 사업) 현재 종합계획 차원에서도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므로, 추후 그러한 협력 논의테이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 기타 사업 추진 방향 관련 논의

- (민간단체로서의 위상 문제) 현실적으로 부산연합회의 경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에 있는 기초문화재단과 다른 층위로 보일 수 있어 수위에 대한 고민이 있음
 - 기초거점은 기초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임. 구체적인 사업구조로 들어가면, 각자의 영역과 실행범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이 많을 것이므로 ‘논의체계’로서 거버넌스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함
 - 연합회 차원에서도 현실적 위상/사업범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민간단체/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역 내 주체들과 논의하여 기초거점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에는 기존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정리한 바 있음
- (거점주체로서의 활동 가능범위) 지역 내 시민 안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고, 현재 문화도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점들도 있어, 부산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문화도시센터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고자 함. 3년 차

이후 해당 사업을 문화도시센터로 이양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가능 범위가 고민임

→ 부산 북구 지역 안에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무엇보다 기존에 설정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듯함

3) 광주 권역

□ 개요

- 일시/장소: 2022. 8. 23.(화) 10:30~12:00 / 광주 미로센터
- 참석자
 - (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관장, 김희승 코디네이터
 - (교육문화공동체 결) 박시훈 대표, 김유정 담당자, 장세연 담당자
 - (광주센터)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강현미 팀장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운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2022년 기초거점 사업 현안 공유
 - (지자체와의 협력 상황) 거점 사업에서 협의회 구조에 지자체 관계자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 협력 부분 등을 논의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탐방’이라는 절차가 있어, 해당 자리에서 기초거점 사업에서 언급한 바 있음(관련 과에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논의 중임)
 - (공간 사업 관련) ‘마을사랑채’형태로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간 협력사업을 고민 중임. 현재 협의체로 22개 기관이 들어와 있으며, 가능하면 이들의 공간을 모두 ‘문화예술교육’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목표(기존 체험형 프로그램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할 예정)
 -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및 예산확보 관련) 지역 주체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시’와의 관계임.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광주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광역 단위의 역할은 사업을 통해 기초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임
- 광역 단위 사업 현황 및 사업 관련 의견 공유
 - (창의예술학교 사업)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자치구’단위로 사업을 진행 중임. 한번 ‘거점’으로 인증하면, 장기적으로(3-5년) 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 이외에도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상 참여주체 대상을 열어두니 참여율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고민임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진흥원으로 고용 주체 일원화가 되었으나, 지역별 운영 주체가 해당 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관리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지역 안에서의 범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교육청과의 관계는 운영단체가 아닌 광역센터가 풀 수 있다고 보는데, 머지않아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위상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임

- (거점 사업의 실효성 관련) 1년 차 단계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거버넌스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더 연차가 높아지면 프로그램 직접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봄



4) 전남 권역

□ 개요

- 일시/장소: 2022. 9. 28.(수) 15:00~17:00 / 곡성 아름드리센터
- 참석자
 - (문화공감 창) 김경록 대표, 이소의, 장운정, 전미르
 -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대표
 - (전남문화예술교육센터) 서선숙 팀장
 - (지역관계자) 곡성군 문화체육과 석정원 주무관, 인구정책팀 위진수 주무관 / 전라남도 교육청 김민정 장학사, 곡성교육지원청 정수정 장학사
 - (협력주체) 곡성교육회의 이원현 사무국장, 곡성미래교육재단 대외협력팀 김현경 팀장, 도립아산조방원미술관 김효경 학예실장, 김다인 문화예술교육사
 - (순천문화재단) 전애실 사무국장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주요 논의내용

○ 거점주체별 현황 공유

- 지리산씨협동조합
 - (사업 참여배경) 지역 안에서 마을 단위로 어머니,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을 고민하였고, 지역 안에 있는 자원들을 연결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을 주고자 했음
 - (고민지점) 사업적으로 '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라(ex: 복지관, 가족센터, 평생교육 등) 지역 안에서 '매개/발굴/촉진'하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음. 이때,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도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여러 사업 연계방안을 고민 중임
 - 이 과정에서 정책 사업으로서만 기초거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자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임 → 단, 여기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고, 다양한 행정관계자 뿐만 아니라, 민-민간의 거버넌스(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 문화공감 창
 - (사업 참여배경) 처음에는 지역 안에서 '외롭다'는 고민이 가장 컸음.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역에 함께 '연대'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음.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사업’ 자체를 확장하겠다는 측면보다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역의 예술가/민간 단위의 그룹들을 ‘연결’하고자 했음

- (향후 방향성/고민지점) 현재 지역 안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생태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램

• 거점주체(곡성) 관계자별 의견 공유

- (곡성교육회의/이원현) 곡성 지역에서 세대 소멸이 급속화되면서 지역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일상을 일상답게 살아낼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촘촘하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각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발견’하고 ‘연결’하여, 생태계가 촘촘해졌으면 함
- (곡성미래교육재단/김현경) 곡성미래교육재단은 곡성군청 내에서 관과 민간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구조임. 따라서, 어떠한 분야든지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구조임. 또한, 현재 재단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지역에 녹아들 수 있는 구조들을 고민하고 있음. 이러한 지점을 적극 협력하여, 다양하게 분포된 사람들이 연결되기를 기대함
- (곡성 교육지원청/정수정) 현재 곡성문화원과 연계해서 극단과 함께 학교 안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역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함
- (곡성군청/위진수) 곡성읍에 갤러리를 만들고 전시 등을 진행 중임. 해당 갤러리에 교육청 콘텐츠를 연계하여 지역 안에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아산조방원미술관/김효경) 미술관의 경우, ‘관람객 숫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인데, 사람들은 미술관에 ‘전시’만 보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함. 지역 안에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미술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

• 기타 지역 관계자 의견

- (순천문화재단/전애실) 전남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향후 ‘문화 안전망’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음. 더불어, ‘문화 경제 생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봄. 끝으로, 융합 문화예술교육 등 더 많은 단체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
- (전남도 교육청/김민정)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지역마다의 특색을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안에서의 예술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물적/인적 인프라를 다룰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어(ex: 농악 전통학교 운영 등), 관련 협조 필요

-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선숙) 현재 전남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 구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사람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기초 단위 지역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플랫폼이나 고민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향후 기초 단위와의 협력/개발 사업의 구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



['협력'하고 연결하기]
- 워크숍 주요 논의내용

1) 2020년

① 1차 관계자워크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20. 7. 15.(수) 13:30-18:00 / 교육진흥원 12층 R3-R5 회의실
- 참석대상: 총 32인
 - (거점주체) 선정된 12개 거점주체 핵심관계자 1~2명
 - (전문가) 임학순 교수(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양혜원 실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정인양 사무관
 - (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소연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정혜우 대리, 이현민 주임, 임미소 주임
- 상세 일정

시간	내용
13:30-13:40	○ 인사 :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13:40-13:45	○ 사업소개 : 정책방향 및 사업 소개, 컨설팅 개요 안내
13:45-15:45	○ [주체별발표] 사업 추진계획 및 고민지점 공유 (주체별 7~8분)
15:45-16:00	○ 휴식
16:00-16:30	○ [전문가의견] 지역별 발표관련 총평 및 향후 주안점 (전문가별15분)
16:30-17:30	○ 그룹별 토의 - 지역별 고민 지점 공유, 사업계획 보완 방향 논의 - 지역별 사전 컨설팅 수요조사관련 논의(필요영역, 방식 등)
17:30-17:50	○ 사업 운영관련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부/예산집행(보조금 운영규정 포함) 안내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안내
17:50-18:00	○ (정리) 기타 질의응답

chapter 5.
Ground-table

□ 주요내용

○ [주체별 발표] 사업 추진계획 및 고민지점 공유

주체명	발표내용
강릉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프로그램) '단오제 길놀이 콘텐츠'에 예술가들을 매칭(지자체 협력), 강릉지역 내 외국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진행(교육지원청 협력) - (로드맵 수립) 네트워크 구축, 전담인력 구성, 월례회의 등 ○고민지점: 지원사업에 의존한 방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 협의체 구성원
광주문화자치회의 (북구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북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없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 - (시범 프로그램) 메이커, 생태, 마을, 디자인, 역사 등 북구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소단위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기반 구축) 위원회 구성(구의원 포함), 조례제정,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등 ○고민지점: 포스트코로나 관련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실효성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구성) 완주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라운드테이블,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타) 시범 프로그램 '삶 예술학교', 실태조사 연구 등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활동가 인력 육성) 문화공동체 안에서 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공동체 형성) 공동체가 삶,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 실질적인 지역형(농촌형) 문화예술교육 모델에 대한 고민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북구내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연구조사) 문화예술교육 지표 조사와 협의체 결속력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고민지점: 규모나 권역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지역주민과 예술가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수 있을지 고민

주체명	발표내용
성남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양성) 예술강사, 매개자 등 전문인력 발굴 및 성장 -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및 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현장 수요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연구조사) 지역현황 분석, 네트워크, 컨설팅 기회제공 - (기타) 전문인력 워크숍, 교과연계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시민참여 공론화 등 ○고민지점: 예술가들이 교육 분야로 왔을 때 부딪히는 부분 / 풀뿌리 거점 주체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 / 코로나 대응 비대면 네트워크를 구축 방안 등
성북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 라운드테이블, 참여워크숍, 주민공유 포럼 등 ⇒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각 기관 및 학교, 주민 등 포함 - (현황조사, 아카이빙)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비평하기 등 - (시범 프로그램) 소규모 지역 배움공동체 '저마다 동네예술학교'운영 ○고민지점: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일정상 한계 / 생활문화·지역문화와의 구분
전주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지역실태조사를 바탕으로한 주체별 수요분석, 이슈 네트워크 개발 - (프로그램) 코로나극복 네트워크사업, 콜로퀴엄, 유아 프로그램 개발협력 - (기타)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채널 활용 현장의견 수렴 및 회의진행 ○고민되는 부분: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주민들의 관심유도의 어려움)
지리산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구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 정기적으로 협의체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실무단 구성 - (시범사업) 생태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청년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등 ○고민지점: 지자체 담당자와의 네트워킹(경직성 해소) / 공간 및 인프라 확보

주제명	발표내용
지리산씨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추진단·민간 워킹그룹·기관 간 역할설정 및 방향·과정 설계 - (시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을 토대로 지역 순환 생태계 구축(교육주체와 참여자 매칭) / 구례 문화플랫폼 및 기타사업 통합운영 / 융복합 지원센터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단위 안에서 소외지역 해소에 대한 방안 논의하여 도달률 높이는 방안 - 연구R&D 분야 및 아카이빙 등을 통해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모델 개발 방안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청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중심 정책 분석 및 의견수렴 - (시범 프로그램) 핵심가치(균형, 특화 협력)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딥(deep)탐화 운영(매월 1회) - (지역자원 조사) 활동가, 예술가, 매개자 그룹 발굴 및 특화 플랫폼 조사
춘천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그룹 형성) 생활 근접형 사업으로 마을 지역 수요 및 자원 조사 진행 - (협의주체) 개인에서 출발하여(개인의 역량 확인 및 관계 맺기 등), 유관단체를 최대한 많이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자 함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측정하는 시스템의 필요성 - 지속가능성(여러 사람들과 함께 타이밍을 맞춰 잘 성장하고자 함) -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의체 구성 방안(시민의 주도성과 자발성 지원)
포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 수평적 조직으로,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 재단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수시회의와 공식회의를 통해 의제 결정 - (시범 프로그램) 교육지원청 및 예술강사분들과 협력하여 중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시범운영(학교교육 연계) ○고민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와의 경계가 애매한 감이 있음(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 문화예술교육이 내용안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하고자 함

- 전문가 의견 공유: 향후 기초 단위 거점으로서의 계획 수립시 주안점
 - (거버넌스 관련) 지역 내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주체 발굴 및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협의체 운영모델 개발
 - (지역현황 분석) 용역 등을 활용하는 방향보다는 조사 과정 자체가 네트워킹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임을 염두하여 면밀한 지역현황 분석을 시도
 - (기초센터의 역할 수립) 기존 프로그램 지원사업 형태가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염두, 다양한 주체 간 발굴/연결/협업의 장 형성
⇒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관리조직으로 경직화되지 않도록 유의,
민간단체는 본래 해오던 방식의 사업 수행에 대한 경계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정립)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에서 지향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설정 및 타분야(생활문화, 평생교육 등)와의 역할분담
 - (지속가능성)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조례제정 등 기초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별 고민지점 및 향후 컨설팅 추진 시 중점 필요영역 공유
 - (거버넌스 관련) 네트워크 중심 사업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형성에 대한 적합한 방안 및 협력범위 설정, 역할분담 등
 - (문화예술교육 개념) 문화예술교육 개념의 범위, 타분야와의 연계지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여 기존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엮어내는 방법
 - (지역 내 인력양성)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등 기존 인력과의 협력,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신규 인력 양성방안
 - (기존 사업과의 연계) 평생교육,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방향, 재단 자체의 방향성 및 상위계획 등 다양한 관점 속에서 기초센터의 역할 정립 방향
 -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설정, 포스트코로나 대응 프로그램 기획, 혁신성을 반영한 사업기획 방안
 - (기타) 예산편성(인건비, 연구비) 및 사업기간 설정 관련



② 2차 중간워크숍

□ 행사개요

- 부제: 디톡스를 위한 '딥톡스(Deep talks)'
- 일시/장소: 2020. 9. 24. (목) 10:00-17:0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1층 A.lab 및 12층 R3-5회의실
- 참석대상: 총 34인
 - (거점주체) 12개 거점주체 사업 주요 담당자 19명
 - (전문가)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백현주(전 수원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소연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정혜우 대리, 이현민 주임
- 상세 일정

시간		내용
1부	10:00~10:30	• (진흥원) 워크숍 일정 안내 / 사업 추진경과 공유
	10:30~11:20	• (전문가) 1차 현장방문 관련 핵심이슈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학순 교수) 지역특성·지역이슈 - (안태호 이사) 확장가능성·거버넌스 - (정경운 교수) 지속가능한 기반조성
	11:20~12:20	• (12개 거점주체) 사업 추진현황 공유
	12:20~13:20	• 식사 및 휴식 (공간분리 및 개별 칸막이 설치)
2부	13:20~15:10	• (전체토론) 「디톡스를 위한 '딥톡스(Deep tal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간 상호 질의응답 및 답변
	15:10~15:30	• (진흥원) 향후일정 안내 및 기타 질의응답
	15:30~17:00	• (12개 거점주체) 주체 간 개별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관련 의견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하반기 일정 공유 및 상호 연계 논의

□ 주요내용

○ 핵심이슈 공유 : 지역사회·이슈·협업 플랫폼 (임학순 교수)

- 지역 리터러시(Community Literacy)
 - 지역에 대해 깊게 알아가는 방법으로 조사연구·이슈 탐색이 있음.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프로그램화·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 지역 리터러시임
- 지역 이슈 접근법과 거점 구축 사업
 - 장르와 강좌 기반의 기존 지역 문화예술교육에서 이슈 중심의 새로운 혁신
네트워크 형성 필요
 - 이를 위해 연구, 새로운 인적자원의 결합 등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과정을
통해 이슈 기반 문화예술교육 연구·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임
 - 지역마다의 환경 문제, 문화 다양성, 공동체 회복, 사회 회복, 지역재생 등
다양한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발굴하고 해결 가능. 해당 이슈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함
- 사각지대 발견 및 지역의 확장
 - 시설 기반의 지역주민 한정에서 탈 시설, 마을과 동네로의 확장
→ 지역 이슈와 연결하여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기초 단위 거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임
 - 마을 단위 권역으로 나눠 새로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고민들이 지속되어야 함
- 지역 이해 증진과 지역 가치의 발견
 - 지역의 독특함과 고유함 속에 인간이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문적
가치, 보편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의미가 있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사회 연결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가능. 거점 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연결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 협업 플랫폼-거점의 리더십
 - 소통·존중·신뢰·인식 공감·경험의 공유·상호 학습 등 협업 문화의 발전과
협업 기반의 연구개발 체계, 학제적 협업 문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과정, 지역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파트너
발굴, 파트너와의 인식공유 및 명확한 역할체계 확립과 개별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 분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업 촉진 필요
 - 거점의 역할은 인적 발굴, 연결, 협업 과정 만드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주체에게는 문화예술 조직과 기존 인력 및 새로 발견된 인력, 이슈와

관련된 지역 조직들이 중요하게 작용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은 지역
주민이고 이슈 중심으로 하다 보면 협력 파트너들이 등장할 것임

○ 핵심이슈 공유 : 주체확장 전략으로서의 협력 (안태호 이사)

- 협력의 개념¹
 -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러 조직 또는 분야에 걸쳐
일하는 방식, 공통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
그들과 관계하며 일하는 방식
- 협력의 필요성
 - 세계는 복잡계로 지역도 복합적 역관계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두고 있음. 행정의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넘어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활동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문화예술교육 생활권 확대를 위해 시민 일상이 접촉하는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 필요
 - 문화예술교육은 강사-수강생을 넘어 지역사회와 관계하고 시민의 삶과
일상을 바꾸는 것을 지향. 이 관점에서 강의실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과 결합할 필요가 있음
 -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협력의 경험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던 주체들에게
지역이 어떤 문제에 당면해 있는지 조명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음
→ 경험을 통해 지역을 인식하는 시야가 넓어져 이슈 발굴과 발견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 촉진
 - 만나고 실제 일을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협업의 효율은 높아질 것이며,
협업이 갖는 의미도 점차 명확해질 것임. 또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역량과
기술의 습득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음
→ 다수 지역에서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음. 협업이 효과적이기 위해 직접
경험 축적이 반드시 필요
 - 문화예술교육 범주가 넓어지며 주민자치, 교육, 생활문화,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중복현상 발생하는데 영역 조정을 통해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요소를 줄이고 공동사업을 통해 콘텐츠의 확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협력의 방식
 - 당위와 명분에 따른 모임은 지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음. 분명한 목표지점과
논의체계에 대한 합의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필요들을 꾸준히
배치, 생산해야 함

1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 지역의 현황과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영역별 네트워크를 분할 운영할 필요가 있음. 모든 영역을 한 단위로 아우르기에는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고 이슈를 모아내기도 어려움
→ 기관·시설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단체 네트워크, 교강사 네트워크, 권역별 네트워크, 의제별 네트워크, 사안에 따른 한시적 이슈별 네트워크 등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에는 예술강사, 예술가,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예술강사와 예술단체 중심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음. 지역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에 경험과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주체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주기적인 모임 형태를 띌 수도 있음. 이는 기관 간에도 마찬가지임. 정보 공유와 인적교류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상대적으로 학교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확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별도의 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개별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 학교 예술강사와 사회 문화예술교육 주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내 사회관계망 확대 과정 필요
- 프로그램 개발과 연동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사례공유를 기반으로 한 협력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장애인, 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들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그룹의 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지역 내 주체들이 서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자신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좌표에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일회성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쉽게 발생하지 않음.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새로운 그룹의 출현을 장려하고 콘텐츠를 심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모사업 등에 대한 자료공유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에 정보공유를 넘어 매개에 대한 관점과 시선이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것임
- 협력의 수단²
 - 지역 사회와 함께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 지역사회 이해, 연결에 필요한 협업자에게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 파트너십의 투명성을 대중과 구축·유지하여 공개적으로 협업을 요청한다.

- 협업자들을 항상 직접 만난다.
- 협업은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며, 시간이 필요하다.
- 협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면 별도의 보상 방안을 고민한다.
- 파트너들은 바쁘다. 최대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파트너들의 피드백을 받고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 거점이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그 현실을 나누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느냐에 따라 거점준비의 밀도가 달라질 것임

○ 핵심이슈 공유: 지속가능한 기반조성 (정경운 교수)

- 기초센터 개념 관련
 - (조직) 운영주체·협의체·워킹그룹 등 모여 조직을 이뤄 기초센터 운영체계를 이루게 될 것임
 - (예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점도 있고 힘든 거점도 있음
→ 군이나 시의 경우, 행정 파트너와 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으나, 자치구 단위는 예산이 매우 적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 어려움
 - (역할) 지역에 따라 정책이나 인력양성을 추진 방향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도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초센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함
- 기초센터 구축을 위한 고민지점
 - 민간단체의 경우, 시민사회에서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행정 주체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가져가야 함. 행정파트너, 공무원(구·시의원) 등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음
→ 시민사회 안에서의 공적 지지도 계획 확보가 중요
 - 광역센터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자원 및 예산 중복, 접속의 층위 차별화)
→ 생활 주민 밀착형, 풀뿌리, 현장 실행형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해야 하며, 실제 기초거점에서는 워크숍·실무 중심으로 프로그램 속에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군 단위 주체의 경우, 읍·거점공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날 필요가 있음. 면 단위 수요를 어떻게 포괄할지 고민해야 함(협력주체의 범위 문제와 연동)
 - 1명의 담당자가 3~5년 정도는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속·안정성 유지 필요. 담당자가 소수로 한정되어버리거나 2~3년 단위로 계속 바뀐다면, 추후 성과는 남지 않고 프로그램만 남게 될 것임

2 S.M 가르시아, E.H 토크의 '박물관과 지역사회 협력관계' 발췌 및 일부 수정
- 임학순 외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협력관계>(2019, 아르떼 라이브러리)

- 더불어, 재단의 경우 운영의 경직성 탈피 및 민간역량 성장에 대한 신뢰, 광역 센터와의 관계 형성 및 역할 구분도 필요함
- 이외 지자체·광역센터와의 관계 형성, 지자체 재정 역량에 따른 보완전략 마련 필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관련 추진방향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운영체계, 자원, 사업, 지원기반 등)을 먼저 생각하지만, 기초센터의 운영체계는 연대와 서로 배움을 기반으로 한 '배움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배움 공동체의 지속적인 접속과 학습을 통해 해당지역 기초센터의 비전이 도출될 것임
 - 운영주체·민간주체·행정주체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비전'이 공유되고, 정책과 사업의 방향도 뒤를 따르게 될 것. '지속가능한 기반'의 핵심은 '재원, 조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공유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확장을 통해 민간에 문화유전자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임





③ 3차 결과워크숍

□ 행사개요

- 부제: 보너스 토크를 통한 실질적 네트워크, ‘보투스(Bonus Talks)’
- 일시/장소: 2020. 12. 4.(금) 13:30-16:30 / 바비엡2 교육센터
- 참석대상: 총 32인 (오프라인 22명, 온라인 10명)
 - (거점주체) 12개 거점주체 사업 주요 담당자 21명
 - (전문가) 김정이(비커밍컬렉티브 대표),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소연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상세 일정

시간	내용
13:30~13:40	• (진흥원) 사업추진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 안내
13:40~16:10	• (전체) 지역별 추진과정 및 사업 추진 공통 목표지점 공유 - (주체별 현황 공유) 사전 질문항목(별도 송부) 기반, 주체별 현황 공유 - (상호 간 논의) 사업추진 관련 상호 질의·실시간 전문가 피드백 - (전문가 의견 공유) 사업계획 관련 지역별 총평, 향후 주안점 등
16:10~16:30	• 기타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주요내용

○ 지역별 고민지점 공유

- 문화예술교육 DB 구축 관련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살아있는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 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김정이 대표) 기초거점에서 쌓을 수 있는 DB의 종류는 좋은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 유형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활동, 새로운 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법, 교육방법에 대한 차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에게도 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쌓아가는 데이터 등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 쌓아가는 과정상 사회적 영향력, 가치를 어떻게 데이터화 할 것인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첫 번째는 유통시키는 DB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개의 역할에서 DB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방향성. 두 번째는 이것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노출하는데 있어 필요한 DB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 또한,

데이터와 관련한 역량강화로 기초거점 데이터를 쌓아가고 아카이빙 하는 단체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정경운 교수) 일반적으로 DB 구축 범위를 어떤 항목을 할 것인가? 가장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사람(평생교육자·선생님·예술가 등)임. 다음은 유희공간에 대한 DB(문화공간+유희공간), 세 번째로 어떤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임
 - 북구의 자원을 1차적으로 찾아야 하고, 사람DB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북구 내 유희 공간과 매칭시키는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치평가를 가져가야 함. 매칭 건수, 수강인원 등 통계자료를 조사하면 실제 기초거점 활동의 결과물로 연결시킬 수 있고 이는 행정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
- 공동체적 측면과 사회적 의제 접근
 - (광주문화자치회의(북구문화의집)) 행정설득에 대한 어려움과 동종업계(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설득이 있음. 행정 설득은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봄
 - 평생학습이나 마을만들기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서는 왜 도입하지 못했는지 생각하고 기초만 할 수 있는, 비슷한 부분은 다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함
 - 네트워크도 사람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영역을 연결고리로 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부분이 심적인 연대의 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옆집예술선생의 무자격 프로그램·비형식 교육을 화두로 준비하고 있음
 - (기후위기 접근 관련) 거점에서 기후위기를 얘기하면 현장에서 했던 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 거점의 역할은 그들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 공동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업을 만든다거나, 사업비 예산을 나누고 지원하는 역할이 기초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 광역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만 피해간다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조례제정 관련
 - (지리산씨협동조합) 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여 시 조례를 모두 펴놓고 목적에 대해서 나열함. 공통 부분 중 지역에 맞는 초안을 정리, 군청에 제출했음. 군 단위이다 보니 복잡하거나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행정에서 저항이

있어 A4용지 1장을 넘어가지 않도록 평범하게 작성함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모든 조례들을 취합하며, 조례들이 기초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시의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단계임. 진흥원에서 2월에 표준안이 나오면 북구에 맞게끔 가공해서 지원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함
- 거점·권역 분리 및 접근방법
 - (복합문화지구 누에) 거점 및 권역 분리는 완주 자체가 기존에 행정구역상에서 거리상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구간이 있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구간(신도시)이 있음. 접근 방식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와 억지로 화합은 하지 않았음. 이미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들어가면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소그룹을 만들었음.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려운 점을 공감하고 들어주려고 노력 중임
 - 거점이라는 것이 거창하지는 않음. 제일 많이 모인 경우가 10명이 채 되지 않음. 일주일 2-3번씩 거시공동체, 사랑방 공동체처럼 만나서 아이디어 공유 및 전문가들에게 컨설팅·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문가 종합 의견

- (백령 전문위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점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함. 그러나 이제는 데이터 없이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하나 하나 모으고, 그리고 모은 것을 어떤 틀 안에서 포지셔닝하고 어떤 때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므로 진흥원에서 이후에도 데이터 기반의 연구나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바람
- 올해 함께하면서 느낀 점은 사업담당자들이 많은 짐들이 있는 것 같음. 어떤 곳은 꿈터·예비 사업·거점 등 여러 사업을 하며 각각의 모자를 바꿔 쓰며 고군분투하는 현장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함. 시작이 반임. 첫 걸음을 떼는 것을 기념하며 2021년을 기대하길 바람. 조바심이나 걱정 말고 믿고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함.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밀고 갈 힘이 생기지 않음. 현장 하나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내년에 다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필요함
- (김정이 대표) 시작 때 수없이 물었던 ‘기초거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으면서 정리했으면 함. 연초에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생각하는 기초거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기초거점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FGI 대상자, 새로운 관계 등을 올해 많이 확인했다는 것이 좋음. 그분들 마음속에는 올해 담당자가 기초거점일 것임. 담당자가 바뀐다면(마음의 신뢰를 쌓은 담당자가 아닌 경우), 기초거점의 역할이 붕괴될 수 있는데, 재단 내부에서 이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고, 재단에서 위탁받은 경우에 이 고민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래서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재반복 되지 않도록 조례상 기초거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의미와 조직의 네트워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함. 테이블을 같이 앉는 것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슈에 따라, 문제해결에 따라, 분야에 대한 관심 지속성에 대한 것 등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네트워크에 대한 형태가 바뀌고, 그곳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다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네트워크라고 생각함. 그래서 더 어려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렵게 운영하게 됨. 기초거점 사업의 경우, 주요사업이 네트워크 구성과 데이터 구축임. 내년에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업 정교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정경운 교수) 광역과 기초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생활밀착형, 마을 단위로 이뤄진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음. 같은 기초거점이란 단어를 달고 있지만 어떤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다름. 광주 북문, 성북, 부산 북구 같은 자치구의 경우, 생활문화-마을공동체-평생교육과 섬세하게 밀착되어 들어갈 수 있음. 평생교육에 대한 지점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명료하게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 자치시나 자치군 단위는 약간 다를 수 있음. 넓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 광역의 축소판 역할을 해야 함. 자치 시의 경우, 여러 개로 구성된 자치구, 자치 군은 면 단위를 묶어주는 역할이 필요함

- 지금은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열할 수 있음. 권역별로 리더그룹을 묶어주는 역할을 장기적으로 계산하면서 거점 주체별로 묶어주는 역할이 기초거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음. 세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큰 걸음을

가지고 자기 전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그동안은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마을 기후, 수해, 코로나, 재난 등과 관련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았음. 구례나 포항처럼 주민에 대해서 긴급투입, 문화안전망 관련해서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음. 재난이란 부분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창작지원 등임.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형 재난 프로젝트 등이 있음. 전체 공통, 기초거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현장밀착형, 재난 의제들을 공통 사업브랜드로 만들어서 수행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았음

- (안태호 이사)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창출해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음.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역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문화예술교육 역사의 한 장면을 쓴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음





2) 2021년

① 1차 관계자 워크숍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1. 4. 30.(금) 14:00-16:00 / 서울역 글로탑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총 24인 (온라인 참석자 포함)
 - (거점주체) 2년차 거점주체(8개) 사업 담당자, 실무자
 - (광역센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7개 권역) 관계자
 - (전문가) 백령(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상세일정

시간	내용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 주체 및 광역센터 관계자 간 소개
14:20~1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사업추진 방향(컨설팅/아카이빙 계획) 안내 • 지역별 주요 이슈(사업계획/고민지점) 공유
14:35~15:05	<p>[1부] 그룹별 논의(해시태그 네트워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간 현황 공유 및 전체토론 준비(*3개 그룹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질의서 기반, 추가 안전/주체별 질문 논의 ① A그룹: 북구문화의 집, 복합문화지구 누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춘천문화재단 ② B그룹: 지리산씨협동조합, 전주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 현장에서 포스트잇을 배부하여, 관련 의견 취합
15:05~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실내 환기)
15:10~16:00	<p>[2부] 전체토론(그라운드테이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주제(협력)관련 전문가 - 거점 주체 간 자유 논의 - 네트워킹 시 정리한 추가 안전/주체별 질문 공유 → 네트워킹 시 취합한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논의

□ 주요내용

○ 핵심키워드(협력/네트워킹) 관련 전체토론 및 질의

- 보다 독립된 주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고민지점
 - (전주문화재단)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문성을 갖춘 거점 ‘주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활동과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광역재단 등 협의체와의 협업을 위해 독립성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시에도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과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봄

- 협의체와의 협업 추진을 위한 설득 과정의 한계지점
 - (지리산씨협동조합) 기존에 형성되었던 네트워크를 벗어나 사업의 범위를 넓히거나 제안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어나갈수록 지자체의 의지와 지자체가 가진 영향력에 부딪혀 한계를 느끼고 있음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기존의 프로그램 및 이미 구축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스템·환경 속에서(광역재단, 교육청의 기존 사업 등) 기초거점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차별점을 설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포항문화재단) 평생학습 분야/교육청 등과 협업하기 위해 협력의 필요성 등을 꾸준히 설득 중이나, 각자의 영역에 있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려고 하거나 일부 중복되는 지점들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음. 이에 대하여 포항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역할(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이슈화하여 프로젝트화하고, 사례를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
 - (광주북구문화의집)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북구에서는 기존 인력과 프로그램 사례를 최대한 그들의 언어 그대로 가져오고, 문화예술교육 내 하나의 축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번 사업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핵심 키워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영역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지리산씨협동조합) 중간조직의 역할은 기관이나 각 주체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등 스스로 그 가치를 알아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초거점의 위치
 - (춘천문화재단)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마을 주민·활동가·매개자 등과 지원조직, 단체들을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해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각자의 목표와 목적을 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섬세하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지역 내에서 활동에 힘이 될 수 있는 인력 양성 방향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기획단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활동가들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여 끌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어느 정도의 공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발전적 방안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적인 목적과의 경계지점 등을 고민 중임
 - (북한문화지구 누에) 다양한 관계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계속적으로 부딪혀보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진 이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완주의 경우에도 수많은 만남의 시도를 통해서, 방향이 맞지 않는 분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찾기도 했음

○ 전문가 의견 공유 (백령 연구위원)

- 협업을 위한 단계와 핵심 및 주체별 질문 공유
 - (자원조사의 중요성) 기초거점의 역할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면밀한 자원조사가 수반되어야 협업이 원활하게 가능할 것임. 이후 정기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원조사를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의 역할과 연결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협업의 대상을 끊임없이 연계하면서, 판단을 위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원활하고 지속적 협업 가능
 - (기대역할에 따른 문제) 협의체가 기대한 역할과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역할 및 위치에 따라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전략적으로 협업하는 대상이 원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언어로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 필요
 -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결과와 지속적인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협의체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협업의 의지 생성 가능
 - (협의체와의 역할 구분) 협의체(ex.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와의 차별 지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슈화시키는 과정 필요함
 - 문화도시 사업, 혹은 예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적 이슈 등을 연계시켜 이슈화하고, 주체 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참여하는 이들의 정체성, 속도, 방향성을 모두 파악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가능한 범주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각자의 속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이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임



② 중간워크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21. 8. 31.(화) 14:00-17:00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진행(줌)
- 참석대상: 총 28인
 - (거점주체) 신규주체(7개), 2년차 거점주체(8개) 주요 담당자 (1~2인)
 - (진흥원) 지역협력팀 이현민 주임, 원혜정 주임, 현재은 운영
- 상세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 참석자 및 워크숍 순서 소개	교육진흥원
14:10-15:30	[1부] 주체별 계획 공유 • 연간 계획 및 중점 방향 발표(*주체별 5분 이내) ①연간 사업 주요항목, ②주요 고민 지점 등	신규/2년 차 주체 (총 15개)
15:30-16:20	[2부] 그룹별 논의 (*소주제: “지역성”) • (네트워킹) 담당자별 소개 및 올해 목표지점 공유 • (주제 관련 논의) 주체별 사례/의견공유, 상호질의 ①우리지역 키워드, ②지역의 주요 이슈, ③지역 내 연계자원, ④향후 주안점 등	권역별 거점주체 (총 4그룹)
16:20-16:50	[3부] 전체토론 • 그룹별 논의결과 공유, 추가 질의 (*그룹별 5분 이내)	권역별 대표자 (총 4인)
16:50-17:00	• 향후일정 안내(현장방문 컨설팅 및 아카이빙 등)	교육진흥원
17:00-18:00	• 기타 사업관련 안내(행정절차 등) 및 질의응답	교육진흥원, 신규주체

□ 주요내용

○ 주체별 계획 공유

주체명	내용
광주문화 자치회의 (북구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일상과 맞닿아 있는 끈끈한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생활민과 맞닿아있는 일상적인 이슈를 발굴하여 ‘비정형 문화예술교육’ 실험 • (세부내용) 아파트 문화, 메이커운동, 마을교육, 아동센터, 마을숲 활용, 같이교육 등 6개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및 멘토-참여자-코디네이터 구성
북합문화지구 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기존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교육을 마을로 확장하여, 문화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역 내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협업 플랫폼 구축 • (세부내용) 지역내 핵심 예술가와 함께 각 마을 권역별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 예술가 네트워크 및 교육예술가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 진행
성북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지역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를 연결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거점 구축 • (세부내용) ‘주체 세우기’라는 큰 맥락 안에서 콜로키움/문화예술교육LAB을 운영하면서 지역 이슈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실행
전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방향) 지역협력체계 마련, 제도 정비, 교육기반 강화, 생활권 확산, 인식 제고 등 다섯가지 키워드 및 맥락 안에서 사업추진 • (세부내용) 조례 재정비, 문화예술교육 생활권 확산 프로그램 운영, 담론 형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설 및 디지털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등
지리산씨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수요자 중심 민간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및 간담회를 통한 지역민 역량강화, 조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 연결 • (세부내용) 조례제정 추진, 학생 및 교사 대상 라운드테이블, 지역 현황조사 ‘다시구례’, 마을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교육, ‘구례 예술친구’ 등
청주시문화산업 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도심에만 집중되었던 문화예술교육을 생활권 단위로 확장 • (세부내용)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슈와 서면조사 활동까지 직접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원
춘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시민력을 강화하고 삶을 아우르는 세계시민교육을 향하는 방향으로 설정
포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전환 및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안전망 구축 • (세부내용) 네트워크 형성,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진행, 포스텍/포스코 등 우수한 기술자원협력이 가능한 과학/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 연구 진행 등

주체명	내용
공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인구 11만의 중소도시 안에서 지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집중 • (세부내용)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개발, 지역의 청년 대상 프로그램, 도시재생 형태의 문화공간 및 관광을 활용한 사업 등
교육문화공동체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아시아 교육/인문도시로서의 인권교육/미디어아트/에스포츠포 등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고자 함 • (세부내용) 워킹그룹 중심의 실무협의체 강화, 인문/기술/예술의 자원을 한곳에 놓는 거버넌스 구축, 지역 실태조사, 신중년 세대 발굴 등
밀양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기획자/예술가/강사 등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주민센터 및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 활성화 등 • (세부내용)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방향 구체화, 문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부산문화예술 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부산 북구 지역은 낙동강이 흐르고, 나루터와 지하철이 있는 플랫폼적 특성을 반영한 기초거점의 방향을 세움 • (세부내용) 지역 내 인력양성을 위한 '바라지 프로젝트', 지역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지역 내 홍보, 이를 바탕으로 한 공론장 형성, 문화예술교육을 갖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예술도시락' 등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학교/유아/사회/전문인력 단위 사업에 대한 지속적 운영 및 '예술교육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 및 협의체 형성 • (세부내용) 유아/노인 파트의 예술강사 네트워크 형성 및 플랫폼 구축, 문화비전 2040 및 조직진단 관련 연구개발, 지역공론화 등
장수문화예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지역 내 단체/기관과의 장수 문화예술교육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후 공동체 형성 및 콘텐츠 개발 예정 • (세부내용) 지역 예술인/기획자 역량강화, 농촌의 자원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초중고/유치원교사/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거버넌스 형성
중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중구 내 문화예술교육센터 추진 • (세부내용) 사람기반형 플랫폼으로 교육센터 모델을 만드는 단계로,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추진단을 조직화하고, 지역 내 강사 및 예술가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

○ 그룹별 논의내용 공유(전체토론)

- (A권역) 성북/청주/공주/중구 : 문화예술교육 운영 형태 및 자원 간 협력 등
 - (지역성 관련) 공주는 역사와 전통을 고려하되, 매너리즘에 매몰되지 않고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만드는 생태계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구는 지역 내에서 협의체 구성하고 주체를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안을 도출하고자 함. 성북은 여러 활동가들이 이미 여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주체들 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화하고자 함
 - (기타 공유사항) 기존 작은 단위의 인구가 있는 지역 안에서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대한 인식/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나눔
 -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긴 했으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활동가들의 연계지점에 대해 공유함
- (B권역) 밀양/성남/포항/춘천 : 거점주체별 주안점 및 고민지점 공유
 - (춘천) 다양한 사람, 공간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안전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관점에서 그들을 엮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세계시민의 관점을 세우게 됨. 춘천지역에서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관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함
 - (포항) 작년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역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문화예술과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음. 그간 단발적으로 끊어지는(연속성이 없는) 문화예술이 있어왔고, 문화예술은 맥락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는데 가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어서, '과정'에 대한 중요함을 끊임없이 전해야하는 이슈가 있음. 지역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활동가들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지을 지에 대해 고민이 있음
 - (성남) 예술강사에 대한 고민이 큼. 예술강사 네트워크를 통해 일방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지역에 뿌리는게 아니라 어떠한 마을이나 공동체에 그들이 필요해 하고 원하는 것, 해야하는 것에 대해 강사 풀을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함
 - (밀양) 지역 내 역량 있는 교육가 양성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음. 밀양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 문화예술에 녹아들면서, 밀양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가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함
 -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주축이 흔들리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의견을 공유함

- (C권역) 장수/완주/전주 : 거점주체별 고민지점 및 광역 단위와의 협력 등
 - (장수) 지역의 특성상 전문예술인이나 문화예술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보다 소 버거운 감이 있고, 외부협의체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 (누에) 공동체, 마을, 작은 거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단위의 작은 거점을 구축하는 데는 이미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실행중임. 여기서 이 작은 거점들이 어떻게 연결하고 매개할 것인지, 그 안의 사람에 대해 고민이 있음. 사람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어야 지속성을 가지고 작은 거점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함
 - (전주) 지자체에서 재단보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만들어놓은 상태임. 기초거점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음. 정책적/철학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들이 참여하고 있는 권역인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광역단위의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고민을 같이 아울러주고 협력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함. 더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이슈 발굴을 위해서는 협의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안함 → 진흥원 차원에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여러 차례 있긴 하겠지만,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지역 안에서 고민을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할 듯함
- (D권역) 광주 북구/광주 동구/부산 북구/구례 : 주체별 키워드, 사업 방향 등
 - (지역성 관련) 세지역 모두 키워드로 '자연'을 뽑음. 부산 북구(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는 강과 산을 키워드로 하였고, 광주 동구(교육문화공동체 결)는 무등산, 구례(지리산씨협동조합)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뽑음
 - (사업방향 관련) 답을 찾아가고자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초거점 사업은 답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봄.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부대껴야 된다고 봄
 - (향후 주안점) 기초거점이 다양한 주체들을 지역민이나 예술인들을 연계해주고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향후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빠지게 되더라도, 연결 지점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하려고 함.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는지, 마을학교 코디네이터 연계 등도 고려하고 있음



③ 결과워크숍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21. 11. 29.(월) 13:30-18:00 / 종로 nuguna (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 참석대상: 총 35인 (온라인 참석자 포함)
 - (거점주체) 15개 거점주체 주요 담당자
 - (광역센터) 김선옥(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 (전문가)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진흥원) 시민교육본부 김자현 본부장,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상세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네트워킹] 나는 '000이라는 거점'입니다 • 거점 주체 관계자 간 소개 및 네트워킹	전체 거점주체
14:00-14:10	• 워크숍 일정, 취지 안내	교육진흥원
14:10-15:50	[주체별 계획 공유] 우리는 '000이라는 거점'입니다 • 각 주체별 거점의 역할/방향성, 향후계획 발표 (*주체별 5분)	전체 거점주체
15:50-16:00	• 장소 이동 및 휴식(*실내 환기)	
16:00-17:00	[그룹별 논의] 그동안 거점으로서 어떻게 활동해 오셨나요? • 기초거점 역할 수행 과정에 대한 그룹별 논의 및 질문·답변 ① 지역 인물들의 자생성 키우기 -북합문화지구 누에, 지리산씨협동조합, 밀양문화재단,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② 활동가-기관 등과 함께 힘 합치기 -전주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중구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③ 문화예술교육 개념 확장하기 -북구문화의집, 성북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공주문화재단, 교육문화공동체 결	이슈별 그룹 (*총 3개)
17:00-17:40	[전체 의견공유] 앞으로 거점으로서 000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 그룹별 논의 결과 및 키워드 공유, 질의응답(*그룹별 10분 이내)	전체 거점주체

□ 주요내용

○ 주체별 계획 공유

주체명	주요 내용
광주 북구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청년을 활동의 주체로 끌어들이어 단순하고 정형화된 과정들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현장과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협의체 구성 • (세부내용) 6개 주제를 세분화하여,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멘토 선생님과 함께 지역에서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북합문화지구 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내려놓기 작업을 통해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완주만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속도를 존중하고 자율성 부여 • (세부내용) 마을 거점을 발굴하고, 정책거점 플랫폼이 되기 위해 조례제정 및 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성북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지역 안에서 어떠한 소통방식으로 어떻게 일하는 구조와 방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고, 문화예술교육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 (세부내용) '주체 세우기'를 통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실행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모든 지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나가기 위한 논의 진행
전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1차년도에는 사람, 2차년도에는 공감, 3차년도에는 콘텐츠라는 키워드로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세부내용) 올해는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문화예술교육을 생활권으로 확산하는 작업과 다양한 공간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재단이 하고자 하는 예술교육의 철학을 반영한 대표 콘텐츠 발굴
지리산씨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지역 예술가와 기관 간의 중간지원조직 시스템을 추진하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연결하고자 함 • (세부내용) 지속가능한 토양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구례지역 자원현황 조사/발굴을 바탕으로 한 아카이빙 및 시범사업, 지역인력 발굴/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주체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담론 형성 등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지역 내의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장 작은 단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 마련 • (세부내용)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퍼실리테이터 발굴

주체명	주요 내용
춘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지역 분권화 정책에 따라, 시민 스스로 삶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문화시민'으로 발전, 강화 • (세부내용) 시민 리더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동네지식인', 문화다양성이라는 오래된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는 '돌아온 봄', 지역 예술인과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필요한 학교'
포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역할을 설정 • (세부내용) 지진 재난이슈 및 코로나 상황에 문화예술교육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웃음소리'진행, 포스텍과 MOU체결을 통해 기술적 자원과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프로젝트
공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의견을 공유하며 방향성 수립 • (세부내용) 문화예술교육 개념 정립을 위한 역량강화, 함께 할 수 있는 주체를 찾는 협의체 구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근거를 만드는 작업 등
교육문화공동체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 문화예술교육이 동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지 현장을 들여다보며 거점의 근거를 스스로 형성 • (세부내용) 혁신학교, 도시재생센터, 인문도시를 바탕으로 한 자원과의 접목 방안을 논의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정리
밀양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느끼는 회복, 치유 등에 집중하여, '예술 안에서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목표 설정 • (세부내용)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연극촌, 꿈꾸는예술터 등을 연결하여 작은 단위에서부터 지역민, 예술단체들과 협업하는 작업
부산문화예술 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부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서부권에서 인력양성과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진행 중임 • (세부내용) 지역민과 소통하는 반상회 프로그램, 마을기록단 기록.아카이빙 사업, 지역민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진행하는 예술도시락 등 실행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조직 체계와 인력을 단단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 (세부내용) 예술강사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유아/노인 문제를 바탕으로 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시도

주체명	주요 내용
장수문화예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장수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현황을 조사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사업 개념 설명 예정 • (세부내용) 전통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장수 내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추진
중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방향) 정책융합거점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직을 잘 기획하는 역할, 각 부처의 사업들을 잘 융합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설계 예정 • (세부내용) 중구 내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릴 예정. 또한, 다문화 가정 대상 예술치유 워크숍 등도 계획 중임

○ 그룹별 논의 내용

- (A그룹) 완주/구례/밀양/장수/부산북구: 지역 인물들의 자생성 키우기
 -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지만 거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자생성도 따라올 수 있을것
 - 중간에서 연결하고 매개하면서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먼저 알려주고 어느 정도의 예시를 보여줘야 지역의 주체들도 스스로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필요
 - 지역의 자생력뿐만 아니라 기초거점 사업의 운영 주체인 '우리'의 자생력 또한 함께 고민하고 상위기관에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음
 - 사업이 계속 지속 되려면 주체들 스스로 건강한 성장을 해야 하겠지만 성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 구축 함께 고려
- (B그룹) 전주/포항/청주/성남/중구 : 활동가·기관 등과 함께 힘 합치기
 -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협력과 정책적 대안이 모두 마련돼야 함
 -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해시키고 협력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지역 내 활동가/예술강사/예술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우선 현장으로 찾아가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퍼실리테이터 등 중간매개자를 두어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매개하고 번역하는 역할도 중요함
 - 사업 관련 이해도나 생각이 다른 주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함. 또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보여주거나 예산을 공개하는 등 최대한 공유하려는 노력 필요

- (C그룹) 성북/춘천/광주북구/공주/광주동구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확장하기
 - 참여 주체들이 다양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재단(공공) 또는 민간주체), 우선 기초거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 주체들 스스로 각자 기초거점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기초거점은 누가/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 기초거점 사업의 운영 주체들도 결국은 거점을 구성하는 수많은 주체 중에 하나로서, 여러 관계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음





3) 2022년

① 1차 공유워크숍

□ 행사개요

- 추진목적: 2022년 공모에 선정된 신규 거점주체 및 관계자 대상 사업 세부내용 안내 및 거점주체 간 상호 교류·학습 계기 마련
- 일시/장소: 2022. 7. 14.(목) 13:00-17:30 / 교육진흥원 A.lab
- 참석대상: 총 31인 (온라인 참석 포함)
 - (거점주체) 2/3년차 거점주체(3개), 신규 거점주체(8개) 실무 담당자
 - (전문가) 백현주 대표, 우지연 이사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상세일정

시간	내용	진행
13:00-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교육 진흥원
13:10-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간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 관련 안내<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신청 절차 및 예산집행(보조금 운영규정 포함) 방법- 기타 사업추진 일정 관련(컨설팅, 워크숍 등)	교육 진흥원
13:3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소개] 사업 추진관련 주안점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화공동체 결, 복합문화지구누에(nu-e), 지리산씨협동조합	2/3년차 거점 (*온라인 연결)
14:0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계획 공유] 주체별 사업 추진방향 공유<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신규 거점주체별 사업 주요이슈 및 고민 공유 (주체별 10분)	신규 거점주체
15:20-15:30	(휴식)	
15:3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체토론] 사업 주안점 및 핵심 키워드 관련 전문가의견 공유<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주요 키워드 고민, 사업계획 보완 방향 논의- 주체별 질의사항, 컨설팅 필요사항 등	백현주 대표, 우지연 이사, 신규 거점주체 백현주 대표, 우지연 이사, 신규 거점주체
16:3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그룹별 논의] 향후 사업관련 방향성 논의	
17:30-	(마무리 / 기타 자유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 주요 내용

○ 사업 소개 / 2, 3년차 거점주체

• 복합문화지구 누에

- (사업목표/방향 설정) 해당 지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고, 완주에서 구현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고민. 오랜 협의 끝에 시설/기능/전문인력 중심의 도시형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마을/과정/공동체 중심의 농촌형 문화예술교육을 형성해 보겠다는 목표 설정 → 즉,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혁신과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실현, 자연스럽게 배우는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곳”

- (완주지역 고민)

- (지역 내 자립 고민) 군 단위 지역에서 자립이 가능한 일인지, 자원은 있는지, 기존 문화예술교육과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는지 고민함
- (공동체에 대한 고민) 완주 지역은 로컬푸드 공동체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귀농귀촌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공동체가 존재. 지역 리더로서 확장 및 마을거점 발굴을 위해 이러한 공동체들을 만나기 시작 → 기존 활동이 견고한 만큼 자기 폐쇄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이해도 향상과 인식개선을 과제로 설정

- (향후 방향성 제안)

- (지역 내 파트너 형성) 그간 훈련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기존의 관성을 깰 수 있기 위해, 지역 내 주체들을 더딘 속도로 바라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람을 중심으로 느슨하면서 여유롭게 함께 가는 방향 추구 →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역 안에 주체들에게 먼저 문을 두드리서 파트너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
- (일상적/자발적인 실천) 마을에서 스스로 이슈를 발견하고 드러내도록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마을거점 주체들과 반문하고 고민중임

• 교육문화공동체 결

- (광주 동구 사업목표 공유)

- (제도적 기반 마련) 기초센터 지정, 조례제정 등 지역적 기반 형성
- (네트워크 형성) 모두가 똑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는 방향보다는, 기관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 목표
- (공공성 확보)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다소 ‘시장화’되어, 체험형

온라인클래스, 키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급/소비/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성’을 어느 정도로 투입할 것인가가 관건. 지역 내 소외되고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실험하는 것이 목표

- (향후 방향성 제안) 결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혼자서 찾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만나고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 지역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나올 것

- (지역 내 기반형성에 집중) 기초거점 사업은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므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그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역량은 높여왔을 것이므로, 지역 안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활동할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면, 기획 프로그램 등은 자연스럽게 운영될 것
- (중장기 계획 고려) 3년 차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염두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함. 3년 후에 자동으로 성과가 남는 사업이 아니므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

• 지리산씨협동조합

- (사업 참여배경) 구례군은 인구 2만 정도로 작은 도시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 참여
- (고민지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던 문화예술교육의 고질적인 특성이 있는데(예술강사 문제, 지역의 수요, 삶의 생태계 등),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요소가 지역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고민임

- (사업의 의의) 사업을 통해 ‘마음껏 주민들을 만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봄. 지역이 어떠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지역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일 것. 또한,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이 무엇일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봄

- (구례의 목표지점)

- (자존감 문제 해소)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각자가 가진 가치를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험하고자 함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주민뿐만 아니라 관과의 협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동. 지자체/교육청/지역의 주요 기관들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데에 주력을 해오고 있음
- (지역 밀착형) 지역이 작기 때문에 밀접하게 고민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 조밀한 지역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음

- (향후 제언) 주민을 만나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거점 사업은 일반적인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목적도 분명하고, 유연하므로 이것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적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람

○ 주체별 계획공유

금천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및 현황)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들이나 기관들이 많고,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으나, 모여서 네트워킹이나 고민지점을 나눌만한 자리가 없었음 - (주요 방향) '협력망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고민 해결. 1)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사, 2) 지속가능한 협력망 구축 및 장기적 계획 설정, 3) 열린모임, 라운드테이블, 포럼 - (고민) 문화예술교육이 굉장히 많은 장르와 목적, 기능적 측면에서 다양한 갈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하여 묶어 나갈지
대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및 현황) 10년 정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으나 주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쉬웠음. 더불어, 지자체나 주민들이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낌 - (주요 방향) 1)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에게 교육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스스로 기획해보는 인식개선, 2) 주민자치회와 함께 협력하여 그들을 교육시키고,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 3) 지속성을 위한 조례제정, 4) 기획자양성, 5) 거점공간 발굴 등
문화공감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지역 내 활동가들이 50대가 주류이고, 실제 활동을 이어갈 3-40대 그룹이 많이 없는데 지역에 있는 인구 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로 '교육'을 잡게 되었음 - (주요 방향) 곡성 교육회의 안에 문화예술교육을 의제로 올려서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함. 특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수년간 공모사업에 길들여 있어서 한정적인 자원을 극복하고자 거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순한곳 제주, 상상창고 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제주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상황이 많이 다르고, 제주시 안에서도 시내와 신제주의 환경이 달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권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해보려는 고민이 있음 - (주요 방향) 코로나 이후 생태계 변화로 인한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고자 함. 또한, 민간단체로서 컨소시엄을 통해 향후 안정화와 지속성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함. 또한, 지역 밀착형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고민) 지자체와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당장 처음부터 협력을 시작하기보다는,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기초거점의 필요성과 요구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후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
연수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연수 지역은 개발이 많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음. 단, 상대적으로 단발적 경험 중심의 평생교육 분야가 활발함 - (주요 방향) 1) 지역 내 주체들을 찾고 연결하는 사업, 2) 지역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으로 해결해 보는 논의구조 형성, 3) 자원조사, 공론장 추진, 4) 자기주도 실천모임을 통한 비교육자와 교육자의 고민과 연구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자 함
영도 문화도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영도 지역은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실정이라서, 핵심적으로는 문화도시센터로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 - (주요 방향) 1) 주민들이 직접 의제를 생성하는 풀뿌리 거버넌스 구축, 2) 아카이빙 사업을 통한 해양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봉산마을 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 운영 예정. 올해는 공론장을 중심으로 협력주체를 확장하는 단계를 수행할 예정
원주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원주는 10년 넘게 각 문화재단을 비롯한 전문 기관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 사업을 해옴. 이러한 상황에서 시 안에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좀 더 발전된 계획을 추진할 예정 - (주요 방향) 1) 추진 주체 구성, 2) 공론화 형성, 3) 협의체 구축, 4) 지역자원 조사, 5) 협력사업 운영 등 - (고민) 4개월이라는 사업기간 안에 계획에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성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또한, 기존 방식에서 어떻게 탈피하고 확장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

- (배경) 그간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며 지역 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업도 협력주체 네 곳과 함께 고민하여 준비함
- (주요 방향) '수요에 기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내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1) 수요자 중심의 목소리 청취, 2) 지역의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통한 담론 형성, 3) 지원체계 구축 및 수요자 욕구 발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강화
- (주안점) 지역 안에 실험해 온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도와주고, 단순히 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협력/학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또한, 지역과의 관계맺기를 위한 예술가 모임 운영 중임. 더불어, 올해는 조례 제정까지 고려하여 공간과 주체와 함께 성장하는 사업으로 생각 중임

○ 전체토론 / 전문가, 거점주체

•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와 핵심키워드 / 우지연 이사

- (기초거점 사업에 대한 정의) 전반적으로 심사 시 사업계획이 비슷했고, 지역의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었음. 왜 기초거점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는지 계획에 좀 더 드러나면 좋을 듯함. 각자의 기준을 정의내려야함
→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황파악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함. 또한, 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거점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지역 거점은 00을 하는 곳이다'라는 정리 필요
-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협력방향 설정) 이에 따라, 협력해야 할 주체에 대한 방향이 나올 수 있음. '우리가 지역 전체를 다 책임지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누구를 만날지를 결정해 나가면서 핵심주체를 발굴해야 함
→ 민간에서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려놓고, 대신 전체적인 방향성을 생각해야 함. 생태계 전체를 만들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어떠한 빈 부분을 메꿀 것인지, 무엇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공공에서는 기존의 토대를 바탕으로 지역 안에서 민간이 활성화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함
- (협력의 파트너 형성) 거점의 역할을 설정하고, 그 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협력의 파트너들의 고민을 공론장 등을 통해 파악하고, 주체들과 긴밀하게 관계 맺고 알아가는 과정 필요
→ 기초거점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역할, 방향 등을 협력주체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초거점의 운영방향이냐 계획이 자연스럽게 수립될 수 있을 것(단순한 요청이 아닌 상호논의)

- (제도적 안정화 등) 이렇게 협력의 주체/협력의 방식을 정리한 이후에 더 많은 협력주체를 발굴하거나, 역량 강화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제 도출 등이 가능할 것. 단순히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된다는 개념을 넘어, 그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초거점 사업임.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획 점검 필요
→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역량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 안에서의 방향성/역할/과정 설계에 대한 기획이 많이 필요할 것임. 기초거점 사업은 결국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찾는 과정이므로, 자유롭게 시도해보면서 답을 찾아나가야 함

• 사업 형성 과정에서의 주안점 / 백현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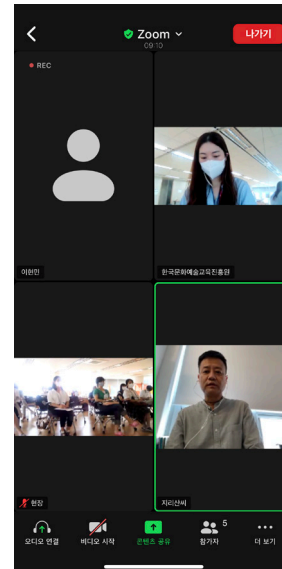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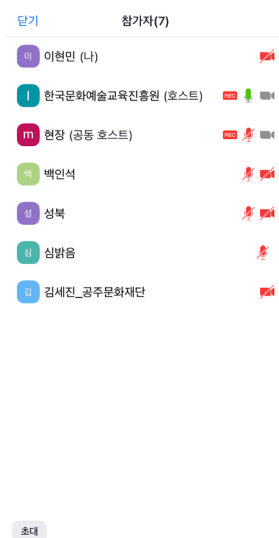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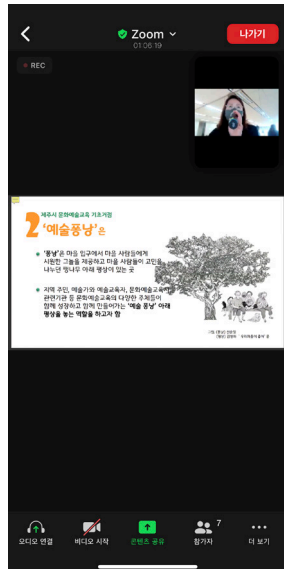
- (밀도 있는 논의과정 형성) 사업 참여주체 간의 용어가 비슷하다는 것(ex: 주체 발굴, 육성, 협의체 구성, 공론장 운영, 자원조사 등)의 핵심은 디테일의 차이에 있다고 봄. 결국에는 참여한 동기가 무엇인지, 참여하기까지 얼마나 밀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함
- (자기해석의 필요) 기초거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경험과 수정을 거치고 그것에 대한 자기해석이 있어야 함. 디테일을 만들고 공론장, 협의체 등 생태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해야 함
- (거점 공간 확보) 향후 예산확보와 지속 가능한 체계를 위해서는 지지하는 시민 그룹이 있어야 함. 여기서 시민들은 공간으로 거점을 기억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므로, 거점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공간이 커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공간의 문화나 뉘앙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 기초거점 사업의 목적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생태계라는 유기체를 성장시키는 것임. 이 안에서 공존하려면 주체들 간에 서로 얼마나 같이 머무르고 알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견뎌야 함.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어야 함

• 기타 주체별 의견 공유

-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관점이 중요한데,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음. 이 때, 무엇보다도 올해 가능한 만큼만 확실히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 사업 특성상 일반적인 공모사업이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응축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데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대한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었음

-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와닿았음. 사업에 어떠한 지점을 염두해야 할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
-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다소 부담이 큰 측면도 있음
- 지역 안에서의 공동체에 대해 꿈꾸고 있는데, ‘마중물’이라고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든든하고 짐이 덜어지는 느낌.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됨





② 1차 교류워크숍

□ 행사개요

- 추진목적: 거점주체 실무자 간 네트워킹 사업방향 공유
- 일시/장소: 2022. 5. 25.(수) 11:00-14:00 / 상연재 시청역점 인근
- 참석대상: 총 20인 내외
 - (거점주체) 2/3년차 거점주체(14개) 실무 담당자
 - (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 이현민 주임
- 상세일정 ※오후(15:00 이후) 중 거점주체 관리자(팀장급) 대상 '정책 간담회'연계

시간	내용
11:00-13:00	• 주체 간 네트워킹
13:00-13:10	• 연간 사업일정 및 행정절차 관련 안내
13:10-14:00	• 주체별 사업 현황 및 '22년 주요 계획(사업방향) 공유 • 사업 주요이슈 관련 논의

□ 주요내용

주체명	내용
장수 문화예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과 교육주체를 연결하여 하나의 지역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예정 • 자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복지, 예술치유 전문가와 협력한 워크숍 추진을 통한 주체의 전문성 확보
밀양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단위의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역민-지자체와의 공동 콘텐츠 개발 • 향후 보다 명확한 거점의 역할을 위해 사업 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예정
춘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만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릴 예정 • 지역사회, 학교, 시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재단에서 어떠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했으면 하는지 의견수렴 하는 과정
성북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집중할 예정 • 그간 제시된 거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실천해보는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예정 • 키움센터, 주민센터와 함께 돌봄의 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확장할 예정 • 예술가,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실험 프로젝트(LAB) 진행

주체명	내용
지리산씨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한 협의체 형성, 지역 예술가와의 논의 지속 지역 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역 아카이브 활동 등
중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간 재단에서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거점의 역할 고민 지역내 예술강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의견수렴
교육문화 공동체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주체 조사/의견수렴 향후 단독 센터 조성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와의 논의 마을이나 현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랩 운영
공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면장님들과의 회의 추진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지역 기초연구 조사 등
포항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플랫폼 구축 지역 이슈를 주제로 한 시범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협의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소모임 활동 지원 지역 안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민 및 사회적 가치 연계 조례제정, 지역 내 협의체와의 협력방안 구축
성남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센터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 유아, 노인 등 예술강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체계 형성(성남 예술강사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복합 문화지구 누에(n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담론 형성, 마을거점 운영, 매개자 양성사업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 운영 광역 단위와의 협력방안 고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연계사업 개발
광주북구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자체 발굴 주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처 발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동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③ 2차 교류워크숍

□ 행사개요

- 추진목적: 거점주체 실무자 간 네트워킹 사업방향 공유
- 일시/장소: 2022. 9. 21.(수) 12:00-14:30 / 교육진흥원 인근(서울 마포구)
- 참석대상: 총 30인 내외
 - (거점주체) 기초거점 주체 실무 담당자
 - (진흥원) 지역협력팀 이현민 주임
- 상세일정 ※오후 중(15:00 이후) 기초 관계자(거점 주체 관리자급 중심) '정책 간담회'행사 연계

시간	내용
12: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심 식사 및 주체 간 네트워킹
13:00-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사업 일정 및 행정절차 관련 안내
13:1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별 사업 현황 및 '22년 주요 사업 방향 소개 사업 주요이슈 관련 고민 지점 공유 및 논의

□ 주요내용

주체명	내용
장수 문화예술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1년차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2년차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어떤 지점을 연계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임 (주요방향)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물/불/해를 소재로 문화사회라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역 예술가 및 활동가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처음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주요방향) '21년에 같이 활동했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추진 단계를 높여, 심화 과정으로서 지역 내 관계자에게 매칭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전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오는 10월 예술놀이 국제 포럼을 앞두고 있어, 거점주체를 대상으로 초청 및 관계자 간 논의 테이블 구성 (주요방향) 교육하는 예술가를 향한 고민을 다양한 사업으로 풀어낼 예정. 더불어, 올해는 자원지도 웹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

주체명	내용
순한곳 제주 /상상창고 스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지역 내에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초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등 거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임 (주요방향) 마을단위에 있는 평상을 형상화한 '예술풍낭'을 컨셉으로 라운드테이블, 워킹그룹 구성, 지역현황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은평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권역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지역 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있음 (주요방향) 그간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새로운 시도를 더할 예정
금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일주일에 한두번씩 소통을 하면서 올해 협의체를 어떻게 꾸려갈지, 각 주체별로 어떤 세분화된 주제를 설정할지 고민 중임 (주요방향) 마을 단위/지역에서 하는 예술교육 주체로 활동해 온 분들과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만들어 보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금천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연수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현재는 COP 형태로 지역 내 주체들을 발굴하는 공론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방향) 지역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주체를 찾고, 지역에 어떠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 수립
춘천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지난 7월 말에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추진함으로써 춘천의 그간의 고민을 축적하고 향후 새로운 방향 고민 (주요방향)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 지역이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
영도문화도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내 공간적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고민하고 있음 (주요방향) 부산 내에서 영도구는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청년 인구가 없는 도시임. 이러한 세대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해양 문화의 소재와 연결하여 추진 예정

주체명	내용
성북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문화예술교육가와 함께 연구, 네트워킹, 실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랩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돌봄'을 키워드로 하여 키움센터와 협력한 시도 중임 • (주요방향) 지역 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을 나누고자 함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예술인 반상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예술가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지역 내에 관계자들을 모아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키는 작업 • (주요방향) 지역 내 예술가와 시민들과 함께 북구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보다 깊이있는 거버넌스를 형성
대덕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현재 협력주체 분들과 함께 지역 자원 인터뷰조사, 시범 프로그램 운영, 결과발표회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 • (주요방향)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동네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찾을 예정
북한문화지구 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마을거점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한 프로젝트를 지역 내에 적용해보면서, 각 마을 활동가분들의 역량강화 지원 • (주요방향) 3년차로서 향후 지역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고, 모임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할 예정
원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10월 첫째주부터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한 만남을 진행하면서, 지역 안에서 필요한 협력적 시선 등에 대한 방향성을 나누고자 함 • (주요방향) 지역 예술인을 공략하여,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지역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원주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방향성을 찾아나갈 예정
광주북구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2년차까지 발굴된 옆집 예술선생과 더불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고, 그간의 호라동을 담아낸 아카이빙 페이지를 개발 중임 • (주요방향) '옆집 예술선생'이라는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마을 안에 필요한 주제를 직접 설정하고, 협력주체를 발굴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주체명	내용
포항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21년에 진행한 프로젝트 대상을 보다 확장하고, 향후 지역 내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을 찾을 예정 • (주요방향) 지역 이슈를 반영한 공동체 회복,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임
지리산씨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월 경에 프로그램 주체와 청소년들이 직접 소감을 이야기하는 형태를 계획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랩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만나는 프로그램 기획 중임 • (주요방향) 행정과의 연결을 위해 협의체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작업,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네트워크 형성, 문화예술교육 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
문화공감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지역 내 청년 자원이 없는 지역이라서, 젊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추진 중임. 또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 수렴 예정 • (주요방향)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
성남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전문인력 분야 네트워킹 형성,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 수행 중임 • (주요방향)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특화사업 개발(유아, 노인 등), 협력주체 발굴, 꾸미는 예술터 사업과 연계한 공간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교육문화 공동체 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커뮤니티 단체 및 지역 내 행정조직과의 협력방안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지역 내 다양한 분야(평생교육, 생활문화 등)와의 연계/협력방안을 고민 중임 • (주요방향) 마을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작업 진행, 네트워킹 형성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
공주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지역 내 거점의 역할을 다양한 라운드테이블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워킹그룹 발굴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중임. 더불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연구 추진, 아카이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방향) 공주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평생교육 등의 다른 개념과 무엇이 차별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를 지역에 맞는 형태로 만들 예정



④ 성과공유 포럼

□ 행사개요

- 목적: 기초 단위 관계자 대상 성과 공유를 통한 사업 필요성 도출
- 일시/장소: 2022. 11. 28.(월) 12:00-18:30 / 상연재 서울역점
- 대상: 거점주체, 지역 관계자(광역센터, 전문가), 진흥원 등 / 총 82인
- 내용: 기초 거점으로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성과를 핵심주제별로 정리 및 진단, 성과별 세부사례 발표, 지역 내 지속방안 논의 등
- 일정

시간	구분	주요내용	진행
12:30-12:50	여는 말	• 기초거점 사업 취지 및 추진경과 공유	허윤정 팀장
12:50-13:10	기조 발제	• 기초거점 사업의 3년간의 전체적 성과 진단	임학순 교수
13:10-14:30	세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1] 자원조사·연구·아카이빙 / 인적자원 발굴 - (발제) 거점주체의 조사·연구·아카이빙/자원발굴 결과리뷰를 통한 주요지점 고찰 - (사례발표) 북구문화의집 김희승, 복합문화지구 누에 김진아 단장, 전주문화재단 김주희 팀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백인석 팀장 	- 백현주 교육 기획자 - 김정이 대표
14:40-16:00	세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2] 지역특화 콘텐츠 / 타영역 수요매개 확장 - (발제/토론) 교육/복지/산업 등 지역 내 타 영역과 연계한 지역의 수요 대응, 문화예술교육 영역 확장 사례 관련 - (사례발표) 성북문화재단 김도영PM,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대표, 춘천문화재단 강정지 팀장, 포항문화재단 이주행 팀장 	- 최지만 소장, - 우지연 이사
16:20-17:20	세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3] 광역 단위에서의 기초 단위 거점주체 발굴 성과 - (사례발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영경 센터장,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최영갑 팀장,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경욱 팀장 - (토론) 광역센터의 기초단위 거점주체 발굴·육성경과 관련 	- 안태호 이사 - 정경운 교수
17:30-18:30	종합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거점 사업 성과를 통한 변화지점/향후 과제 - 각 세션별 주제/논의거리 설명 및 각 사례별 의미 조망 * (종합토론) 김정이, 백현주, 최지만, 우지연, 안태호, 정경운 	고영직 문학 평론가

□ 주요내용

[사업소개] 기초거점 사업취지 및 추진경과 공유 / 허윤정 팀장

○ 기초거점 사업 개요

- (필요성)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풀뿌리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으로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개념) 기초 · 생활권단위 문화예술교육 설계 · 기획하고 활성화/촉진하는 거점
- (핵심가치) 협력 / 지역맞춤 / 지속가능성
- (거점의 기능) 지역의 여건에 따라, 거점의 핵심기능 자율적 설정
- * 주요기능: ①자원의 발굴 · 축적 · 매개, ②자원의 성장 · 지원, ③지역 특화된 협력 콘텐츠 개발 · 보급, ④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인식확산 · 홍보
- (핵심과업) 지역내 협력 · 논의구조 통해 중장기계획 및 운영모델 도출

[기조발제] 기초거점 사업의 3년간의 전체적 성과진단 / 임학순 교수

○ 성과 및 시사점

- (거점기관/인력의 역량강화) 지역에 대한 이해, 문화예술교육 기획, 자원과 협력 네트워크, 미래 지역 거점기관으로 지속성 확보 및 브랜딩 전략 필요
- (연결-확산-통합의 생태계 구축) 학교, 사회복지, 환경, 공동체, 생활문화, 문화기반시설, 치유, 돌봄, 평생교육, 문화도시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
- (지역분권-문화자치 시대, 생활권 기반 모델 제시) 마을 기반 활동 거점, 시설 및 공간 기반 활동거점, 기초단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모델 제시 등

[세션1] 자원조사 · 연구 · 아카이빙, 인적자원 발굴 성과

○ [전문가 발제] 백현주 교육기획자

- 행정이 통제하려던 것, 행정에 미루려던 것을 이제는 현장이 가져와 현장성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각각의 현장과 현장다움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음. 현장을 살리는 것은 결국 현장을 이끄는, 현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주체와 그들의 의지, 힘에 달려 있음. 기초거점은 바로 이 주체를 찾거나 키워내는 것으로부터 출발점을 삼고 있음
- 기초거점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은 ‘현장을 형성하는 주체의 자격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음. 현장은 그간 주어진 룰대로 행하던 위치에서, 이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위치에 왔음. 지역을 살아 숨 쉬게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집중해보면, 그곳에서 필요한 일들이 그곳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정해져야 마땅할 것임

⇒ “기초거점 사업은 문화자치의 거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위상을 잘 찾아서 각자의 포지셔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주체별 사례공유

광주 북구 문화의집	<옆집예술선생>은 우리 옆집 아주머니, 나의 대학 동기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는 생활민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소소하고 가깝게, 면밀히 더듬으며 이어지는 촘촘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 설정
북한문화 지구 누에	<예술뜨래>는 단순히 가르치는 예술가가 아닌 지역에서 예술적 시민성(Artistic Citizenship)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기초거점을 통하여 발굴되고 성장한 ‘예술뜨래’는 완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 주인공이 될 것
전주 문화재단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지도는 지도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슈를 모으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로 확장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즉, 단편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목록화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축적하는 과정이었음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이번 사업에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주도성을 최대한 참여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음. 단순히 자율성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설명해주고 리더.기록자.참여자로 역할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통해 권위 해체작업 진행

○ [토론] 비커밍컬렉티브 김정이 대표

- 기초가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신체성을 획득한 개념은 중요함. 권한의 분산은 다양한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까지 중앙과 기초의 관계는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념의 가지치기’가 필요함. 중앙과 기초의 관계가 다양한 목소리의 수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경험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음. 이 과정 안에서 협력은 각각의 정의를 공동의 정의로 모아내는 작업이었으며, 협력을 기반으로 협치(거버넌스)는 작동할 수 있었음
- ⇒ “기초거점 사업의 성과로 3년을 매듭짓는데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 즉 정의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함”

[세션2] 지역특화 콘텐츠, 타영역 수요매개 · 확장 성과

○ [발제] 삶지대연구소 최지민 소장

-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연결되는 기초거점) 기초거점 활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연결되고 협력하는 구조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음.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사회문제 해결 등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주체발굴과 지속 가능한 활동 생태계를 모색함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대) 기초거점은 지역사회의 이슈나 문제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협력방식을 모색하였고, 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방안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가교역할이자 실천적 연결고리) 기초거점은 지자체 및 광역,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구조 안에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기에 정책과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함
⇒ “단순히 예술적 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일거리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임”

○ 주체별 사례공유

성북 문화재단	함께 우리의 속도대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활동 원리로 다시 돌아오고 확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예술로 키움>의 원리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판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장면을 상상함
지리산씨 협동조합	취지는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지칠 만하면 옆으로 돌면서 공부도 하자는 것이었음. 작은 지역에서 지역사업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수요자에 대한 ‘접근과 발굴’을 해낼 뿐만 아니라 ‘공동과정 개발’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경험은 주요한 성과였음
춘천 문화재단	지난 3년은 다양하게 흩뿌려진 문화예술교육 갈래를 어떻게 모으고 연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장이었음. 문화예술교육을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으며 나와 세상을 잇는 감각의 스펙트럼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음
포항 문화재단	사업을 통해 포항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확장해나가며,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인식을 확산하고 있음. 한 분야와 연계될 때마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연계를 통해 새로운 주체가 발굴되기도 함. 이런 새로운 시도는 기초거점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

○ [토론] 한국문화의집협회 우지연 이사

- 생활권의 위치는 정책 전달체계의 제일 아래에 있어서, 지시사항을 그대로 실행하는 곳이었으나, 기초거점 사업에서 만큼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체이자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가는 당사자로 ‘지역’이 자리함
- 문화예술 영역 안에 갇혀있던 문화예술교육이 삶의 영역으로, 더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으로 넓어졌음. 이전에는 문화예술 영역 안에서 예술가, 예술강사, 예술단체, 문화시설 안에서의 만남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학교, 복지, 마을, 행정 등 다른 영역과의 만남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읽어내는 하나의 관점으로, 지역의 전망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등장했음. 기초거점을 통해 축적한 당사자로서의 경험, 협력의 경험, 거버넌스의 경험은 지역 차원에서도 유실하면 안되는 중요한 경험이자 지속적으로 축적해가야 하는 부분임
⇒ “기초거점은 매개와 협력, 필요와 수요 발굴, 새로운 주체 등장의 거점임. 지역분권 시대에 지역 스스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자치’의 경험이 기초거점 안에 축적되어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

[세션3] 광역 단위에서의 기초 단위 거점주체 발굴 성과

○ 주체별 사례공유

인천 센터	중앙에서 광역에 광역 단위의 허브 역할을 기대하는 것처럼, 광역에서 기초에 기대하는 것은 생활권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이며, 이 역할을 수행할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충북 센터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단체가 자생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게 광역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충남 센터	지역에서 양성한 인력을 발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의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기초 단위 거점을 만드는 기반이 아닌가 생각함

○ [토론1]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안태호 이사

-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 문제의 해결, 나아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환기하고 삶에서 그 가치들을 재인식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런 지평 하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문제를 새롭게 설정해야함

- 기초 지자체 내에서 플레이어들이 잘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광역재단이 이를 연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광역문화재단에 집적되어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기초문화재단, 혹은 기초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등과 공유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함
- 나아가 지역 분권과 권한 이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의 강화, 인력의 양성과 일자리(일거리) 창출, 정보의 축적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내부 네트워크 활성화/연구역량 축적이 필요함
⇒ “광역문화재단이 지자체 내의 모든 현실을 감당할 수는 없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파트너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정을 슬기롭게 설계하고 진척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 [토론2]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운 교수

- 그간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따르지 못한다는 반성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후 ‘지역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었음. 특히 지역분권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물리면서 추상적 논의나 단순 프로그램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문화예술교육이 만날 수 있는 실행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숙제로 발전함
- 지금까지 광역이중앙의 사업을 지역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작은 단위의 주체들을 발굴해내고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함. 이들의 논의테이블 운영과 그곳에서 제안되는 현장 요구사항들을 정책화 시키고, 단체 및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진정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광역 단위의 역할은 시 단위와 군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해 정책화시키고, 기초 주체의 역량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광역단위의 네트워크/교육/정보 교류 등의 역할을 해내는 것임”

[종합토론] 기초거점 사업 성과를 통한 변화지점/향후 과제 논의

○ 기초거점 사업의 의미와 성과

- (우지연 이사) 기초거점 사업은 기초 안에 토대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체들에게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어떻게 실험하고 싶은지를 묻는, 하나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었음. 3년동안 잘했냐/못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다려주는 과정’임. 시도하고 고민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즉,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봄

- (정경운 교수) 전남의 ‘문화지소’ 사례와 함께 이러한 방식의 사업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고 봄. 지역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봄.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화시키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임
- (고영직 문학평론가) 기초거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Attitude’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음. 관점, 활동방식 등 단순히 ‘태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점주체들의 사례를 통해 관점/활동/생각/협력의 ‘전환’을 떠올릴 수 있었음. 이러한 현장의 모습들이 향후 어떻게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
- (김정이 대표) 기초 단위의 주체들이 열정적으로 각자의 힘과 신체성이 반영된 ‘보이스’를 전달했음을 알 수 있었고, 연결/확산/통합/융합 등의 언어가 갖고 있는 비신체적인 접근의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음

○ 향후 과제 논의

- (최지만 소장) 그간 정책과 행정, 현장과 연구 등 여러 가지 트랙에서 고민해 온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략과 투지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이상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러한 의지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추후 행정주체를 설득하고, 정책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이나 정책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임
- (백현주 교육기획자) 사업을 통한 성과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해 무엇이 나아졌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있는데, 현실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상황으로 몰려갈 필요는 없음. 스스로에 대한 조바심/압박감에서 벗어나길 바람
- (안태호 이사) 지역마다 저마다의 곤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각 지역의 상황도 다양할 것임.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만드는 일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각 주체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각자의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각자의 고민을 나눈다면 향후 보다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⑤ 2차 공유워크숍

□ 행사개요

- 추진목적 : 거점 주체 관계자 간 네트워킹 및 사업 키워드·성과·방향성 공유
- 일시/장소 : 2022. 11. 28.(월) 18:30-19:30 / 상연재 서울역점
- 참석대상 : 총 30인
 - (거점주체) 기초거점 주체 실무자 및 지역관계자 (워킹그룹 등)
 - (진흥원) 지역협력팀 이현민 주임, 김지영 주임
- 상세일정 ※당일 성과공유포럼 진행(12:00~18:00) 후 추진

시간	구분	주요내용
18:30~19:30	소감공유	세 가지 질문을 통한 기초거점 사업 참여 소감 공유
19:30~21:00	네트워킹	저녁식사 및 교류·네트워킹





chapter 6. Ground-breaking

[기초거점 사업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

— 사업 참여소감

2022년, 마지막 교류워크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1. 문화예술교육(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올해 나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문화예술교육(기초거점 사업)을 접하기 전에도, 이미 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3.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각 지역에서 든든한 그라운드가 되어주는 서른 분이
저마다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남기시겠습니까?

1) 문화예술교육(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올해 나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파트너십, 네트워크, 만남, 용기
하면 된다는 감각
정리, 보조, 공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질문들, 대덕구 주민자치회 언니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소외지역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채워가며 느낀 뿌듯함, 사업비 정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문의 시간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과 지속가능성 있는 참여자들의 감성
나의 주제를 좀더 알게 됨
지역동네거점 기반으로 만든 창작스튜디오를 지역주민밀착 예술 향유 및 교육
지역의 고군분투에 대한 앎, 공감
열린 길 이면을 바라보기
과정과 동지
가능성
함께하는 동료들
첫 사업 운영을 하면서 직접 당사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주민, 주체) 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한 '의지'
탈모와 장염, 위염, 든든한 정예군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하지만 녹록치 않음
허탈감, 가능성, 밀바닥(끄트머리)
무언가 도전한 경험, 만나게 된 찐한 사람들
마을 거점 활동가들과의 관계 형성
사람, 신뢰, 관계망
파트너 예술가 '예술 토레'를 통해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
지연민들과의 추억, 사람, 벗, 내일
인적 네트워크, 지역민들과 웃음, 나의 성장, 소통, 지역민들과 격려
'사람' 이전까지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할 때는 '누가 전문가인가?' 하는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깨달음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성장, 동력, 협업, 동료, 가치에 대한 확신
향후과제
성과자료집과 생활권 단위라는 의미

2) 문화예술교육(기초거점 사업)을 접하기 전에도, 이미 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마을, 일상 예술 발견, 이웃

어디서 기원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류를 위한 마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

예술의 가치, 효용, 관계, 문화예술

예술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문화예술교육 황무지에 문화, 예술, 교육이라는 묘목을 심고

10년 후 숲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이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문화예술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가져가기 위한 고민

조금만 알고 있던 나의 주제

지역거점 창작스튜디오 연계한 문화예술교육(기초거점) 참여 기회

문화예술교육을 긍정하는 마음

관계

일깨움

문제의식, 수요기반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수혜자 발굴, 주민과 예술가의 매개역할 수행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 문화예술을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정

용기, 해피바이러스, 패기

같이의 가치 실현의 열망

새로움, 설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

누에가 가지고 있던 2년간의 경험 및 마을거점의 2년간의 경험

공유지로서의 자아

유연한 관계망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바라보기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인적 네트워크 (그러나 사업을 통해 더욱 확장(안정)되었다)

‘지역’ 기초거점 사업이 있어 동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거기에 살고 있었고,

모두에게 각자의 동네가 있었음. 기초거점사업을 통해서 나는 '우리동네'를 이제야 바라보게 됨

좋은 동료, 멋진 선생님들, 지역에 대한 애정

풀뿌리문화예술교육 발굴

접한 이후로 의미가 있어진 것 같음

3)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프로그램과 파트너십을 잘 연계하는 것

지역, 마을에 안착하는 일상 문화예술교육

내일을 맞이할 용기

사람

지역민과 직접 만나 함께 하는 자리

창조력과 회복력의 원천으로서 예술에 대한 공감과 연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문화예술교육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끊임없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지역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신뢰하기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술가

함께 애쓴 아르떼에 고마운 마음

창작공간에서 문화예술거점으로 가는 길을 고민하게 된 계기

의미를 찾고자 노력한 시간들에 대한 공감의 기록

더불어 함께하는 삶

다음세대 동지(청년), 관계

지역에 맞는 네트워크 협력망

문화예술교육은 어려운 주제, 나와는 거리가 먼 주제라고 느끼는 인식 전환

더 다양한 부류와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넓은 시야

예술 안에서 오롯이 나로 행복하게 존재하는 것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문화예술이 꽃 피는 영도

처음 시작하는 문화예술교육, 깊은 여운

다양한 영역의 지역활동가 구축

함께 한다는 것, 삶 안에서 틈을 견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힘

人+지역 =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한 꿈 설계”, ‘예술또래’의 확장 (학교교사마을까지 포함)

지역과 지역민들이 예술교육으로 건강하게 이어지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향유 (상호작용)

‘누군가의 동네’가 아니라 ‘예술가의 동네’에서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싶음, 동네 안에서 예술가, 예술 교육, 공간을 모두 만날 수 있는 환경 필요

사람의 소중함, 함께 성장함의 의미, 지역에 있는 동료들

문화 강국

‘교육’에 국한되기 보다는, 보편적 문화예술향유에 한발 다가서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현민 주임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같이 성장한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지영 주임

“저는 이 사업을 접한 이후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은평문화재단 이찬 대리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만든 파트너십을 잘 연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은평문화재단 권정원 PM

“같이 성장하는 감각이 좋아서 기초거점 사업을 계속 하고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평 쓰담쓰담협동조합 정소영 대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의지가 꺾이지 않고
발전하는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나수아 팀장

“사업을 통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과
지속가능성 있는 참여자들의 감성이 남겨졌습니다.”

예술풍낭(상상창고 숨) 박진희 대표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남기고 싶어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많은 힘이 됩니다.”

예술풍낭(상상창고 숨) 이승연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주체들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 북구문화의집 김희승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저랑 이제까지 살면서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김진아 사업단장

“다양한 지역에 계시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소별아

“예술또래는 예술강사를 확보하는 매개자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마을 거점이나
기획자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술또래가 되고 싶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조예나 PD

“예술을 하며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감 창 김경록 대표

“과정 속에 있는 동지가 제게 남겨졌고요, 앞으로 남기고 싶은 것도 동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청년 동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김평수 센터장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은 기업과 지역민들이 예술교육으로 건강하게
넘나들고 이어지는 예술공동체입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최윤우

“오늘 포럼을 함께하면서 사업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남은 1년을 더 진심으로 지역을 생각하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덕문화원 차진주

“문화원에 남겨진 것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차로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불안함도 있었는데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 구석으로부터 서은덕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남겨진 것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공간 구석으로부터 이보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람을 남기고 싶습니다.”

전주문화재단 김주희 팀장

“저는 늘 거기에 살고 있었고, 모두에게 각자의 동네가 있었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심민정 주임

“저희는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주문화재단 김정은 주임

“이 사업을 통해 남겨진 것은 다양한 문화예술가를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이서하 이사장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남기고 싶습니다.”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서기수 팀장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향유자에서 주체자가 되어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북문화재단 김현주 대리

“하면서 좋았던 건 저희 지역에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환경에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좋았고 오래 인연이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성북문화예술교육허브) 길도영 PM

“제가 활동가로 있었을 때, 힘들었던 것이나 아쉬웠던 것을 보충하며 경계를 넘나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춘천문화재단 강정지 팀장

“사업을 통해 남겨진 것은 삼 년간 쌓아온 모든 과정입니다. 과정을 유산으로 남기고 또 앞으로 전진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김보린 과장

“사업으로 애정을 갖는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애정의 가운데에는 동료들과 사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주문화재단 김세진 팀장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힘 중 가장 큰 것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또 노력을 해서 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 남정민 주임

“기초거점 사업을 통해 남은 것은 소외지역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채워가며 느낀 뿌듯함과 피땀눈물입니다.”

chapter 7. Epilogue



[마치며]

결국, 기초거점 사업이 남긴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진행한 성과공유 포럼 제목이었던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와 같은 제목의 노래 중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즉,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는 노랫말 처럼, 우리가 사업을 통해 고민한 모든 것과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저 먼 바다도 높은 하늘도 아닌 바로 이 땅에, ‘현장 안에’ 이미 존재했다고 본다.

사업이 무언가를 꼭 남겼다고보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미 각자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3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획’과 ‘사업’과 ‘정책’ 속에 담기지 못할 사람 간의 신뢰와 발견, 그 안에서의 가능성을 지역생태계 안에 스스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모두 넘어선(Above the Ground), 진정한 결실이 알알이 맺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I worked my whole life.
Just to get right just to be like.
“Look at me I'm never coming down.”*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린 절대 뒤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말입니다.

*I worked my whole life.
Just to get high just to realize.*

우리는 평생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Everything I need is on th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On the ground.*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나에게,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요!

- Rosé / ‘On the ground’ 중

Above The Ground

2020-2022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워크숍 및 현장방문 기록집

발행인 박은실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이현민
제작 컬처앤유 장정신

홈페이지 www.arte.or.kr
문의 02-6209-5900
이메일 contact@arte.or.kr

등록번호 KACES-2222-C009
ISBN 978-89-6748-493-4 (93370)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하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Above The Ground